

제 11 차

2007 정기총회 자료집

일시 : 2007년 1월 19일(금) 오후4시-7시

장소 : 장충동 분도빌딩 5층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제 11 차

2007 정기총회 자료집

일시 : 2007년 1월 19일(금) 오후4시-7시

장소 : 장충동 분도빌딩 5층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목 차

■ 대표인사	3
■ 정기총회 순서(안)	5
■ 제10차 총회 회의록	7
■ 2006 감사, 회계보고	11
■ 2006 사업보고 및 평가	
1. 사업총평	17
2. 사업보고	21
1) 한반도평화센터	21
2) 갈등해결센터	38
3) 일상평화센터	73
4) 회원참여센터	77
5) 한국여성평화연구원	83
6) 정보사업	85
7) 연대사업	92
8) 기타	106
■ 2007 사업계획안	
1. 사업방향	115
2. 사업계획	118
1) 한반도평화센터	118
2) 갈등해결센터	119
3) 일상평화센터	125
4) 회원참여센터	126
5)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27
6) 정보사업	128
7) 10주년기념사업위원회	129
3. 월별사업계획표	130
■ 임원선출 및 보고(안)	133
■ 부록	
정관 및 운영규정	138
조직구성도	146
성명서 모음	148
발간자료 목록	197
연론보도 모음	198

대표인사

사랑하는 평화여성회 회원 여러분에게
2007년 한 해가 힘찬 도약과 희망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몸, 마음, 전체의 평화도 기원합니다.

올해는 평화여성회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화여성회를 통해 평화운동, 여성평화운동을 시작하던 첫 마음이 생각납니다.

‘평화’라는 말만으로도 가슴 설렘있고
‘평화운동’을 이 시대 최고의 지상 과제로 받아들이며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열정을 쏟아 부었던 지난날들이 기억납니다.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다짐하던
우리들의 모습도.

많은 일들을 실천했습니다. 북한여성과 어린이 지원, 전쟁반대, 평화군축, 남북여성교류,
평화교육과 평화문화 확산, 여성주의 평화연구, 갈등해결, 국제 네트워크 형성, 정책외교
제시 등등...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동력이 소진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달려왔
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평화를 둘러싼 우리의 지형은 때로는 좋고 거칠게 느껴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반전행동에도 파병은 계속되었고, 폭력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우리에게 남
아 있습니다. 평화미군기지문제 등 첨예한 사안에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일에도 여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07년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대선을 둘러싸고 정치 지형의 변화전망이 밝지만
은 않습니다. 특히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둘러싼 변화의 추이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한반
도 평화의 길을 굳건하게 열어나가야 할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러나 우리에게는 여러 역경을 극복해 온 저력이 있기에 거친 변화의 바람을 담담하게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평화'를 향한 마음이 한결같다면,
여전히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을 있다면, 그 뜨거움이 있다면
모든 주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 안에 내공이 필요합니다.
유연한 눈으로 세상을 진단하고, 부드러운 말로 서로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넘쳐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 오랜 세월 전쟁과 분단, 분쟁으로 얼룩지고 경직된 한국사회에서 평화운동은
이념보다 평화의 가치를 지향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요청되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더 경주되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의 전체 사업방향은 '여성들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의 미래 펼쳐 나가자'입니다.
평화여성회의 미래 비전을 구상하고, 그에 맞게 여성평화운동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즉 지난 10년의 일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구상
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감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 구상과 실현의 사명을 갖고 새로운 대표단이 출범합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평화여성회의 지도약을 꿈꾸는 새로운 대표들에게 회원 여러분, 힘을
실어주시시오. 여러분들의 끈끈한 지지와 격려가, 적극적인 참여가, 따뜻한 위트가 절실
한 때입니다.

지난 시간 무척한 사랑을 믿고 큰일을 맡겨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보여 주셨던 모든 회
원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이뤄진 모든 일들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습
니다. 회원들의 참여가 우리에게 희망이며 지력입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는 사랑을 보냅니다. 이 땅에 여성의 이름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 여러분에게 크나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1월19일

평화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 숙 임

정기총회 순서(안)

1 부 : 여는 마당 (오후 4:00 ~)

'평화란 무엇인가?' 회원들의 생각 나누기

진행 : 운영위원/여혜숙

2 부 : 본회의 (오후 5:00 ~)

인사말씀	_____	공동대표
격려사	_____	이사장/정현백
서기임명	_____	의장/김숙임
성수보고	_____	사무국장/김현희
개회선언	_____	의장/김숙임
회순재택		
2006년도 사업감사 보고	_____	감사/이정희
2006년도 사업보고와 승인	_____	사무국장/김현희
2006년도 회계감사 보고	_____	감사/한국영
2006년도 결산안 보고와 승인	_____	회계/안수경
임원선출	_____	인선위원장/문명녀
신구임원 교체식	_____	사무국장/김현희
2007년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_____	사무국장/김현희
2007년도 예산안 보고와 승인	_____	회계/안수경
기타		
모범회원상 수여		
회의록 발음	_____	서기/
폐회선언	_____	의장/

3 부 : 식사와 덕담나누기 (오후 7:00 ~)

제10차 정기총회 회의록

※ 서기 : 조영희

1. 일시 : 2006년 1월 17일(화) 오후 5시 ~ 7시
2. 장소 : 장충동 분도빌딩 5층
3. 내용 :
 - (1) 오후 5시 10분 최선희 사무처장의 진행사회로 총회순서를 시작하다.
 - (2) 평화명상 : 문명너 평화심성팀장의 주도로 평화명상을 진행하다.
 - (3) 격려사 : 남윤인선 여성연합 상임대표가,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평화운동이 10년 동안 성장하여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풍부해진 것에 가슴 벅차올랐으며, 평화여성회의 많은 발전을 기원하는 요지의 격려사를 하다.
 - (4) 대표인사 : 김숙임 상임대표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여성평화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성찰과 혁신의 각오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하는 요지의 대표인사를 하다.
 - (5) 서기일명 : 조영희를 서기로 임명하다.
 - (6) 성수보고와 개최선언 : 최선희 사무처장의 성수보고로, 5시 25분 김숙임 의장이 개최를 선언하다.
 - (7) 회순채택 : 김숙임 의장이 자료대로 설명하여 제안하여, 홍승희 회지팀장이 동의하고 문명너 평화심성팀장이 제정하여, 전체의 의견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정하다.
 - (8) 전회의록 승인 : 조영희 서기가 2005년도 총회 회의록을 낭독하여 보고한 후, 박수선 갈등해결센터 소장이 동의하고 홍승희 회지팀장이 제정하여 전체의 의견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확정하다.
 - (9) 2005년 사업감사보고 : 이정희 사업감사를 대리하여 홍승희 회지팀장이 자료대로 사업감사보고서를 낭독하여 보고한 후 오상남 회원이 동의하고 문명너 평화심성팀장의 제정하여 사업보고를 승인하다.
 - (10) 2005년 회계감사보고 : 한국염 회계감사를 대리하여 홍승희 회지팀장이 자료대로 회계감사보고서를 낭독하여 보고하고, 김현희 조직국장이 2005년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별지 자료대로 설명한 후, 김정수 공동대표가 별지자료에 대하여 장소마련, 남북협력기금 등 기금의 재정현황은 그 적립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항목간 차용 등을 명시적으로 적시할 것을 제안하고, 조영희 회원이 2005년 총회에서 안수경 회원을 회계로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질의하여 김현희 조직국장이 안수경 회원의 개인일정상 총회의 결의대로 회계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하였음을 설명하고, 다시 조영희 회원이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의 재정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한 후, 김숙임 의장이 감사일정이 총회준비위원회 이후에 잡히는 바람에 조직 논의를 충실히 하지 못하였음을 설명하여, 다시 조영희 회원이 회계감사보고서의 재정위원장과 회계에 대한 지적을 근거로 그 필요성을 포함한 인선 등

의 해결방안을 1차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것에 대한 안을 제안하여, 김엘리 정지위원이 동의하고, 이덕경 회원의 제청으로 원안대로 하기로 결한 후, 2005년 회지결산안에 대하여 노귀남 회원이 동의하고 홍승희 회지팀장의 제청으로 전체의 의견을 확인하여 원안대로 승인한다.

- (11) 임원선출 : 김숙임 의장이 법정 임원은 우리 회의 이사를 지칭하는 것이나, 우리 총회의 회칙에만 근거하면 임원은 운영위원을 지칭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갈등해결센터에서 청소년교육팀장으로 새로 선출된 여혜숙 회원과 일상평화센터의 장정화 회원을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추천하였음을 보고한 후, 전원 박수로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선출 임원의 인사말을 각각 듣다.
- (12) 2006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 : 최선희 사무처장이 자료대로 전체사업방향을 요약 설명하고, 각 센터 및 여성평화연구원의 사업은 각각 해당 센터 소장들과 심영희 여성평화연구원장(공동대표)이, 정보사업은 최선희 사무처장이,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김정수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공동대표)이 요약 설명한 후, 김엘리 정지위원이 자료집 138쪽에 국내의 연대활동에 SAFE(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평화 네트워크)의 제책이 빠져있음을 지적하여 김숙임 상임대표가 추후 보완하여 삽입할 것으로 답하고, 홍승희 회지팀장이 동의하고, 김현진 회원이 제청하여 전체의 의견을 확인하여 원안대로 확정하다.
- (13) 2006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 김현희 조직국장이 별지 자료대로 요약 설명한 후, 심영희 공동대표가 지출예산안에서 미지급금은 2005년이 아닌 2003년도부터 발생한 것임을 지적하고, 김숙임 의장이 이사회에서 예비비 항의 지출예산 금액이 0원임을 지적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음을 보고하고, 이에 관한 처리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제안한 후, 홍승희 회지팀장이 미지급금이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 지출예산금액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조영희 회원이 예비비 항의 설정과 금액 내역을 모두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무적결함을 지적하여, 박수선 갈등해결센터 소장이 2005년 갈등해결센터에서 발생한 12월 미지급분을 누락하였음을, 조영희 회원이 2006년도 지출예산안에 책시되는 미지급금이 2005년도 지출결산안에 누락되어있음을 각각 지적하여 이에 대하여 보완한 결과를 1차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을 위임하는 것으로 정하다.
- (14) 모범회원상 시상 : 최선희 사무처장의 진행사회로 갈등해결센터의 여혜숙 회원과, 일상평화센터의 평화심성팀, 해안진경 회원을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모범회원으로 추천하였음을 보고한 후, 심영희 공동대표가 시상하다.
- (15) 회의록 발송 : 조영희 서기가 회의록안을 낭독한 후, 최선희 사무처장이 장정화 회원은 팀장이 아닌 팀원임을 설명하며 수정하기로 하고, 전체가 박수로 만장일치로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16) 폐회선언 : 김숙임 의장이 살아있는 여성평화운동 보다 획기적인 여성평화운동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요지의 폐회사로 폐회를 선언하여 7시 16분 제10차 정기총회를 폐회하

2006년 감사보고

2006년 사업 감사 보고

1.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2006년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여성평화운동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펼쳤습니다. 긴장된 한반도 상황과 보수언론의 색깔 공세 충분하지 않은 인력과 재원이라는 여러 어려움을 풀고 활발한 활동을 벌인 사무처와 각 센터에 박수를 보냅니다.

2. 본 회는 6.15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활동을 이끌고 남북여성대표회의회의를 여는 등 남북여성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수해 시 모금활동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북여성교류사업의 담당자와 참여자는 한정되어 있고, 정치상황에 따라 교류 자체가 불안정하며, 본 회 자체로는 정치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교류의 정신을 꾸준히 이끌어나간 사업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관련분야 협력사업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본 회가 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화해와 교류를 추진하고 회원들이 참여할 사업을 만들어낸다면 길게 보아 남북여성교류가 여성 교류의 관심사에 관해서도 이루어지고 남북이 평양의 여성정책에서 장점을 배우며 여성들이 자신의 관심사로부터 통일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갈등해결교육이 더 폭넓게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대화와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이 교육에서만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하겠고, 본 회가 현실의 분쟁에서 인권과 평화라는 기초 위에서 조정자의 사각을 채우는 일을 시범으로라도 시도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4. 움직이는 여성통일학교와 금강산에서 열리는 여성통일골든벨 행사를 지역 여성단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한 것은 지역 단체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례로 보입니다. 월세평화야당, 한국여성평화운동사 발간과 같은 워크샵, 연구자료 발간 등도 회원들의 인식 향상을 위해 지속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 본 회의 활동 소식이나 각 센터의 활동 성과를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갈등해결을 위한 말 한 마디, 마음의 평화를 위한 행동 하나를 이메일에 담아 알리는 것도 훌륭한 단체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5. 여성평화운동에서 본 회가 맡고 있는 국제연대사업의 비중이 매우 큰데,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 인력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006년 1월15일

감사 이 정 회

감 사 보 고 서

정화물만드는여성회 귀하

2006년도 정화물만드는여성회 회계감사를 한 결과 회계 장부(엑셀문서), 수입,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잘 구비되었고, 통장차도 일치하므로 이상이 없음을 보고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1. 기금 상에서 일반 원 이하의 관고가 있는 기금이 여러 개가 되므로, 이는 경성비로 이관시키고 기금으로 남겨놓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2. 지불 상에서 영수증과 지불영수증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에 따라 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고 이우경대표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 국민은행 통장 024-01-0582-303은 사용할 수 없는 통장이므로 안타깝지만 잔고 440,404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손처분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7년 1월 12일(금)

감사 한국영





2006년 사업보고 및 평가

- I. 2006년 사업 총평
- II. 2006년 사업 보고

2006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업보고 및 평가

I. 2006년 사업 총평

2006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총회에서 전지 사업방향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여성평화운동 역량강화”로 잡았다. 2005년 9월 제4차 6차회에서 발표된 9.19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의제를 여성평화운동의 차원에서 정책의제를 개발하여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할 과제로 삼은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정책개발과 실천은 평화여성회의 운동역량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여성평화운동의 역량강화를 전체사업방향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주요사업으로 ‘여성적 관점의 평화체제 구축’, ‘여성평화운동의 의제 개발과 확산’, ‘평화교육과 평화문화의 확산’, ‘여성평화운동의 주제 형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조직역량 강화’, ‘국내외 연대활동’ 등으로 설정하였다.

여성적 관점의 평화체제 구축

2006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7월), 북한의 핵실험(10월), UN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지지시키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시켰다. 위기와 긴장이 조성된 정세가 지속되면서 평화여성회는 성명서 발표, 여성단체 워크숍 조직 등 현안 대응에 활동의 역량을 집중시키면서 본래 설정한 “여성적 관점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과제에 본격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긴장 국면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라는 거시적 담론과 목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본회의 활동들은 그 과정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본회는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7월)와 북핵실험(10월) 이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함과 동시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극대 경적이 철회될 때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조건이 마련됨을 천명하였고, 이를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 알렸다.

올해 남북민간교류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한지역 수해피해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진행한 공동행사 가운데 “6.15 민족대축전”(봉주)만 열렸고 8.15 행사는 개최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평화여성회는 6.15 공존위 남측위 여성본부에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을 파송하여 “3.8 남북여성대표자회의(금강산)”, 6.15 민족대축전 당시 여성부문 모임 등 남북여성교류에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또한 미사일시

협박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의 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인도주의 정신에 의거하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해지역을 모금활동에 동참하였다. 평화여성회를 비롯한 남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결집된 지원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환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본회는 2005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여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올직이는 여성통일학교”를 서울과 대전, 경기지역의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개최함으로써 여러 지역여성들에게 통일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이는 “금강산평화통일기행”으로 이어짐으로써 북한사회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하나인 금강산 관광을 이해하고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심도있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계획으로 수립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계획한 여러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지 못했다.

여성평화운동의 의제개발과 확산

평화여성회는 전략적 유연성으로 대변되는 종속적 한미동맹의 강화, 평행으로의 미군 기지 이전 등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여 생명, 평화, 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생명서 발표, 여성인권 침해 규탄 집회, 여성들의 비폭력 평화문화적 감수성을 반영한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제” 등을 여성단체 등과 함께 연대하여 진행하였고 회원들과 함께 대추리로 농활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여성단체들과 함께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정세 읽기와 여성의 대응”이라는 정책 워크숍 및 북 핵 실험 이후 여성의 평화적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회원들과 함께 가졌다. 또한 이스라엘의 레카는 침공에 항의하는 여성단체 집회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여성단체들과 공동개최하여 평화적 거리문화집회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평화운동 담은 생산

평화여성회는 올해 초 작년에 수행한 <한국여성평화운동사>를 발간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여성평화운동을 통일운동, 남북여성교류, 반군사주의, 여성인권, 국제연대, 평화교육 등으로 나누어 분야별·시기별로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여성평화운동사>는 지난 30여년 동안의 한국 여성평화운동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한국여성운동사에 중요한 기초 자료적 성격의 사료를 남겼다. 아울러 평화여성회의 지난 10년 동안의 활동을 포함시킴으로써 본회의 지금까지의 운동을 평가하고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올해 한국여성평화운동연구소는 이러한 성과에 대한 관심과 반향을 불러 일으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여성과 평화 5호> 발행 등 여성주의 평화운동운

위한 답론 생산은 연구자 그룹 조직화의 한계, 실무적 지원 미비 등으로 수립한 계획에 비해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평화교육과 평화문화의 확산

평화여성회의의 평화통일교육은 감동해결센터의 교육, 훈련, 조정, 3자 개입 등 새로운 시도, 갈등해결과 통일문제 결합 등을 통해 주체, 대상 지역 등의 확대를 이룩하여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비폭력 평화주의, 평화교육과 평화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로써 강사트레이닝, 초중고교, 대학생과 평화학교, 지역 공부방등 학생과 학부모, 공교육 영역 뿐 아니라 서울과 지역의 시민단체에서의 시민교육 분야, 기업체 워크숍, 정부기관, 평화교육 제도화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평화교육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심성훈련과 여성평화아카데미, 평화문화 확산 온라인 캠페인 등은 재정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다.

여성평화운동의 주체형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조직역량 강화

2006년 평화여성회는 현안대응과 정치인식을 위한 '월례평화마당'을 처음으로 시도하여 회원들이 변화하는 평화정세를 심층적으로 이해를 도모하고 본회 회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비록 제한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9.11 이후의 미국사회의 변화와 평화운동의 대응, 핵 실험 이후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등 현안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회원들이 현상 이해를 위한 역사적 배경, 구조적 문제 등을 파악함으로써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활성화 시켰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정세를 바르게 인식하여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평화여성회가 2006년 전제사업 방향에 포함시킨 '여성평화운동역량강화'는 조직적 역량 강화를 통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수의 상임활동가와 활동가들의 역량이 빠르게 전개되는 정세에 대한 대응활동, 다양한 사업 수행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면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2006년 초반 회원분의 및 회원대가 운동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보다 심층적으로 실시할 과제를 남겼다.

국내의 연대활동

올해 평화여성회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해 동북아 시민사회와 연대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무력갈등예방을 위한 GPPAC 동북아네트워크 지역협의회" 참여와 계획 지원 (3월, 금강산), 한반도 평화와 일본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한일연대(11

원), 동북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일본여성과의 연대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내 연대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이라크과병탄대국민행동,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여성평화네트워킹(SAFE), 통일교육협의회, 대인지외금지대책협의회 등에 참여하였다. 특히 남북여성교류 분야에 본회의 공동대표, 한반도평화센터, 사무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와 연대를 이루었다.

2006년 평화여성회의 전체 활동은 갈등해결분야에서의 보다 심화되고 다양화된 교육 활동의 전개, 변화하는 정세에 대한 위기 대응적 성명서 발표와 여성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워크숍, 거리집회 등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여성평화운동에 요청되는 역할을 담당 하였으나, 각각의 의제들에 대해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기초를 수립하여, 이에 근거한 목표와 방향, 활동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보다는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사업의 목표와 설정한 여성주의적 관점의 평화체제 구축, 여성평화운동의 의제 개발과 확산, 여성평화운동의 담론생성은 따라서 각각의 목표에 대한 충분한 내부논의와 함께 운동의 담론 개발과 정책수립, 실천활동을 통해 보완할 것이 요청된다.

특별히 2006년은 본회에 대한 보수언론의 악의적 색깔론적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 역시 향후 여성주의와 비폭력 평화주의에 기초한 여성평화운동을 보다 심화, 확대시킬 과제를 제시하였다.

평화여성회가 평화통일교육, 남북여성교류, 정세대응 부분을 제외하고 여타 사업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은 실무인력 부족, 인적 재정적 인프라 부족 등이 기인하며, 무엇보다 본 회의 정책적, 재정적, 조직적 역량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와 이에 기초한 사업계획 수립이 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화여성회의 역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요청된다.

평화여성회는 각 회원들, 이사회, 운영위원회, 각 센터, 사무처 사이에 전체적으로 주요사업방향과 개별사업, 연대사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여성평화운동 전문단체로서의 정체성과 비전 수립, 인프라 확대 그리고 회원들의 전문성 확대의 과정을 안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여성평화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향후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통해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정체성이 강화되어 한반도의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시각과 목소리, 정책과 실현과제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II. 2006년 사업보고

2-1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정경안)

1. 사업방향

2006년은 2005년 6차회담에서 선택한 9.19 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인권문제의 제기 등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 위협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및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세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여성들의 정책논의와 조직을 강화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문제는 미국의 북한정책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바, 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정책에 대응한다. 셋째,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형성을 위해 이 지역의 시민사회와 평화공존을 위한 협력을 추구한다.

2. 사업목표

- 1) 2005년 6차회담에서 선택한 9.19 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조직을 강화한다.
- 2) 남북여성교류사업을 지속, 강화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에 기여한다.
-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국회와 평화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 참여할 수 방안을 모색한다.
- 4)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여성단체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전문가, 활동가 네트워크를 추구한다.
- 5)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해 동북아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3. 사업계획

1) 여성의 한반도평화체제 형성 참여와 의제 개발

2005년 6차회담에서 선택한 9.19 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정책논의와 조직을 강화한다.

- (1)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 집행을 위한 활동·여성, 평화와 안보 관련하여
 군축과 평화과정의 여성의 참여 증진
- (2) 한반도평화체제 관련 내부세미나
- (3) 평화체제 관련 여성의제 개발
- (4) 여성평화테이블 구성 및 여성단체 정책 논의 활성화
- (5) 한반도평화체제와 여성 관련 토론회
- (6) 5.24 세계여성 군축의 날 행사
- 2) 남북여성과 화해 및 협력
 - (1) 6.15 여성분부 활동 지속 및 정책논의 활성화
 - (2) 남측 여성의 통일논의 활성화 및 행사
-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대응
 - (1)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미관계 경제 전망 논의 및 대응 모색
 - (2) 주한미군의 재편과 여성인권·평화문제 연구 및 대응
 - (3) '반전평화여성행동'을 통한 사안별 공동행동 조직과 공동심천
- 4)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동북아 시민사회의 연대
 - (1)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한국여성과 시민사회의 연대 지속 및 협력
 틀 모색.
 - (2) 무역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과드너십(GPPAC) 동북아 지역네트워크와 연대
 - 3월초 GPPAC동북아지역협의회 금강산에서 개최 지원

4. 사업내용

1) 한반도평화센터 회의

(1) 1차회의

가. 일시 : 2006년 2월20일(월) 오후 2시 나. 장소 : 평화여성회

다. 참석 : 김숙임, 김정수, 정경란, 박수선, 조영희, 김현희

라. 논의

가) 북측이 남북여성대표자회의 제안한 배경 설명

나) 북측에 제안할 의제 설명

다) 남북여성대표자회의를 위한 남북여성실무회담준비 논의

(2) 2차 회의

가. 일시 : 2006년 3월16일(월) 오후 4시 나. 장소 : 평화여성회

다. 참석 : 김숙임, 김정수, 정경란, 조영희, 김현희

라. 논의

- 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및 한미동맹 대응활동(5.24 세계여성평화군축의날 기념)
- 기획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주한미군범외근절운동본부 등
 - 사업내용 : 정책논의(기획단위), 이슈라이팅(평택 여성들과의 만남, 평택에서의 여성평화집회 등)
 - 진행 : 전쟁반대여성행동 등에 제안
 - 추진 : 3월 셋째주부터
- 나) 월 1회 한반도평화센터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다.

(3) 3차 회의 : 한반도평화센터와 갈등해결센터 회의

- 가. 일시 : 5월18일(목) 오전10시 나. 장소 : 평화여성회
 다. 참석 : 김숙임, 김정수, 박수선, 정경란, 조영희, 김현희
 라. 논의 : 평화중재를 위한 논의

(4) 4차 회의

- 가. 일시 : 2006년 7월3일(월) 오전 10시30분 나. 장소 : 평화여성회
 다. 참석 : 정경란, 조영희, 김현희
 라. 논의 : 여성가족부 프로젝트 논의

2) 움직이는 여성통일학교

(1) 강사진과 간담회

가. 1차 간담회

- 가) 일시 : 9월7일(목) 낮 12시 나) 장소 : 달개비
 다) 참석 : 김정수, 정경란, 김현희, 이명자, 신효숙
 라) 논의 : 움직이는 여성통일학교 수강대상자와 강의내용 전개에 관련한 내용 등
- 나. 2차 간담회

- 가) 일시 : 11월9일(목) 낮12시 나) 장소 : 달개비
 다) 참석 : 김정수, 정경란, 김현희, 이명자, 신효숙
 라) 논의 : 움직이는 여성통일학교 평가 등

(2) 움직이는 여성통일학교 일정

가. 일시와 장소

지역 / 단체	일시	장소
서울	10/11(수), 10/17(화) 오후 6:00~9:00	서울 강릉동 분도빌딩 5층
대전여민회	9/13, 20, 27일 매주(수) 오후 7:00~9:00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경기여성단체연합	10/18(수) 오전 10:00 ~ 오후 5:00	경기 만안면 시우봉 강당

나. 프로그램

- 1강 : 북한여성의 노동과 여가 : 박현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 2강 : 영화보기를 통한 북한여성의 이해 : 이명자 (동국대 연극영화과 강사)
- 3강 : 북한교육과 여성 : 신효숙 (북한대학원 대학교 겸임교수)
- 4강 : 통일을 일구어 가는 여성들 : 정경란 (615남측위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다. 평가

가) 성과

- (가) 경부나 단체에서 진행되는 통일교육은 북한의 정치, 생활문화, 경제 등으로 한정되어 왔고 여성의 시각에서 집중적으로 여성의 삶을 심도 있게 다루는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다. 이에 평화여성회는 작년의 이어 움직이는 여성통일학교를 통해 심층적으로 북한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배치하였고 내용으로는 교육, 가정, 직장,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나) 여성통일학교를 서울뿐 아니라 지역(대전, 경기)의 여성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 (다) 서울과 지역간의 운동의 거리를 좁히고 함께 여성통일운동의 과제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라) 참석 연인원은 대전여인회의 경우 약 150여명, 경기여성단체연합 30여명, 평화여성회 약 40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하여 북측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와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마) 지역의 수강자 중에 약 15명 내외의 여성들이 이후 진행된 여성평화통일기행에 함께 참여하여서 향후 서울과 지역 간의 통일운동에 있어서 연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바) 대전지역의 경우 여성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평화와 통일관련 연저오가 별로 없는 관계로 교육과 내용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이에 대하여 문제인식을 가진 대전여인회가 여성평화, 통일운동을 전담할 산하단체를 계획하고 평화여성회와의 협력 속에 진행된 여성통일학교 및 여성평화통일기행을 진행하였다. 지역주민, 회원, 활동가들의 호응이 좋아 이를 계기로 평화여성회와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갖기로 하였다.
- (사) 여성들이 남과 북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측여성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북측여성의 삶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사와 음악, 교육, 노동등을 공부함으로써 향후 남북여성교류시 서로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와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역황확대에 기여하였다.

나) 과제

(가) 대견여민회의 경우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고 평소 조직활동이 안정되어 있어서 참가자 인원도 많아 행사에 활기를 주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지역의 참여는 북핵실험 등 민감한 상황이 발생하여 예상외로 저조하였다. 직년에 이어 올해 진행된 이 사업을 매년 경례 화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 여성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진행할 경우 참가동기부여를 위하여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

3) 여성평화통일기행 “금강산”

(1) 일시 : 11월15일(수)~17일(금) (2) 장소 : 금강산

(3) 프로그램

날짜	시간	프로그램명	장소
11월15일 (수)	08:00	모임	서울역 앞
	08:30 ~ 14:30	평화의 인사, 참가자 소개 여성평화통일교육 : 남북여성교류, DMZ, 남북화해협력의 역사 등	차왕(이동중)
	14:30 ~ 16:00	고성도착/출입국 심사	
	16:00 ~ 16:30	숙소 CHECK IN	외금강호텔
	16:30 ~ 18:30	금강산 특구 투어/온천욕/자유시간	
	18:30 ~ 19:30	평화의 만찬	
	20:00 ~ 21:00	조별모임 : 여성들이 바라는 평화와 통일의 미래만들기 통일과포포نس 준비	
11월16일 (목)	07:00	아침식사	
	08:20 ~ 17:00	구룡연 코스	
	17:00 ~ 18:00	평화가 있는 쉼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2:00	금강산에서 만드는 여성통일평화의 밤	외금강호텔 강당
11월17일 (금)	07:00	아침식사	
	08:00 ~ 11:30	해금강과 삼일포	
	11:30 ~ 12:30	점심식사	
	13:30 ~	온정자 출발	
	14:00 ~	북측 출입사무소 도착/수속	
	15:00 ~	남측 출입사무소 도착/수속	
	15:30 ~	서울로	

(4) 평가

가. 성과

- 가) 금강산 여성평화통일기행을 준비할 무렵 북한 핵 실험으로 금강산 방문자의 인원이 급감하여 화해, 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위기를 맞고 있었다. 본회는 정세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최소한의 교류의 끈의 역할을 하는 금강산 방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여러 여성들이 참여하여 남북화해, 협력,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 나) 약 40여명의 다양한 연령대, 직업 (주부, 국악인, 기자, 평화통일활동가, 직장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참여하여 통일운동은 몇몇 사람들만의 관심과 준비가 아닌 여럿이서 함께 다양한 빛깔로 통일로 만들어 가는 것임을 몸으로 체화하고 돌아오는 기획이 되었다.
- 다) 금강산에 가는 도중 차안에서 남북경협, 군사적 신뢰조치로서의 금강산 관광이 갖는 의미, 북측사회에 대한 이해, DMZ에 대한 내용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는 여성평화통일기행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금강산 방문에 대한 의의와 분단 및 통일과정으로서의 여성의 관심과 참여 등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본단의 현장을 접하며 북측 땅을 직접 밟아보며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키웠다.
- 마) 대전여민회의 활동가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평화여성회와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였다.

나. 과제

- 가) 원래 개성으로 여성평화통일기행으로 계획하였으나 북 미사일 실험 발사, 북 핵 실험 이후 정세의 어려움으로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얻어 금강산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다. 하지만 금강산 여성평화통일기행의 사업준비기간이 촉박함으로 인해 당장 참가자를 모집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통일학교 참가자와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일반인들과 회원가족들의 참여가 있었으며 대전여민회의의 경우 애초 여성평화통일기행 참가자를 모집할 때 여성통일학교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대전여민회의와 평화여성회의의 참여자 대상의 형평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 나) 촉박한 준비일정 등으로 인해 대전여민회의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사전에 업무분담과 내용 등을 공유하고 계획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 다) 현대아산에서 진행하는 방북교육은 상당히 약식적이다. 이에 평화여성회가 참가자들이 금강산 방문하면서 생기는 여러 궁금증들을 사전에 예상하고 준

비하여 교육내용에 담겨 보다 폭력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고
해야 한다.

4) 연대사업

(1) 종속적 한미동맹 반대 여성단체 기자회견

가. 일시 : 2006년 4월26일(수) 오전10시

나. 장소 : 국방부 앞

다. 참가단체 : 경남여성회, 고양여성회, 공무원노조여성위원회, 광주여성회, 남해
여성회, 목포여성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반미여성
회, 부천여성회, 사천여성회,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양
나눔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환경연대, 용인여성회, 의정부참여여성회, 이천여성
회, 인천여성회, 자주여성회,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
국여성노동회총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전주여성회, 전주교여성공동
체, 평택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남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
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
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합안여성회

라. 프로그램

사회 : 정경란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인사말 : 윤금순 통일연대 여성위원장

○ 각지발언

-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 임미숙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 최은민 민주노총 부위원장

○ 향후 활동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발표-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 국방부에 여성건의서 전달

마. 평가

가) 성과

(가) 전략적 유연성 합의, 주한미군재배치로 인한 평택미군기지 이전 등 한미
동맹이 종속적 흐름으로 치달게 되자 평화여성회가 시의 적절하게 여성
들을 묶어내어 주민들의 농사를 막기 위해 4월27일부터 군부대 동원으로
'힘'으로 강제로지 수용을 밀어 붙이려는 국방부의 행태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였다.

(나) 남북화해협력 시대에 쟁기를 무기로 만드는 것은 세상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며 우리의 안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 일에 우리 여성들이 평등농민들이 평화롭게 거주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평화의 힘을 모아가기로 결의하였고 평택미군기지이전 반대의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국방부에 전달하였다.

나) 과제

(가) 사안발생시 여성단체에 제안하고 행동하기에 앞서서 사안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각 여성단체와의 공유가 필요하다. 미처 내용의 심각성이 공유가 되지 않은 여성단체들의 경우 참가를 독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 평택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

가. 일시 : 2006년 5월11일(목) 오전10시 나. 장소 : 정부종합청사 앞

다. 참가단체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공무원노조여성위원회, 기독교민회, 남해여성회, 대구정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반미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천여성회, 사천여성회, 새시상을여는원주교여성공동체, 새운동, 성대미문제를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용인여성회,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의정부참여여성회, 인천여성회, 인천여성회,지주여성회, 전국조여성위원회, 전국여성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회, 제주평화인권여성연대, 주한미군범죄피해지원본부, 진주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하남여성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참여하는주부모임, 할안여성회

라. 프로그램

사회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참가단체 소개
- 경과 보고 : 임미숙 지주여성연대 상임대표
- 피해자 사례보고 : 김현희 평화여성회 사무국장
- 각계 발언
 - 신하영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책지역팀장
 -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 성명서 낭독 :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질의응답
- 퍼포먼스 : 여성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문구와 함께 여성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글자를 리본에 담아 장미꽃에 묶어서 정부종합청사 앞에 걸었다.

마. 언론보도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YTN, CNBNEWS, 일다, 한겨레, KBS

바. 평가

가) 성과

- (가) 평택 행정대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인권 침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었다.
- (나) 장미꽃, 리본 등을 이용하여 평화문화 감성을 살려서 여성들의 저항을 드러내었다.

나) 과제

- (가) 피해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았고 아울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한 대처방식이 소극적이어서 적극적 대응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3)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제

가. 기획회의

- 가) 일시 : 5/16(화) 11:00 나) 장소 : 평화여성회
- 다) 참가단체 : 평화여성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여성환경연대, 평통사 여성위원회,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나.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제

- 가) 일시 : 2006년 5월24일(수) 오전11시 나) 장소 : 평택 평화공원
- 다) 프로그램

사회 : 여성환경연대 이미영 사무처장

- 개회사 : 평화여성회 김숙임 상임대표
- 평화시 : 기독교민회
- 국제연대사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이문숙 총무 낭독
AFSC, IFOR, Peace Boat, 선일본여성회에서 온 메시지
- 주민발언 1명
- 평택지킴이 노래 : 평화가 무엇이나 등
- 평화발언
-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이현주 평택여성회 회장
- 이경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 평화노래: 어느 누가 이을 건가 (개사곡)
- 선언문 독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여성위원회
- 평화노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개사곡)
- 평화퍼포먼스 : 평화의 천에 피켓과 평화리본을 단다.
- 여성평화명상순례 : 평화의 천을 들고 침묵하며 주위를 돈다.

라) 평가

(가) 성과

- ① 수십여명의 여성단체의 활동가와 회원들이 참여하여 평택주민의 아픔에 함께 연대하기 여성들의 평화의지를 함께 보여주었다.
- ② 평화명상, 평화퍼포먼스, 평화 걸음 등으로 무너진 대추초등학교와 철조망이 처진 황색울을 바라보며 여성들이 함께 평화를 기원하였고 비폭력, 평화문화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강제행정대집행을 반대하였다.
- ③ 5.24 평화와 근축을 위한 세계여성의날에 국제 여성단체들이 보내온 정책평화를 위한 연대메세지를 국내여성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아울러, 생명과 평화에 반하는 평택미군기지 이전의 문제의식을 여러 나라의 여성활동가들과 공유하였다.

(나) 과제

- ① 대추리 방문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행사'라는 코드를 가지고 접근이 가능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은 다행이나 정부가 제한하는 구호내용과 피켓사용, 확성기 이용등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유연한 대응방식이 필요하다.

(4) 여성단체 워크샵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정세 읽기와 여성의 대응>

가. 준비기획회의

- 가) 일시 : 7월21일(금) 19:00 나) 장소 : 한국여성교회연합회
 다) 참석 : 평화여성회, 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나. 여성단체 워크샵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정세 읽기와 여성의 대응>

- 가) 일시: 7월27일(목) 오후2사-5시 나) 장소: 성가수녀원
 다) 주최: 대전여민회, 여성환경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라) 내용

- 사회: 이문숙(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 발표:

- 북한과 한국정부의 대응과 향후 전망 : 김근식(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의 대응 및 향후 전망 : 박건영(카톨릭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여성들의 제안 :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전체토론
- 여성성명서 발표

2) 평가

(가) 성과

- ① 7개의 여성단체들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한치 앞도 내다보기 쉽지 않은 정세의 어려움 속에서 여성들이 정세를 이해하고 향후 여성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색하였다.
 - ②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 미사일 실험발사에 대한 유감 표명 및 한국 정부에게는 제재와 압박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대북인도적 지원체계 등의 요구안을 담은 성명서를 시의 적절한 시기에 NGO에서는 가장 민첩하게 발표하였다.
 - ③ 언론 보도 : 중앙일보 시민사회 연구소, 통일뉴스, 우먼타임즈 등
- (5)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규탄 여성단체 기자회견

가. 기획회의

- 가) 일시 : 8/4(금) 16:00
- 나) 장소 : 평화여성회
- 다) 참석단체 :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나.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규탄 여성단체 기자회견

- 가) 일시 : 2006년 8월10일(목) 오전11시30분
- 나) 장소 : 이스라엘대사관 앞

다) 프로그램

- 사회 : 이보은 여성환경연대 기획홍보실장
 - 기자회견과 참석자 소개 : 이보은 여성환경연대 기획홍보실장
 - 경과보고 :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여성평화발언
 - 김미정 민주노총여성위원회 여성국장
 - 퀴커 박사 (Dr. Gwyn Kirk)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푸에르토리코·하와이·미국 여성네트워크 멤버
 - 성명서 낭독
 - 이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피로폰트 : 여성들이 레바논의 여성의 아픔과 팔레스타인의 여성의 아

품에 연대하며 평화를 희망하는 퍼포먼스를 진행 (황순영 회원 참여)

- 이스라엘 대사관에 여성일장 전달

라) 평가

(가) 성과

- ① 24개 여성단체, 40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하여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규탄하고 하루 빨리 이스라엘군이 철군할 것을 요구하였다.
- ② 레바논 여성의 아픔에 연대하는 퍼포먼스를 적극 활용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의 부당성 및 레바논 평화를 희망하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열망을 담았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호소력이 높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③ 언론보도 : 연합뉴스, 미디어오늘, 업코리아, 오마이뉴스, 시민의신문, 여성의신문 등

(6) 전쟁반대와 이라크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기자회견

가. 기획회의

가) 일시 : 11/15(수) 11:00

나) 장소 : 평화여성회

다) 참석단체 :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통일연대여성회

나. 전쟁반대와 이라크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기자회견

가) 일시 : 11월24일(금) 오전11시

나) 장소 : 미 대사관 옆 한국통신사 앞

다. 참가여성단체 : 대전여민회, 여성환경연대, 통일연대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라. 프로그램

- 사회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발언 :

- 이미혜 반미여성회 회장
- 외국여성 1인
- 연대메시지 (미디어 벤자민 / 핑크로드 창립자)
- 김경수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 퍼포먼스 : 이라크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이라크의 평화를 희망하는 여성들의 평화퍼포먼스

마. 평가

(가) 성과

- ① 이라크에서 아들을 잃은 미국의 반전여성평화활동가 신디쉬현의 방한에 맞추어서 여성들이 한국의 이라크파병연장에 반대하고 이라크평화를 위한 여

성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모아내었다.

(나) 과제

- ① 애초 신디쉬한과 핑크코드와 기자회견을 함께 하기로 하였으나 이들의 일정이 변경이 되어 함께 하지 못해서 적극적인 언론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7) 6·15남측위 여성본부

가. 참여 : 공동대표 김숙인, 공동집행위원장 정경란, 집행위원 김현희

나. 세부내용 :

가) 활동일지

1/3(화) 낮12시	6·15남측위 여성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평화여성회)
1/4(수) 오후 4시	6·15남측위 여성본부 대표단, 집행위원장 회의 (이주여성노동센터 교육장)
1/18(수) 오후5시	6·15남측위 여성본부 대표단, 집행위원장 회의 (평화여성회)
1/26(목) 오후4시	6·15남측위 여성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평화여성회)
2/10(금) 오후1시	6·15남측위 여성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평화여성회)
2/11(토) 오전9시30	6·15남측위 여성본부 대표단, 집행위원장 회의 (평화여성회)
2/15(수) 오후4시30	6·15남측위 여성본부 대표단, 집행위원장 임시회의 (윤기호 스타벅스안)
2/16(목) 오후2시30	6·15남측위 여성본부 대표단, 집행위원장 회의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4층 회담터)
2/16(목) 오후3시	6·15남측위 여성본부 총회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4층 회담터)
2/21(화) 오후1시30	6·15남측위 여성본부 대표단, 집행위원장 회의 (평화여성회)
2/27(일) 오후4시	6·15남측위 여성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평화여성회)
2/28(화) 오전11시	6·15남측위 여성본부 대표단, 집행위원장 회의 (평화여성회)
3/2(목) 오전10시30	6·15남측위 여성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평화여성회)
3/6(월) 오전8시30	6·15남측위 여성본부 대표단, 집행위원장 회의 (느티나무카페)
3/6(월) 오후3시	6·15남측위 집행위원회 회의 (평화여성회)
3/8(수) 오전10시	6·15남측위 집행위원회 회의 (평화여성회)
3/10(금) 오전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북남)여성대표자회의 및 공동선행, 금강산 기금투명성 제고 관련 협조사항 설명(사회문화교류분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팀
5/8(월) 오후2시	6·15남측위 여성본부 대표단, 집행위원장 회의 (평화여성회)
6/1(목) 오후2시	6·15남측위 여성본부 대표단, 집행위원장 회의 (평화여성회)
6/5(월) 오후3시	6·15남측위 여성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평화여성회)
6/7(수) 오후2시	6·15남측위 여성본부 운영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6/14(수)~6/17일(토)	6·15 민족통일대축전 (광주)
6/15(목) 오후3시	6·15 민족통일대축전 남북여성연대모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7/21(금) 오후5시	6·15 남측위 여성본부 대표단, 집행위원장 회의 (평화여성회)

(8) 남북여성교류

가.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대표자회의

가) 대회명 :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북남)여성대표자회의

나) 일정 : 2006년 3월10일(금) 다) 장소 : 금강산

라) 규모 : 남측 30명, 북측 30명

마) 주관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바)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장소	
3월9일 (목요일)	08시 세종문화회관 앞 모임	세종문화회관 앞	
	08시 20분 출발성명		
	08시 40분 출발		
	12시 점심	돌바우 식당	
	14시 고성도착(김길기)/출입국 심사		
	17시 숙소도착	금강산 호텔	
	18시 ~ 19시	저녁식사	
	19시 ~ 21시 온천욕 또는 쇼핑	금강산 온천	
3월10일 (금요일)	21시 ~ 22시 금강산에서 맞는 여성통일의 밤	금강산호텔 강당	
	07시 아침식사	금강산호텔 식당	
	10시 ~ 12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여성대표자 회의'		
	: 사회 : 한국열 공동대표		
	-대표단 소개		
	-대표연설		
	: 남측/정현백 상임대표, 북측/박순희 위원장	금강산호텔 (국제회의장)	
	'올해 통일운동의 방향과 여성들의 과제'		
	-도론 각 1인		
: 남측/김숙임 공동대표, 북측/김인옥 부위원장			
-남북여성 공동호소문 발표			
: 남측/조순태 공동대표, 북측/이동희 여성분과 위원			
12시 ~ 14시	점심 (동식식사)	금강산호텔	
14시 ~ 18시	공동탐관 (삼일포, 해금강 등)		
18시 ~ 20시	남북 공동만찬	금강산호텔	
3월11일 (토요일)	07시 ~	아침식사	금강산호텔
	08시30분 ~12시	산행	만물상 (또는 구룡연)

12시 ~ 13시	점심식사	옥류관
13시 ~ 14시	복측 CIQ 도착/수속	
14시30분	남측 CIQ 도착/수속	
15시	서울로	
18시	저녁식사	· 마당

나. 6.15공동선언 발표 6월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남북여성연대모임

가) 일시 : 2006년6월15일(목) 오후 3:00~4:30 나)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다)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분부

라) 주관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전남지부, 광주전남여성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여성회,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마) 프로그램

6월 15일(목) 615 남북(북남) 해외 여성연대 상봉모임 프로그램	
[1부] 대회장 입장 및 개막식 [한국편 : 615남측위 여성분부 공동대표]	
개회선언	개회 및 상봉모임의 의미 등
대표단 소개	조순태 (615남측위 여성분부 공동대표)
연설 1	남측 : 정현벽 (615남측위 여성분부 상임대표) 북측 : 리동희(615북측위 여성분과위원회 위원)
연설 2	남측 : 김숙임 (615남측위 여성분부공동대표) 북측 : 김경애 (615북측위 여성분과위원회 위원)
공동호소문 낭독	남측 : 윤금순 (615남측위 여성분부공동대표) 북측 : 좌철숙 (615북측위 여성분과위원회 위원)
[2부] 환영공연 [사회 : 라정숙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표]	
환영사	앨미봉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노래 1	내나라 내겨레, 고향의 봄 :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노래2	아름다운 세상, 가장 늦은 봄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영상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 <6.15민족통일대축전 광주, 전남여성행사위원회>
홍피리 연주	페루민요, 한국민요 : <정인봉(홍피리 연구가)>
춤	춤 (민족춤) : 고은시인의 '대동강 앞에서'시를 형상화함
노래	서울평양만나길, 통일열차 : <정보리사랑(전북여성농민노래단)>

○ 주변데코레이션 : 통일필드 제작

다. 평가

가) 성과

(가) 평화여성회는 615남측준비위원회 여성본부의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8.15 민족통일대축전(광주)에서 열린 남북여성상봉 행사와 3월에 분단이후 최초로 열린 '남북여성대표자회의' 진행 및 남북공동호소문 문건합의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나) 과제

(가) 남북여성교류(남북여성통일행사 등)를 확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세에 변화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6. 총평

1) 여성의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참여와 의제 개발

- (1)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미사이에 금융제재를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되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대북 제재 강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였다.
- (2)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알리기 위해 북한 미사일시험발사 대응을 위하여 여성단체들과 워크숍 개최 및 국제 사회에 소개, 북한 핵실험 관련 성명서 발표 등을 하였다.
- (3) 북한 핵 실험이후 평화운동 진영내부에 핵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여성평화운동의 입장정립이 중요하다.

2) 남북여성의 화해 및 협력

- (1) 6.15 여성본부에 참여하여 남북여성대표자회의, 6.15민족통일행사에 남북여성부 문 모인 조직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북한 수재지원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2) 송리이는 여성통일학교를 대전, 서울, 경기지역에서 개최하고 금강산평화통일여성기행을 조직하여 남측 여성 사이에 북한여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심도있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갈등해결적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대응

- (1)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고 평택기지 확대를 반대하기 위해 성명서 발표, 여성인권 침해 규탄 집회 개최, 5.24 세계여성 운동의 날 행사 평택 개최 등을 통해 주한 미군문제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응하였다.

- (2) 여성단체들과 공동행동을 조직함으로써 여성단체 사이에서 군사주의 반대, 평화를 위한 여성단체의 연대를 강화하였다.
 - (3)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라크 평화를 위한 한미공동행동 조직 및 성명서 작성 등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동정책을 비판하고 중동여성들과 연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 4)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동북아 시민사회와 연대
- (1)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한국여성과 시민사회의 연대 지속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여성단체, 독일 여성과 생명, 미국의 평화활동가에게 북한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에 대한 평화여성회 입장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동국제연대 활동을 하였다.
 - (2) 무력감동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동북아 지역네트워크와 연대
 - (3) 3월 GPPAC동북아지역협의회 금강산에서 개최를 지원하며, 11월 3일 한일공동행동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해 동북아 차원에 연대를 추구했다.
- 5) 센터 조직과 관련하여
- (1) 2006년 한반도 평화 관련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슈에 비해 센터의 인적·재정적 구조는 너무 취약하다. 인적·재정적 구조에 비해 많은 활동을 한 점은 평가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평화운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 (2) 내용과 관련하여 센터의 역량에 비해 많은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평화여성회의 전망, 일의 효율성, 조직적 역량을 고려해 주제를 선택해서 집중해야 한다.
 - (3) 센터 실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한 조직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 (4) 현재의 인적·재정적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센터 구조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2-2 갈등해결센터

(소장 : 박수선)

I. 사업 목표

- 갈등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갈등해결센터의 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회원 확보에 힘쓴다.
- 사회갈등 예방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 기반을 넓힌다.
- 갈등해결의 적용 영역을 넓힐 수 있는, 특히 통일과정에서 갈등해결의 의미와 실천 영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질적 내용적 확대에 힘쓴다.

II. 조직

1. 운영위원회/갈등해결센터 사업 전반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의사결정구조
당연직 운영위원(센터 장 박수선, 팀장 여혜숙(청소년교육팀), 박재근(사회갈등분석팀),
본부 사무국장 김현희)
일반 운영위원(김학묵, 박인혜, 이재영, 여혜숙, 조영희, 최정현진)
2. 연구원모임/강사드레이닝, 사회갈등조정연구 등 논의 및 사업 진행
김학묵, 이재영, 조영희
3. 청소년교육팀/청소년 교육 관련 사업 논의 및 진행
여혜숙(팀장), 김선혜, 김영진, 박인혜, 박홍나미, 여혜숙, 이덕경, 이현주, 조영희, 박정옥
4. 사회갈등분석팀/사회갈등 분석 및 갈등해결 관련 학습 및 사업
김선혜, 김영진, 김재근, 박재근, 박홍나미, 이덕경, 이항진, 이현주, 조영희, 박수선
5. 릴레이/센터 회원 모두 참여하는 소통의 장, 회원 스스로 진행하는 교육의 장
매월 1회(셋째주 화요일) 센터 전체 회원 참여 모임
6. 공부모임/센터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 공부모임
월 둘째, 넷째 수요일

III. 회의 및 모임

1. 릴레이 및 회원 MT
1) 회원 MT

- (1) 일시: 8월 26(토), 27일(일)
- (2) 장소: 청정 이낙호 선생님 덕
- (3) 참석: 김선혜, 박경옥, 박수현, 박인혜, 이덕경, 이항진, 조영희, 홍석영

2) 1차 월례회

- (1) 일시: 7월 18일(화)
- (2) 장소: 평화여성회 교육장
- (3) 내용: 교육중 활용할 수 있는 아이스브레이크(진행: 여혜숙)

3) 회원 송년회

- (1) 일시: 12월 27일(수) 오후 7시
- (2) 장소: 평화여성회 교육장
- (3) 참석: 김영진 등 20여명

2. 운영위원회

- 1) 1차: 1월 5일(목) 오후 4시, 06년 사업계획 검토 및 세부계획안 마련
- 2) 2차: 2월 16일(목) 오후 6시, 제4기 강사트레이닝 세부 내용 준비 및 역할분담
- 3) 3차: 5월 8일(월) 오후 6시 30분, 청소년위원회 캠프를 평가 및 계획 논의
- 4) 4차: 6월 12일(월) 오후 7시, 세대공간 캠프 평가 및 대학생캠프 준비, 행사부 프로젝트 사업계획
- 5) 5차: 11월 22일(수) 오후 7시, 2006년 사업평가, 2007년 사업계획 아이디어모으기
- 6) 6차: 11월 13일(수) 오후 7시, 2007년 사업계획안 논의

3. 청소년교육팀 (팀장: 여혜숙 팀원: 김선혜, 김영진, 김지선, 박경옥, 박인혜, 박홍나미, 안향숙, 이덕경, 이현주, 조영희)

- 1) 1차 회의: 1월 10일(금) 오전 11시30분 : 평화여성회 정기총회 및 갈등해결센터 2006년 사업계획 보고 및 청소년교육팀 구체 사업계획 논의
- 2) 2차 회의: 2월 8일(수) 오후 4시 30분 : 2006년 세부 사업계획 논의 (1차 회의 내용 점검과 홍보물, 학교별 담당자 배정), 토론회 평가
- 3) 3차 회의: 2월 22일(수) 오후 5시 : 연중수업 교안검토, 2006년 세부 사업계획 논의
- 4) 4차 회의: 3월 8일(수) 오후 4시 : 진행상황보고, 평가를(강사평가, 학생진행평가)
- 5) 5차 회의: 8월 9일(수) 오후 5시 : 1학기 수업진행상황보고, 2학기 수업계획, 청소년 평화리더십 캠프 평가
- 6) 6차 회의: 11월 1일(수) 오후 7시: 1년 활동보고 및 평가
- 7) 7차 회의: 12월 6일(수) 오후 6시: 2007년 사업계획
- 8) 8차 회의: 12월 26일(화) 오후 8시: 2007년 사업계획 세부안 논의

4. 사회감동분석팀(팀장: 박재근, 팀원: 김선혜, 김영진, 김재근, 박홍나미, 이덕경, 이항진, 이현주, 조영희, 박수선)

- 1) 1차: 1월 12일(목) 오후 7시 선거공약 관련 감동 조사 내용 논의
- 2) 2차: 2월 8일(수) 오후 7시 선거공약 관련 감동 논의 및 연구과제 과제 주요내용 논의
- 3) 3차: 2월 22일(수) 오후 7시 선거공약 관련 감동 논의 및 연구과제 과제 주요내용 논의
- 4) 4차: 3월 8일(수) 오후 7시 연구과제 관련 사례/남양주구리 광역 쓰레기폐기물 관련 갈등과 경주방계갈 갈등 사례 분석
- 5) 5차: 4월 4일(화) 오후 7시 연구과제/성공적인 갈등해결의 기준 논의, 학습

5. 세대공간 및 청소년캠프 진행팀

(팀원: 여혜수, 김영진, 박인혜, 박홍나미, 이덕경, 이현주, 조영희, 박수선)

- 1) 일1차 캠프기획회의: 3월 22일(수) 오후 5시
청소년위원회 프로젝트, 세대공간캠프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방안
- 2) 2차 캠프기획회의: 4월 7일(금) 12시
세대공간캠프 프로그램 내용 기획 및 역할분담, 홍보안 완성
- 3) 3차 세대공간캠프 준비회의: 4월 26일(수) 오후 2시
세대공간캠프 프로그램 교안 논의
- 4) 1차 청소년캠프 준비회의: 6월 17일 오후 5시
- 5) 2차 청소년캠프 준비회의: 7월 12일(수) 오후 5시
- 6) 3차 청소년캠프 준비회의: 7월 19일(수) 오후 5시
- 7) 4차 청소년캠프 준비회의 및 시연: 7월 22일(토) 오전 11시-오후 6시 세대공간캠프 및 청소년캠프 기획 및 준비

6. 공부모임(구성원: 김선혜, 김영진, 박경옥, 박인혜, 박홍나미, 이덕경, 이현주, 조영희, 박수선, 이성욱, 김지연, 김혜숙)

- 1) 1차 모임: 6월 14일(수) 오후 5시 : 비폭력대화 실습, 공부방 수업시연, 공부모임계획
- 2) 2차 모임: 6월 28일(수) 오후 5시 : 비폭력대화 실습, 조정실습, 청소년캠프 역할나눔
- 3) 3차 모임: 7월 12일(수) 오후 4시 : 비폭력대화 실습, 청소년캠프 교안 점검 및 시연
- 4) 4차 모임: 8월 9일(수) 오후 8시 : 공부모임 계획, 비폭력대화 생활나눔
- 5) 5차 모임: 8월 23일(수) 오후 5시: 비폭력대화 실습, 편견 교안 모으기 및 시연
- 6) 6차 모임: 9월 13일(수) 오후 5시30분 : 비폭력대화 실습, 편견 색 교안검토및 시연
- 7) 7차 모임: 9월 27일(수) 오후 5시30분 : 비폭력대화 실습, 갈등분석 시나리오 검토 및 분석

8) 8차 모임: 11월 22일 (수) 오후 6시 : 비록덕대와 실습, 갈등분석

7. 조정, 진행 전문가 혼련 프로그램 기획위원회

(김학복, 이재영, 조영희, 여혜숙, 박수선, 조상행, 이현주)

1) 1차: 6/21 오후 7시-9시

2) 2차: 8/2 오후 6시-10시

3) 3차: 8/21 오후 5시-9시

4) 4차: 9/16 오후 5시 순천 오봉산방. 기초워크숍 최종점검, 세부안 논의

5) 5차: 9/17 오전 9시 순천 오봉산방. 교육자료 조사 검토, 심화 프로그램 기획

6) 6차: 10/15 오후 4시 30분 흥원연수원. 기초워크숍 평가, 심화프로그램 세부내용 논의

7) 7차: 11/18 오전 11시 분도교육장

8) 8차: 12/13 오후 5시 평화여성회 사무실

9) 9차: 12/29 오후 7시 평화여성회 사무실

IV. 주요 사업

1. 대상별 주요 사업

1) 공적 교육 기관에서의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

(1) 서울시 교육청 주위 학생부장 교사 대상 '갈등해결과 토대경제' 연수(30시간)

일시: 7월 24-28일

진행 참가: 이재영, 조영희, 박수선

(2) 전교조 남부초등지회 주회, "갈등해결을 통한 평화로운 교실 운영" 연수

일시: 5월 17일-26일 월수금 5회 총 15시간

진행 참가: 박수선, 여혜숙, 조영희

(3) 덕수중학교 교직원 연수

일시: 9월 6일

진행 참가: 박수선

(4) 강동구청 내 학교협의회 주관 학교별 교직원 연수

일시: 11월 16일 상일초등학교, 11월 17일 신명중학교, 11월 22일 천호중학교

진행 참가: 박수선, 여혜숙

(5) 기타 교사대상 강좌

일시: 11월 22일 정동초등학교 다문화이해교육 교사 대상 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

안내(이재영)

2) 지역 NGO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 조정 훈련

지역갈등, 사회갈등의 중심이 된 지역 중심으로 NGO 활동가 및 여분주도층 대상으로 갈등의 평화적 해결, 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1) 여주 민속예술인총연합회 "여성리더십 향상을 위한 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

일시	회차	주 제	세 부 주 진 내 용	강사
9월21일	1강	나에게 갈등이란?	갈등해결 이해1 -나 들여다보기(갈등대응유형) -갈등의 원인 이해하기	박수선
9월25일	2강	갈등과 더불어 사는 삶	갈등해결 이해 2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갈등해결의 다양한 방법	박수선
9월28일	3강	갈등을 만드는, 해결하는 듣기	듣기의 중요성, 마음으로 듣는 방법	여혜숙
10월9일	4강	친밀함을 만드는 말하기 1	평가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기, 관찰과 듣기 구분 연습, 느낌을 말하기, 느낌언어와 생각 언어 차이 이해하기	여혜숙
10월12일	5강	친밀함을 만드는 말하기 2	느낌의 원인 욕구 찾기, 욕구를 표현하기, 부탁하기(대화에 초청하는 부탁, 강요와 부탁의 차이	여혜숙
10월16일	6강	분노조절과 강한 감정에 대응하는 법	강한 감정을 듣는 방법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편견다루기	조영희
10월19일	7강	갈등해결방법 배우기 1	조직내 의사결정 및 회의 진행방법	조영희
10월23일	8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2	조정이해 1: 조정(mediation)의 원칙과 조정자의 역할	조영희
10월26일	9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3	조정이해 2: 조정자의 기술, 조정 과정	박수선
10월30일	10강	갈등해결의 적용	조정 실습 및 적용 모색	박수선

(2) 여주 민속예술인총연합회 "갈등해결을 위한 놀이 문화 강좌"

가. 일시 : 2006년도 6/16 - 7/14일 매주(금) 오후 5:00 -7:00 (1주에 2회차 2시간씩)

나. 대상 : 전주 인예총 회원 및 전주지역 교사 및 주부 12명

다. 진행: 박인혜

라. 내용

시간	주 제	내 용
6월16일	갈등이란무엇인가	마음일기 및 프로그램 소개 갈등은 왜 생기나?
6월23일	갈등체험하기	갈등 체험 놀이 호흡과 공존의 춤 놀이 - 상대방의 욕구와 마음을 읽는 춤 놀이
6월30일	편견극복과 다양성 이해	편견극복 - 변신파티 / 마을이장 찾기 갈등의 크기 평화의 크기- 대적 불 놀이/ 변덕쟁이 놀이
7월7일	의사소통	갈등해결을 찾아서! - 의사소통 갈등을 일으키는 대사, 평화를 만드는 대사
7월14일	공존과 평화문화 이해	갈등해결의 다양한 모습 -육망의 무지개, 평화의 무지개 발표회- 평화를 주제로 한 미니 공연

3)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평화 교육

(1) 학교 갈등해결교육(CA, 방과후교실, 특별반) : 총 6개 학교

- 초등학교 : 연지초 CA, 연지초 방과후교실

- 중학교 : 방화중 CA, 수송중, 성재중

- 고등학교 : 금육여고 CA

	학교명	진행	일정	일자
1	연지초등학교 (CA)	이혜숙 이덕경	격주 토요일 매회 40분	4/1, 4/15, 4/29, 5/20, 6/3, 6/17, 7/1, 7/15, 9/2, 9/16, 9/30, 10/21, 11/4, 11/18, 12/2, 12/16 (총16회)
2	연지초등학교 (방과후교실)	박인혜 김영진 이혜숙	주1회, 수 매회1시간	6/7, 6/14, 6/21, 6/28, 7/5, 7/12, 7/19, 7/26 (총8회)
3	방화중학교	이현주 박홍나미	월1회, 토 매회3시간	3/18, 4/15, 6/3, 7/1, 9/16, 9/30, 10/21, 12/2 (총8회)
4	금육여자고등학교	조영희 김선혜	월1회, 토 매회3시간	4/15, 4/29, 5/20, 6/17, 7/15, 9/2, 9/30 (총7회)
5	수송중	박인혜 김영진	월1회, 월 매회1시간	4/3, 5/8, 5/20, 6/5, 7/1, 12/16 (총6회)
6	성재중	이혜숙 박경옥	주1회, 화 매회50분	9/12, 9/19, 10/17, 10/24, 10/31, 11/7, 11/14, 11/21, 11/28, 12/5 (총10회)

가. 수업내용: 2개 학교만 제시, 나머지 생략

가) 연지초등학교 CA

<1학기>

회차	제목	목표	내용
1	마음열기와 수 업소개 규칙정하기	○첫 시간의 낯설은 분위기에서 참가자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 ○자신의 강점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여 자기 존중감을 높인다. ○수업에 대한 규칙을 스스로 정하기	○이름표만들기 ○나는 대단히 ~한 ~입니다. ○규칙정하기
2	갈등개념	○갈등이미지 직관화와 긍정적 이미지 갖기	○공주고받으며 소개하기 ○좋은그림, 나쁜그림
3	갈등의 종류와 원인	○갈등은 우리 주변에 늘 있고, 그 종류는 다양함을 알게 한다. ○갈등에는 원인이 있음을 알게 한다.	○갈등그림그리기
4	폭력이해와 어 떻게 갈등에 대 응할까?	○폭력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를 발견하고 폭력의 피해를 알게 한다. ○갈등해결도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알게 한다.	○폭력일까? 아닐까? ○이럴때 나는
5	갈등해결방법	○협력해서 서로 만족하는 해결방법을 평화적으로 찾을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손등을 닦이와 ○입장과 실의
6	권건의 극복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게 한다.	○차이발견 빙고게임 ○스티커붙이기
7	의사소통1	○의사소통권터를 이해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잘듣는 태도를 익힌다.	○그림보고 전달하기 ○등대고 말하기 ○표정전하기
8	평화로운 실천 방법 찾기	○창의적으로 실천방법을 생각해 보게 한다. ○새로운 의사결정방법을 익히게 한다.	○브레인스토밍(방학동안에 실천할 수 있는 갈등 해결방법)

<2학기>

회차	제 목	목 표	내 용
1	중재란 무엇인가?	○한 학기 수업 시작에 앞서 친구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한다.	○실타래 던지기 ○중재경험 나누기

		○중재에 대해 이해하게 한다.	
2	중재실습I	○역할극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보게 한다.	○시나리오 가지고 역할극 하기
3	다양한 감정이해하기	○다양한 느낌을 알게 한다.	○내 감정 그래프 그리기 ○표정따대로 표현하기
4	욕구 알아차리기	○모든 사람에게 어떤 욕구가 있는지 알아 본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당연히 욕구가 있음을 알게 한다.	○나는 뭘 원하는지? ○친구마음 이해하기
5	분노다루기	○분노를 잘 표현하게 한다. ○분노의 원인을 알고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투쟁은 언제 열리나 ○조절방법 찾기
6	문제가 뭘까?	○갈등상황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게 한다.	○상황치보고 문제 찾기
7	해결방법선택하기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은다. ○다양한 방안 중 가장 적절한 것을 평화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익힌다.	○브레인스토밍으로 해결방법선택
8	조정실습II	○역할극을 통해 직접 중재를 경험하며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게 한다.	○시나리오 가지고 역할극 하기
9	조정리와 결과물 만들기	○배운 개념을 되짚어 본다. ○상징물을 만들면서 의미를 되새긴다.	○납땀카드 맞추기 ○상징물 만들기

나) 성제중학교

구 분		내 용
1회	마음열기	서로 소개하고, 갈등 개념을 익히며, 갈등해결의 의지를 높인다. ○ 강의 소개 ○ 마음 열기 / 서로 이해하기 ○ 기대 나누기 ○ 함께 만드는 약속
2회	갈등예방과 해결의 기초	○ 갈등 그림그리기: 어떤 갈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갈등을 긍정적으로 보게 한다.
3회	폭력 이해	○ 폭력일까, 아닐까 : 폭력 감수성 높이기 ○ 우리가 극복해야 될 폭력 생각하기

4회	분노조절	<p>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알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열기: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 분노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노의 그래프' - '두정이 언제 멀리나' -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시간을 버는 방법 생각하기'
5회	분노 표현하기	<p>분노의 원인을 찾아서 본인이 느끼고, 잘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열기: '나는 대단히 - 한 사람입니다' ○ 분노표현하기: 분노의 원인을 찾고 잘 표현하는 방법 익히기
6회	의사소통 1	<p>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해결의 방법이 되는 의사소통방법을 익히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이란? ○ 의사소통의 필터 (것속말 전달하기) ○ 그래프 관찰하기 (그림을 표현하기)
7회	의사소통 2	<p>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해결의 방법이 되는 의사소통방법을 익히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 속 가시내기 ○ 페리프레이징 (판심사 표현 기법) ○ 서로의 요구 드러내고 파악하기 <p>-표면적, 현상적 요구와 실질적 요구의 구별과 실익에 초점 맞추기 -질문 '왜(Why)?'의 중요성과 적절한 질문법 이해</p>
8회	상생적 갈등해결	<p>문제해결을 할 때 나와 상대의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하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도 좋고 너도 좋은 방법 선택하기 <p>-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기 - 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갈등해결방법 연습</p>
9회	의사결정 과정 배우기	<p>모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루어 내는 민주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인스토밍 방식에 대한 이해와 실습
10회	마음모으기	<p>배운 것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과 실천을 나눈다</p>

(2) 공부방 감동해결과 평화교육: 총 4곳 진행

	공부방명	진행	일정	일자
1	새봄공부방 (고학년)	여혜숙	주1회, 금 대회 1시간	3/31, 4/7, 4/14, 4/21, 4/28, 5/19, 5/26, 6/2 (총8회)
2	간석공부방 (저학년)	김영진	주1회, 대회1시간	6/15, 6/22, 6/29, 7/6, 7/13, 7/20, 7/27, 8/3 (총8회)
3	새벽공부방 (2,3,4학년)	여혜숙 이덕경 김영진	주1회, 월 대회1시간	9/4, 9/11, 9/18, 9/25, 10/9, 10/16, 10/23, 10/30 (총8회)
4	새봄공부방 (저학년)	여혜숙 김영진	주1회, 수 대회1시간	9/6, 9/13, 9/20, 10/18, 10/25, 11/1, 11/15, 11/22 (총8회)

수업내용 : 1곳만 예시

회차	주 제	목표 및 내용	준비물
1	나의 보물 바 구니 만들기	○인사:서로 인사하며 친밀감을 높인다 ○나의 보물 바구니 만들기:자신을 자신있게 표 현하게 한다. ○규칙정하기:수업을 진행하는데 서로 지킬 약 속을 모두 참여하여 스스로 정하게 한다.	가위, 풀, 이면 지, 크레파스, 색 연필, 싸인펜, 색 지나 도화지(사 람수만함)
2	평화이해하기	○공주고 받으면서 이름소개하기 ○평화마인드맵 : 평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눈다. 자신의 생각을 확장해 보게 한다. ○평화의 꽃을 피워라 :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필 요한 것과 실천할 것을 생각하게 한다.	공, A4용지, 펜, 색종이, 도화지, 장
3	폭력일까, 아닐 까	○감동대용귀즈 : 아이들의 감동대용유형을 간 접적으로 파악한다. ○폭력일까, 아닐까?:폭력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폭력의 개념을 정리한다. ○내가 경험한 폭력: 아이들이 어떤 폭력상황에 놓여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내가 가했던 폭력: 자신을 반성하고 폭력적인 대응을 지양하게 한다. ○폭력은-이다. 문장만들기: 폭력에 대한 생각을 다시한번 정리하며 마무리 한다.	A4용지, 펜
4	나예겐 어떤 감동이 있나?	○느리게 달리기 ○나예겐 어떤 감동이 있나? : 각자 아이들에게	A4용지, 펜

		어떤 갈등이 있는지 파악해 본다. (친구, 가족, 선생님 등)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대응하나? : 대응방법을 알아 본다.	
5	분노 다루기	○화날 때 몸의 느낌 파악하기 ○언제 화가 나나? ○8초 참기 방법 생각하기 ○분노표현하기	포스트잇, 펜
6	의사소통 1	○좋을 때, 슬플 때, 화날 때 : 이유와 느낌을 알아차리게 한다. '~해서 기분이 ~해' ○잘 듣기 : 명무새놀이를 통해서 잘듣기 연습하기, 잘 듣는 태도 익히기	A4용지, 펜
7	의사소통 2	○얼굴로 표현하기, 등에 써서 전하기 ○친구마음 이해하기	활동지
8	정리 및 마무리	○만들거리를 통해서 마무리	

(3) 산물학교 캠프

가. 일시 : 9월 25(월) - 27(수) 16시간, 진행: 조영희, 여혜숙, 박인혜

나. 내용 : 갈등과 평화개념 이해, 갈등분석, 협동적 문제해결 방법, 의사결정방법, 의사소통 등

(4) 민주화기념사업회 일일체험학습 '선생님 민주주의가 뭐예요?'

가. 일정: 9월 26일 - 11월 23일 총 36회 진행 (아래 표 참조)

나. 내용: 국회의원당, 서울시청광장, 이한열기념관 탐방 및 민주주의 마인드맵, 이미지그리기, 낱말 맞추기, 공동체놀이 진행

다. 민주화기념사업회 일일체험학습 일정표

날짜	학교	강사	날짜	학교	강사
	혜화초 1개반	여혜숙, 박인혜			여혜숙
9/26	당산초 1개반	박인혜	9/28	누원초 2개반	박인혜, 박홍나미
9/29	복성초 2개반	박인혜, 김영진	10/9	복성초 2개반	박인혜, 이덕경
10/11	개별팀	박인혜	10/16	물담초 2개반	박홍나미, 박인혜
10/17	복성초 2개반	박인혜, 김영진	10/18	거원초 1개반	이덕경
10/19	수락초 2개반	박홍나미, 김영진	10/19	수락초 2개반	박홍나미, 김영진
10/20	율지초 1개반	박홍나미	10/23	당산초 1개반	김영진

10/23	금호초 1개반	박인혜	10/25	개별팀	박인혜
10/25	중산초 1개반	박인혜	10/26	창신초 2개반	박홍나미, 박인혜
10/30	불암초 2개반	박인혜, 이덕경	11/17	노원초 1개반	박인혜
11/20	불암초 2개반	박인혜, 김영진	11/21	부인초 2개반	김영진, 박인혜
11/22	부인초 2개반	이덕경, 박홍나미	11/23	개별팀	박홍나미

(5) 청소년 리더십 캠프

- 2006년 7월28일(금) - 7월30일(일) 2박3일
- 장소: 수유동 원불교 청소년수련관
- 참석인원: 약 33 명
- 진행: 김영진, 박인혜, 박홍나미, 여혜숙, 이성욱, 이덕경, 이현주, 조영희
- 보조진행: 대학생캠프 참여자 (구태희, 김지훈, 김훈식, 정효민)

일자	시간	강의명	진행자
7/28 (금)		등록 및 점심식사	
	13:00-14:00	1강: 여는 마당 기대나누기, community building	박홍나미
	14:00-16:00	2강: 함께 배우는 평화 평화 개념과 관점,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평화감수성 훈련	여혜숙
	16:00-18:00	3강: 갈등해결과 또래조정이란? 갈등해결을 위한 관점, 또래조정이란 무엇인가?	김영진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4강: 또래조정 I 조정 의 원칙과 과정, 조정의 단계: 준비단계	조영희
7/29 (토)	08:00-09:00	아침식사 및 산책	
	09:00-12:00	5강: 또래조정 II 의사소통, 조정의 단계: 도입, 이야기하기 듣기	이덕경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6강: 자연에서 함께하기 자연과 하나 되고, 친구와 하나 되고	이성욱
	15:00-16:00	7강: 공동체놀이	이성욱
	16:00-18:00	8강: 또래조정 III 권한의 극복, 갈등 분석, 조정의 단계: 정결 규명	박나미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9강: 또래조정 IV	여혜숙

		의사결정방법, 조정의 단계: 문제해결하기, 합의	
7/30 (일)	08:00-09:00	아침식사 및 산책	
	09:00-12:00	10강: 또래조정 V 조정 실습	조영희
	12:00-13:00	점심식사	
	13:00-14:30	11강: 평화리더 세앗 찾기 평화리더로서의 나의 미래 찾기	여혜숙

(6) 학생대상 외부 교육 프로그램 진행

가. 평화여성회 방문한 강남중학교 학생 대상, '평화적 갈등해결의 이해'

(가) 일시 및 장소 : 9월 13(수), 평화여성회 교육장

(나) 진행 : 여혜숙, 이덕경

나. 민주화기념사업회 민주주의 캠프 부산팀

(가) 일시 : 8월 17일(목), 오후 7시~9시30분

(나) 진행 : 여혜숙, 박인혜

다. 민주화기념사업회 민주주의 캠프 대전팀

(가) 일시: 8월 23일 ~24일 (1박2일)

(나) 진행: 박인혜

라. 흥사단 주최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을 위한 갈등해결교육

(가) 일시: 9월 2, 9, 16일, 10월 28일, 11월 4일 (매회 3시간)

(나) 진행: 박인혜

마. 인천공부방연합회 캠프 평화교육

(가) 일시: 8월 10일(목), 오후 2시 ~ 4시

(나) 진행: 여혜숙

바. 고양환경운동연합 청소년환경교육

(가) 일시: 11월 11일 (토) 오전 10시 ~ 11시 30분

(나) 진행: 여혜숙

사. 용인YMCA 평화가족캠프 평화교육

(가) 일시: 11월 11일 (토) 오후 3시 ~ 6시

(나) 진행: 박인혜, 여혜숙

아. 성북청소년수련관 주최 학교 특별수업

(가) 일시: 12월 27, 28일, 성암중학교 3학년 11개반, 월계중학교 1학년 6개반

(나) 진행: 김선혜, 김영진, 박인혜, 박경옥, 박홍나미, 여혜숙, 이덕경, 이현주, 조영희

(7) 평가

가. 성과

- 가) 청소년 교육의 장이 학교수업 중심에서 공부방, 일일체험학습, 캠프 등으로 확산되었다.
- 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세대공감캠프>를 두 차례 진행하면서, 세대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 다) 청소년평화리더십캠프가 정착되었고, 기초와 심화로 분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내용의 깊이가 더해 갔다.
- 라)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공부모임이 정착 되었다.

나. 과제

- 가) 기존의 매뉴얼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나) 강사진들의 이해와 인식의 균질화가 필요하겠다.
- 다) 역량에 맞는 인원수의 배치와 인원의 다양화에 따른 적절한 교안마련이 필요하다.

4) 대학생 평화리더십 캠프

-청년회원 및 평화활동가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6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 (1) 일시: 2006년 6월 21일(금)-23일(일)
- (2) 장소: 수유리 원불교 봉도청소년수련원
- (3) 참석인원: 구태희 등 15명
- (4) 진행: 김학목, 박수선, 박인혜, 여혜숙, 이재영, 조영희
- (5) 내용

일자	시간	강의명	
6월 21일 (수)	10:00 -12:00	1강: 평화일꾼이란? 평화일꾼이 중요한 이유 기대와 희망 나누기	박수선
	12:00 -13:00	점심시간	
	13:00 -15:00	2강: 갈등해결 이해하기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이재영
	15:00 - 18:00	3강: 차이, 차별/ 편견 다루기	박인혜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2:00	4강: 갈등분석-분석을 왜 하는가, 갈등분석 실습	김학목
6월 22일 (목)	08:00 -09:00	아침식사	
	09:00 -09:30	어제 프로그램 평가	

	09:30 -12:00	5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1 대화(의사소통)/듣기와 관찰하기	여혜숙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16:00	6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2 대화(의사소통)/ 말하기, 분노조절	여혜숙
	16:00 -18:00	7강: Problem Solving, 의사결정 방법	조영희 이현주
	18:00 -19:00	저녁식사	
	19:00 -22:00	8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3 조정 원칙과 방법, 조정자의 역할, 기술	조영희
6월 23일 (금)	08:00 -09:00	아침식사	
	09:00 -12:00	9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4 조정 단계 및 조정 실습	박수선
	12:00 -13:00	10강: 전체 평가 및 앞으로의 계획, 평가	이현주 박수선
	13:00-	식사 후 휴식	

(6) 평가

가. 성과

- 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의 첫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 나) 청소년캠프 등에 모듬교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여 평화여성회 활동에 실질적 결함을 하였다.
- 다) 청소년캠프 참여자가 이후 조정진행훈련프로그램에도 일부 참여하여 지속적인 활동 및 교육참여의 기반이 되었다.

나. 과제

- 가) 모집의 어려움으로 적은 수만 참여하였다. 홍보와 모집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 나) 대학생의 수준과 비전에 맞는 내용, 구체적인 활동의 공간과 내용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필요하다.

5) 세대공감, 통하차 캠프(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갈등해결 캠프)

(1) 캠프 1차

- 가. 일시 : 2006년 5월 13일(토)~14일(일)
- 나. 장소 : 수유리 원불교 봉도청소년수련원
- 다. 참석인원 : 오숙민 등 22명

라. 진행 : 조영희, 박인혜, 박홍나미, 여혜숙, 이덕경

(2) 캠프 2차

가. 일시 : 2006년 5월 27일(토)-28일(일)

나. 장소 : (경기도 과주 소재) 흥원연수원

다. 참석인원: 황영화 등 36명

라. 진행 : 김영진, 조영희, 박인혜, 박홍나미, 여혜숙, 안향숙

(3) 내용

일자	시간	강의명	비고
첫째날	10:30-12:30	1강: 여는마당 기대나누기, 마음열기	함께
	12:30-13:30	점심식사	
	13:30-15:00	2강: 갈등이해하기 갈등의 개념, 갈등의 종류와 원인	따로
	15:00-18:00	3강: 갈등해결의 관점과 기술 익히기 권전극복과 갈등분석	따로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4강: 세대간 이해와 공존하기 / 함께 사는 세상	함께
	21:00-23:00	5강: 세대공감 old & new / 서로의 문화에 빠져라!	함께
둘째날	08:00-09:00	아침식사	
	09:00-09:30	공동체놀이	함께
	09:30-12:00	6강: 관계를 좋게 하는 의사소통	따로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7강: 자기표현과 평화적의사결정과정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 브레인스토밍으로 실천방안 정하기	함께
	14:00-15:00	8강: 협동적 문제해결/협동적인 활동을 통해 부모, 자녀간 협동심과 성취감 얻기	함께
	15:00-16:00	9강: 닫는 마당 / 마무리 및 정리	함께

(4) 평가

가. 성과

가) 캠프에서 부모와 자녀가 공통된 내용을 배움으로써 평화적 갈등해결에 대한 필요성과 공통된 인식을 마련하였다.

나) 한 대상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세대간 소통을 중심으로 두 대상층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시도하였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은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확장의 기초로 의미를 갖는다.

다) 부모자녀캠프를 청소년교육팀에서 준비하면서 진행자들이 함께 기획하고, 교안만들기, 실습까지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교육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과제

가) 처음 진행하면서 청소년과 부모로 대상을 설정했는데, 부모자녀캠프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저학년 부모에게 더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나) 올해는 청소년위원회 지원사업으로 진행했으나 앞으로 지원 없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의 프로그램 진행구성의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 예) 1일 캠프 등

6) 제4기 감사 트레이닝(회원 확보 및 갈등해결 교육 확대)

(1) 강좌 내용 및 방식

기초, 심화, 실습 3단계로 나누어 진행

○1단계: 기초-평화적 갈등해결의 이론 및 방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2박 3일 워크숍진행)

가. 일정: 3월 10일(금) ~ 12일(일) 나. 장소: 우이동 봉도청소년수련원

기초 프로그램 개요	○일자 : 2006년 3월 10일(금) - 12일(일) ○장소 : 우이동 봉도청소년수련원 ○참가자 : 강은경, 강정모, 고은광순, 고혜경, 김성일, 김영지, 김은희, 김정숙, 문광연, 박관우, 박상희, 서정기, 신아연, 심정권, 이선화, 이상숙, 이종하, 이춘선, 장선아, 정은미, 정현, 홍석영, 김혜숙 등 24명	
구분	시간	강의명
3월 10일 (금)	14:00 -16:00	1강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입문 -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16:00 -18:00	2강 갈등해결 이해하기 -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3강 갈등분석1 - 분석을 왜 하는가? 다양한 분석방법 이해 갈등분석 실습
3월 11일 (토)	09:00 -12:00	4강 갈등분석 2 - 갈등분석 실습
	12:00 - 3:00	점심식사
	13:00 -16:00	5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1 - 대화(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 기초
	16:00 -18:00	6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2 - Problem Solving, 의사결정 방법
	18:00 -19:00	저녁식사
3월 12일 (일)	19:00 -21:00	7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3 - 조정자의 역할, 조정 원칙과 과정
	09:00 -12:00	8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4 - 조정자의 역할, 조정(mediation) 원칙과 과정 II
	12:00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9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5 - 조정실습
	15:00 - 16:00	전체 평가 및 앞으로의 계획, 프로그램 평가

○ 2단계: 심화 - 기초에서 전반적인 틀에 대해 이해한 것을 각 부분마다 심화 학습 및 훈련

심화 프로그램 개요		○ 일자 및 회수 : 2006년 3월 20(월) - 4월 29일(수) 오후6시 30분 - 9시 30분, 매회3시간씩 주 2회 13회 ○ 장소 : 평화플란트는여성회 교육장		
구분	주제	내용		
1차	3/20(월)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평화교육의 한 내용으로서의 갈등해결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한다.	박수선
2차	3/22(수)	갈등해결의 법, 제도 이해	갈등해결 관련 법과 제도의 외국 사례와 우리 사회의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 제도적 모색을 살펴본다.	박수선
3차	3/27(월)	갈등 원인 분석의 여러 방법	갈등해결의 첫 과정인 분석에 대해 심화한다. 사례를 가지고 분석과 전략세우기에 대해 실습한다.	김학목
4차	3/29(수)	갈등해결의 방법-합리적 의사결정 방법	다양한 의사결정방법, 상황과 내용에 맞는 효과적 의사결정방법을 익힌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창의적 대안능력을 키운다.	조영희
5차	4/3(월)	의사소통기법1/듣기와 말하기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효과적인 듣기와 말하기 방법을 훈련한다.	최원진
6차	4/5(수)	의사소통기법2/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 실습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말하는 법'을 훈련한다.	최원진
7차	4/10(월)	분노조절	화가 나는 이유, 화가 났을 때의 행동 등을 객관화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배우고, 모색해본다.	여혜숙
8차	4/12(수)	권견 다루기	서로 다른 차이가 고정관념, 편견 등을 통해 차별화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편견과 강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훈련한다.	조영희
9차	4/17(월)	갈등해결의 방법-협상	협상의 원칙과 방법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자신의 목표, 타인의 목표를 이해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협동적 협상을 배운다.	조상형
10차	4/19(수)	갈등해결의 방법-조정	조정 원칙과 방법을 이해하고 실습한다.	박수선
11차	4/24(월)	관계의 회복/화해와 치유	문제해결뿐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근본적 치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비폭력적 사회변화에 대한 전망을 해본다.	이계영
12차	4/29(수)	중간평가	심화 과정을 평가하면서 나는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 함께 나눈다.	박수선

- 3단계: 적용 - 앞에서 이해하고 훈련한 것들을 실제 청소년 대상의 진행자로서 진행 실행 및 평가, 교안 만들기, 참관 실시

제목 프로그램 개요	○ 일자 및 회수 : 2005년 5월 1(일) - 5월 27일(토) 오후6시 30분 - 9시 매회3시간씩 10회 ○ 장소 : 평화플라트는여성회 교육장			
구분	주제	내용		
1차	5/1(일) 갈등해결교육 진행 방법론	평화의 가치, 기술, 태도의 내용을 함양시키는 평화, 갈등해결 교육의 교육방법론에 대해 이해한다. 2003-5년 진행된 학교 창의재량과 CA반 등에서 진행되었던 갈등해결 교육의 사례를 듣는다.	여혜숙 조영희	
2차	5/3(수) 어린이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교육 프로그램 디자인과 진행방법	"갈등해결과 평화" 수업의 전체 프로그램을 디자인해보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원칙 등을 검토한다.	여혜숙 조영희	
3차		1차 참관 수업 및 분석평가		
4차		2차 참관 수업 및 분석평가		
5차	5/13(토)	실습워크숍	박수선	
6차	5/13(토)	실습워크숍	수업교안 만들기 및 시연 : 그동안 배운 내용을 기초로 수업의 구체적 교안을 만들고, 프리젠테이션 실습을 통해 평가, 수업 진행능력을 높인다.	박수선
7차	5/20(토)	실습워크숍	박수선	
8차	5/20(토)	실습워크숍	박수선	
9차	6/3(토)	실습워크숍	박수선	
	6/3(토)	수료식	평가 및 전망 나누기	

(2) 평가

가. 성과

- 가) 강사드레이닝은 회원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회원 확대에 기여하였다.
나) 평화교육에 관심있는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평화, 갈등해결 교육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했다. 이후 지역 또는 활동하는 자기 단체에서 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는 등 갈등해결교육의 확산에 기여했다.

나. 과제

- 가) 강사드레이닝의 목적이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 양성에 있고, 평화여성회 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해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활동가들의 참여율이 낮아서 내적 구성원의 확대에는 기여하지 못한 점이 있다.
나) 홍보와 모집에 좀더 노력하여 수료 후 직접적인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활

동가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 강사트레이닝 수료 후 지속적인 심화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 기초워크숍

- (1) 취지: 하반기에는 심화 프로그램인 '조정, 진행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만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초훈련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하반기에 계획이었던 기초워크숍을 기획, 진행하였음.
- (2) 일시와 장소: 9월 23일(토)-24일(일) 1박2일 숙박, 봉도청소년수련원
- (3) 참가자: 김경미 외 14명
- (3) 세부 일정 및 내용

구분	시간	강의명	
9월 23일 (토)	10:00 - 11:00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박수선
	11:00 - 12:00	1강 갈등해결 이해하기1 -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이재영
	12:00 - 12:40	점심식사	
	13:00 - 14:40	1강 갈등해결 이해하기2 -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이재영
	15:00 - 16:00	2강 권견다루기	조영희
	16:00 - 18:00	3강 갈등분석 - 분석을 왜 하는가? 다양한 분석방법 이해 갈등분석 실습	여혜숙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4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1 대화(의사소통)1/듣기	여혜숙
9월 24일 (일)	09:00 - 10:20	5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2 대화(의사소통)2/자기표현 요소	여혜숙
	10:30 - 12:00	6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3 아이디어모으기, 의사결정 방법	조영희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7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4 조정자의 역할, 조정 원칙과 과정	조영희
	15:00 - 17:00	8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5 조정 기술, 조정 단계	박수선
	17:00 - 18:00	9강 조정실습	박수선
18:00 - 18:30	전체 평가 및 계획	박수선	

8) 학부모, 활동가 등 지역 강사트레이닝(공동사업)

- (1) 과천 학교평화만들기(이하 학생), '학교 평화교육 강사 양성 훈련'
기초교육 프로그램

1차	4/5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이재영
2차	4/12	갈등해결 기초	이재영
3차	4/19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I 의사소통 훈련 1	여혜숙
4차	4/26	의사소통 2	여혜숙
5차	5/3	비폭력의사소통 1	최정현진
6차	5/10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II 조정 기초훈련1	박수선
7차	5/17	조정 기초훈련 2	박수선
8차	5/24	조정 기초훈련 3	박수선
9차	5/31	또래중재 1	이재영
10차	6/7	또래중재 2	이재영
11차	6/14	비폭력 대화 1	최정현진
12차	6/21	비폭력 대화 2	최정현진
13차	6/28	비폭력 대화 3	최정현진
14차	7/5	비폭력 대화 4	최정현진
15차	7/12	갈등해결의 적용	조영희
16차	7/19	평가 및 수료식	학평

심화교육 프로그램

1차	9/6	기초과정 복습 및 평화적 갈등해결 이해(심화)	이재영
2차	9/13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협상과 대화1	조영희
3차	9/20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협상과 대화 2	조영희
4차	9/29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의사소통 심화 1	여혜숙
5차	10/11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의사소통 심화2	여혜숙
6차	10/18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조정 심화 1	박수선
7차	10/25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조정 심화 2	박수선
8차	11/1	평가 및 수료식	조영희, 학평

(2) 충북여성인우회 주최,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양성 트레이닝"

일시		워크숍 내용	진행자
월일	시간		
6월 8일(목)	13:00-14:00	프로그램 일정 소개, 기대와 희망 나누기	박수선
	14:10-16:00	평화적 갈등해결의 이론과 실제, 개인간 갈등 대응방식 연구	
	16:10-18:00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6월 9일(금)	13:00-14:00	갈등분석의 필요성, 의미, 여러 방법	박수선
	14:10-15:20	갈등분석의 여러 방법 1 - 양과분석	
	15:30-16:50	갈등분석의 여러 방법 2 - ABC삼각형 분석	
	17:00-18:00	갈등분석의 여러 방법 3 - 갈등지도	
6월 15일(목)	13:00-14:30	의사소통의 중요성, 의사소통의 필터 이해	여혜숙
	14:40-16:00	갈등을 줄이는 마음으로 듣기	
	16:10-18:00	화해를 만드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말하기	
6월 16일(금)	13:00-15:30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의사결정 방법	박수선
	15:40-18:00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조정자의 의미와 원칙, 조정자의 역할	
6월 22일(목)	13:00-15:30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조정자의 기술 훈련, 조정단계 이해	박수선
	15:40-18:00	조정 실습1/시나리오 역할극 실습	
6월 23일(금)	13:00-14:50	조정 실습2/시나리오 역할극 실습	박수선
	15:00-16:50	갈등해결교육 방법론/프로그램 디자인의 원칙	
	17:00-18:00	평가와 소감 나누기/지역사회 적용 모색	

(3) 부산광역시피해자지원센터 햇살 주최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양성교육"

○ 평화적 갈등해결의 이론 및 방법 이해 및 적용

기초 프로그램 개요	○ 일자 : 2006년 8월 16일-18일		
	○ 장소 : 부산 권교조 강당		
○ 내용 :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에 대한 개념,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하고, 청소년대상 교육 적용을 위한 구체적 교안을 마련한다.			
구분	시간	강의명	
8월 16일	10:00 - 12:00	1강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입문 -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12:00 - 13:00	정식식사	
	13:00 - 16:00	2강 갈등해결 이해하기 -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16:00 - 18:00	3강 갈등분석1 - 분석을 왜 하는가? 다양한 분석방법	
			조영희

		이해 갈등분석 실습	
8월 17일	09:00 - 12:00	4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1 - 대화(의사소통)/ 듣기와 자기표현 기초	조영희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5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2 - 분노조절	박수선
	15:00 - 17:00	6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3 - Problem Solving, 의사 결정 방법	조영희
	17:00 - 18:00	7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4 - 차이와 차별, 권전다루 기	조영희
8월 18일	09:00 - 12:00	8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5 - 조정자의 역할, 조정(mediation) 원칙과 과정	박수선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6:00	8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4 - 조정실습	박수선
	16:00 - 18:00	9강 청소년대상 갈등해결 교육 프로그램 디자인과 진 행방법, 전체 평가	박수선

(4)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주최,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

○ 1차 : 기초-평화적 갈등해결의 이론 및 방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

기초 프로그램 개요	○ 일자 : 2006년 9월 7일(목) - 10일(토)		
	○ 내용 : 전체 교육프로그램 소개, Community Building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에 대한 기초적 개념,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함 으로써 프로그램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본다.		
구분	시간	강의명	
9월 7일 (목)	10:00 - 12:00	1강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입문 -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6:00	2강 갈등해결 이해하기 -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16:00 - 18:00	3강 갈등분석1 - 분석을 왜 하는가? 다양한 분석방 법 이해 갈등분석 실습	
9월 8일 (금)	09:00 - 11:00	4강 갈등분석 2 - 갈등분석 실습	
	11:00 - 12:00	5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1 - 대화(의사소통)/듣기 와 자기표현 기초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40	5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2 - 대화(의사소통)/자기 표현 기초	
	16:00 - 18:00	6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2 - Problem Solving, 의	

		사절정 방법	
9월 9일 (토)	09:00 - 12:00	7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3 - 조정자의 역할, 조정 (mediation) 원칙과 과정	박수선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40	8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4 - 조정실습	박수선
	16:00 - 17:00	9강 평화교육과 갈등해결교육/갈등해결의 법 제도 이해	박수선
	17:00 - 18:00	전체 평가 및 앞으로의 계획, 프로그램 평가	여혜숙

○ 2차 심화기초에서 전반적인 물에 대해 이해한 것을 각 부분마다 심화 학습 및 훈련

기초	○ 일자 : 2006년 9월 21(금) - 23(토)		
프로그램 개요	○ 내용 :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을 위한 심화 학습과 적용을 위한 교육 방법론을 익힌다.		
구분	시간	강의명	진행자
9월 28일 (목)	10:00 - 11:00	1강 복습 및 그간 적용경험 나누기, 평가	박수선
	11:00 - 12:00	2강 갈등해결방법 배우기 1- 협동적 협상이란?	박수선
	11: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2강 갈등해결방법 배우기 1- 협동적 협상 실습	박수선
	15:00 - 18:00	3강 갈등해결방법 배우기 2- 대화(의사소통)/진밀감을 형성하는 자기표현	여혜숙
9월 29일 (금)	09:00 - 12:00	4강 갈등해결방법 배우기 3- 분노조절	여혜숙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40	5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4 - 차이와 차별, 권권 다루기	조영희
	16:00 - 18:00	6강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 진행방법론	박수선
9월 30일 (토)	09:00 - 10:00	7강 갈등해결교안 실습 1 - 다양한 협동 놀이 및 쉬어가기 활동들	여혜숙
	10:00 - 12:00	8강 갈등해결교안 실습 2 - 평화 개념, 자기 존중, 다양성 이해 활동	조영희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9강 갈등해결교안 실습 3 - 갈등개념,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 이해	조영희
	15:00 - 17:00	10강 갈등해결교안 실습 4 - 의사소통, 분노조절	여혜숙
	17:00 - 18:00	전체 평가 및 앞으로의 과제, 적용 모색	박수선

(5) 광명교육연대,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양성 교육”

강과	일정(월/일)	시간	교육 내용	강사
1	9월7일(목)	3	개강식 평화갈등의 이해	박수선
2	9월14일(목)	3	평화적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 갈등 개념, 나의 갈등대응유형	조영희
3	9월21일(목)	3	갈등분석 방법	조영희
4	9월28일(목)	3	차이와 차별, 편견 다루기	조영희
5	10월12일(목)	3	갈등해결 배우기1/의사소통 1	여혜숙
6	10월19일(목)	3	갈등해결 배우기2/의사소통 2	여혜숙
7	10월26일(목)	3	갈등해결 배우기3/분노조절	여혜숙
8	11월2일(목)	3	갈등해결 배우기4/의사결정방법	조영희
9	11월9일(목)	3	갈등해결 배우기5/조정 원칙과 방법	박수선
10	11월16일(목)	3	갈등해결 배우기6/조정 실습	박수선
11	11월23일(목)	3	갈등해결교육과 평화교육 /교육진행방법론	박경옥
12	11월30일(목)	3	평화적 갈등해결을 위한 적용 모의 평가 종강식	박경옥

(6) 평가

가. 성과

- 가)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 나) 프로그램 주체를 지역 단체에서 하고, 갈등해결센터는 내용 기획과 진행만 맡음으로써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다)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의 전문 단체로서 평화여성회의 위상을 높였다.

나. 과제

- 가) 지역에서의 교육은 단기교육일 수밖에 없고, 교육과정은 만족도가 높으나 실천적으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이후 후속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계획이 필요하다.
- 나)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강사 트레이닝 후 긴밀한 관계형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다) 갈등해결 전문 단체로서 위상에 걸맞는 전문력 대우 및 강사의 질적 고양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9) 기업체 대상 갈등해결과 협상 워크숍

(1) 아리랑TV, '조화로운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협상능력개발 워크숍'

가. 목표

가) 조직내 노사간 평화적 갈등해결의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통의 기반을 만든다.

나) 다른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고 상호 만족을 추구하는 협동적 협상방법을 익힘으로써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다)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조직내 민주적 소통문화를 형성한다.

나. 일시: 7월 5(수)~7일(금), 23시간

다. 일정 및 세부 내용

일시		주제	세부 내용
월일	시간		
7월5일 (수)	10:00-12:00	함께 사는 세상	워크숍에 대한 기대 나누기, Team Building
	12:00-13:00	점심식사	
	13:00-14:20	나에게 갈등이란?	갈등해결 기초 1/갈등의 개념, 원인, 개인 간 갈등 대응 방식 연구
	14:30-15:50	갈등과 더불어 사는 삶	갈등해결 기초 2/갈등해결의 여러 방법
	16:00-18:00	갈등의 근원적인 해결 을 위하여	갈등분석 이해, 분석 실습(양과기법, ABC삼각형기법)
7월6일 (목)	10:00-12:00	갈등을 만드는, 해결하 는 듣기	듣기의 중요성, 마음으로 듣는 방법
	12:00-13:00	점심식사	
	13:00-14:50	조화를 만드는 말하기	평가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기, 느낌을 말하 기, 욕구 드러내기, 부탁하기
	15:00-16:20	회의 진행방법 1	만족스러운 회의의 진행 방법
	16:30-18:00	회의진행방법 2	의사결정 방법 실습(Brainstorming, Consensus Building)

7월7일 (금)	10:00-12:00	협동적 협상 1	협상실습 1: 협동적 협상이란? 국제무역제일
	12:00-13:00	점심식사	
	13:00-14:50	협동적 협상 2	협동적 협상의 원칙과 방법 협상 단계 이해
	15:00-16:50	협동적 협상 3	협상 실습 2: 시나리오 역할극 실습
	17:00-18:00	평가	조화로운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모의

라. 평가

가) 성과

- ① 처음으로 기업체 노사를 대상으로 갈등해결과 협상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갈등해결교육의 대상층을 확대한 의미가 있다.

나) 과제

- ① 협상을 주제로는 처음 시도된 워크숍으로 내용상 불충분하기도 하였는데, 협상관련한 진행내용 및 방식에 대해 더욱 전문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다양한 대상층의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사례 및 시나리오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10) 통일과 갈등해결 관련 워크숍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위원회 토론회 발제 참여

가. 주제: 『남북사회통합과정에서의 여성참여방안』

-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여성참여

나. 일시: 6월 29일

다. 발제: 박수선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위원 워크숍

가. 일 시: 2006. 10. 11

나. 장 소: 민주평통위 대회의실

다. 대 상: 여성위원회, 서울지역 여성분과위원장 30여명

라. 진 행: 박수선

가) 내용

시 간	프로그램	세 무 내 용
11:00-12:00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의 개념 이해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 이해 •개인간 갈등대응방식 연구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 등 •갈등해결의 주요 관점과 원칙
13:00-14:00	협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대적 협상과 문제해결적 협상

	원칙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문제를 분리 - 실익에 기반 - 창의적·상생적 대안 찾기 - 객관적 기준과 절차 만들기
14:00-16:00	조정 원칙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자의 역할과 태도, 신념 •중립성 훈련 •조정의 단계 및 기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 편견과 분노 다루기 - 관찰, 경청, 질문, 바꿔 말하기, 요약
16:00-17:00	조정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의 단계 및 기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 아이디어 모으기 - 경청을 나누기 - 연결하기 •조정 역할극 실습
17:00-18:00	평가 및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여성의 역할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적용 모색 •프로그램 평가

2. 평화적 갈등해결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 1) 각 프로그램별 자료 정리, 소책자 발간: 그간 진행되었던 교육사업 및 내용들을 자료화하여 소책자를 발간한다. 내용적인 홍보, 선전의 역할과 함께 재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분야별 소책자 발간계획-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 청소년교육 매뉴얼, 갈등해결기초 등등)
 - 조정 진행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 2) 영상자료 개발: 효과적 교육을 위해 영상을 이용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
 - 세대공감 캠프, 청소년리더십캠프 등 활동모습 영상자료로 제작

3. 제도적 접근을 위한 사업

- 1)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제도 모색-외부적 사법정의 가족회합 모의실험 연구 참여
 -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 공동 수행
 - 9월 2일(토), 3일(일) 4건의 사례로 회복적 사법정의 (피해자 가해자 조정) 가족회합 모의실험 진행.

- 참여자:

역할극-김영진, 이덕경, 이효숙, 손희정, 김용주, 김훈식, 정효민, 구대희, 박나래, 임준형
조정자 참여-박수선, 이재영, 여희숙, 조영희

2) 국내의 청소년 평화문화 소개 및 교류

다른 교육사례와 다른 프로그램의 제도화 과정을 조사하고, 학교폭력의 현황이나 또래중재 교육의 효율성을 논증하며, 증진화 방안으로 토론회를 조직하며, 법제화, 법안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다.

3) 학교폭력,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으로 예방하자! 토론회

(1) 일시: 2005년 1월 24일(화)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3) 참가 : 김영진 등 회원, 관련자 50여명

(4) 프로그램

사회: 박수선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발제 1: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 조영희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청소년교육팀

발제 2: 청소년 갈등해결 교육의 효과·사례 분석 | 최창욱 한국청소년개발원 부
연구위원

토론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장기적 접근,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 박병식 청소년
위원회 위원

토론 2: 현장사례 | 김영미 서울연지초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토론 3: 현장사례(교사의 입장에서 본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적용의 한계 및 과제)
| 이경혜 성덕여중 교사

토론 4: 정책적 측면에서의 적용 가능성 모색/긍정적과 과제 | 박정희 교육부 초
중등교육정책과 연구사

토론 5: 적용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보완 방향 | 박정태 동의대 강사 청소년교
육상담전문

참여자 의견 모으기

(5) 평가

가. 성과

가) 그동안 진행되어온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의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과 평
화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효과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것으
로 설정한 토론회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 관련한 사람들의 참여와
이후 한겨레신문 등의 기획 기사를 통해 갈등해결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의 확산에 기여했다.

나) 지정토론자들의 다양한 주제와 사례발표는 갈등해결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긍정적이다.

나. 과제

가) 센터 사업의 내용을 파워포인트 자료와 비디오 자료를 준비했는데, 방식상으로 보는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참가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이고 융합이나 내용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나) 전체 진행과 관련해서는 장소의 운영과 토론자 맞이, 뒷풀이 준비, 자료 판매 등 포토회를 운영하는 데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총괄 책임자 선정 등 더욱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했다.

4) 갈등예방을 위한 공약 요구

2006년 지방자치선거를 맞아 후보자들에게 선거공약 시 공약사업 이행방식과 과정까지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여 사회갈등 예방의 필요성과 평화적 갈등해결문화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 그러나 실행하지 못함.

4. 프로그램 연구, 개발

1) 청소년교육 관련 교안 연구 : 포레스트, 통일교육, 소책자, 연령대별

-교구, 프로그램, 평가척도 연구

-내부교재 : 교육방법론, 시나리오, 워크셔트 등

(1) 청소년교육 교안집(내부자료) 발간

- 학교 수업, 캠프 진행자료 등 교안을 모아 내부 진행차용 교안집 발간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선생님, 민주주의가 뭐예요?" 체험학습 교재 내용 연구

- 연구참여: 김학욱, 김영지, 여혜숙, 이종하, 박수선

- 내용: 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 내용,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가치, 유적지 탐방 안내, 활동지 등

- 신국판 48쪽

2) 사회갈등사례 연구

- 사회갈등 과정에 있는 지역공동체 현황 파악 및 공동체 복원 및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 평화적 사회번화의 관점에서 본 성공적인 갈등해결의 기준 등

(1) 평가

가. 성과

- 가) 크고 작은 사회갈등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각 사례별 갈등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상황에서 개선책을 찾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 나) 또한 배움것지는 못했으나 '성공적인 갈등해결이란 무엇인가(가제)'란 과제를 진행함으로써, 갈등해결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관점을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시각을 넓혀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었다.
- 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아쉬움을 느낀 동시에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한 한 해였다.

나. 과제

- 가) 5월 이후 사회갈등분석팀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지 못하였다. 구성원들이 갖는 참여의지는 높았으나 각자의 기대와 현실적인 여건은 서로 달라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진행할 수 있는 과제 발굴이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미흡했다.

3) 대화 및 회의진행(Facilitation)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여러 회의 및 의사결정, 대화과정의 진행기술과 관점에 초점을 맞춘 진행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1) 사회통합과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조정, 진행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가. 목적

- 가)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을 지원하는 중립적 3자의 역할로서 조정자, 진행자의 관점과 기술을 훈련함으로써 갈등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 나)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 갈등해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갈등관리 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
- 다) 민관 혹은 주민간의 갈등에서 중립적이며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단체, 기관, 지역 리더층의 역할을 모색, 훈련한다.
- 라) 단선적인 갈등 해결방법에서 창조적이고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인력을 양성하여 힘이 의한 대결문화에서 대화와 협동의 문화로 전환하는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소모적 사회갈등분쟁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나. 기간

- 가) 기초: 10월 13일(금)-15일(일) 2박3일 숙박 워크숍 20시간
- 나) 심화: 10월 21일(토)-11월 25일(토) 40시간

다. 참가인원: 강영실 등 32명

라. 내용

가) 기초과정

○ 조정의 단계별 이해 및 훈련(2박 3일 워크숍 진행)

기초 프로그램 개요	○ 일자 : 2006년 10월 13(금) - 15(일) ○ 장소 : 흥원연수원 (과주 소재) ○ 내용 : 전체 프로그램 소개, Community Building 조정, 진행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조정 단계에 따른 기술과 방법을 실습한다.	
구분	시간	강의명
10월 13일 (금)	14:00 - 15:30	1강 사회의 통합과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갈등해결의 기초 관점 -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15:30 - 18:30	2강 조정, 진행 이해하기/조정, 진행의 개념, 원칙, 조정 단계 이해, 조정 기술
	18:30 - 19:30	저녁식사
	19:30 - 21:30	3강 준비단계/정보수집, 당사자 만나기, 듣기와 감정 표현
10월 14일 (토)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09:30	어제의 프로그램 평가
	09:30 - 10:40	4강 도입/자리비치, 우호감 친밀감 조성, Ground Rule 만들기
	11:00 - 12:00	5강 조정 기술/바꿔말하기 연습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6:00	6강 입장 나누기/감정반영, 열린질문, 요약하기, 바꿔말하기, 의사소통 지도
	16:00 - 18:00	7강 정경규명/분석, 명확성 높이기, 연결(공통의 토대 찾기)
	18:00 - 19:00	저녁식사
10월 15일 (일)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10:30	9강 합의/합의의 기준과 원칙, 합의문 작성법
	10:40 - 12:00	10강 조정실습 1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11강 조정실습 2
	15:00 - 16:00	전체 평가 및 앞으로의 계획, 프로그램 평가

나) 심화과정

심화 프로그램 개요	○ 일자 : 2006년 10월 21일(토)-11월 25일(토) 2회 8시간, 4회 6시간(총40시간) ○ 장소 : 서울 장충동 분교빌딩 5층 교육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내용 : 조정, 진행 역할극 및 활동을 중심으로 한 심화 훈련.	
구분	시간	강의명
10월 21일 (토)	13:00-15:00	1강 갈등해결과정에서의 진행(facilitation)이란?/Facilitation의 핵심 가치
	15:00-17:00	2강 Facilitator의 역할과 책임
	17:00-19:00	3강 효과적인 Facilitation 기법 1/준비, 환경 만들기
10월 28일 (토)	10:00-12:00	1강 효과적인 Facilitation 기법 2/의사소통촉진 기법 및 감정 다루기
	13:00-15:00	2강 효과적인 Facilitation 기법 3/진행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 방안
	15:00-17:00	3강 진행 실습 1/조직내 의사결정과정
	17:00-19:00	4강 진행 실습 2/ 조직내 갈등해결
11월 4일 (토)	13:00-15:00	1강 갈등예방을 위한 Dialogue의 원칙과 방법
	15:00-17:00	2강 갈등예방을 위한 Dialogue의 진행 과정 실습
	17:00-19:00	3강 Problem Solving Workshop 구조 이해
11월 11일 (토)	10:00-12:00	1강 갈등해결 법 제도 이해
	13:00-15:00	2강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 및 방법
	15:00-17:00	3강 갈등예방프로세스 이해/합의회의 등 참여적 의사결정과정
	17:00-19:00	4강 갈등예방 프로세스 진행 실습
11월 18일 (토)	13:00-15:00	1강 공공갈등 조정 실습 1
	15:00-17:00	2강 합의문 작성법
	17:00-19:00	3강 공공 갈등 조정 실습 2
11월 25일 (토)	13:00-15:00	1강 한국사회에서의 조정, 진행의 적용 모색/제도 문화적 접근
	15:00-17:00	2강 참여자 발표, 토의
	17:00-19:00	3강 전체 평가 및 수료식

마. 평가

가) 성과

- (가) 그간 평화여성회 갈등해결교육을 받은 참여자들 대상으로 심화 프로그램으로서 처음 시도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나) 특히 그동안의 워크숍 및 교육이 '교육 진행자 양성'을 중심에 두었다면 갈등예방 및 해결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3자의 역할과 기술 훈련이라는 점에서 갈등해결센터 사업 확장의 기초로서 의미를 갖는다.

(다) 심화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았기 때문에 참여자의 수도 많아 평화여성회의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

나) 과제

(가) 조정, 진행 훈련을 위한 더욱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다양한 교안과 진행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나)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 내적인 구조와 역량 강화에 대한 모략이 필요하다.

5. 조직 강화 및 확대

- 1) 그간 교육참가자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
- 2) 회원 재교육 : 공부모임, 조정진행 프로그램에 참여
- 3) 전문강사를 형성, 강화

6. 국제연대

국제비폭력평화세력(Nonviolent Peace Force International), 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NVC) 등 갈등예방, 해결 관련 국제단체와의 연대

1) 한국아나팰티스센터 주최, 연극과 드라마를 통한 갈등전환 및 평화교육 워크숍 후원 및 참여

(1) 일시: 2006년 10월28일(토) - 29일(일) 2:00-6:00 pm

(2) 주요 내용: 이미지 극장과 몸짓 연기 (Image theater and body work)

시각효과 및 시의 활용 (Visual Arts/poetry)

포럼 극장 (Forum Theater)

V. 총평

2006년 갈등해결센터는 새로운 시도가 많이 이루어진 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첫째, 갈등해결교육의 대상 및 주제가 확장되었다. 청소년대상 교육의 경우 학교 교실뿐 아니라 공부방으로 확산되었고, 학교교육의 경우도 CA 중심에서 특별한 구성을 통한 교육으로 확장되었다. 대안학교에서 3일간 집중교육의 형태도 시도되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공감캠프, 젊은 활동가 양성을 위한 '대학생 평화리더십 캠프' 그리고 성인대상의 교육은 협상을 주제로 기업체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통일과 갈등해결의 접목 시도도 이루어져 통일과 갈등해결을 주제로 청소년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참여(홍사단), 통일과정에서 남남갈등해소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다룬 워크숍 기획 및 진행(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다양한 주제, 그리고 노사가 함께 또는 부모자녀가 함께 등

대상간 이해를 높이는 시도들도 이루어졌다.

둘째, 갈등해결교육이 지역적으로 확산되었다. 2006년까지 4기 강사트레이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등해결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지역 단체에서 주최하고, 갈등해결센터에서는 기획, 교육진행만 맡는 형태의 지역 강사트레이닝이 과천을 비롯하여 청주, 부산, 제주, 광명 등에서 직계는 24시간 말게는 72시간까지 진행되었다. 이는 지역단위의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갈등해결교육 및 실천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갈등예방 및 해결과정에 직접적 3자로서의 개입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시도되었다. '조정, 진행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의 시도는 주제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라는 의미와 함께 활동의 영역이 교육에서 직접적 3자로서의 개입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또한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인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사법정의 모델 연구'에 참여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조정모델을 연구하고, 모의실험을 함께 함으로써 갈등해결과정에 중립적 3자 역할의 필요성과 구조 모색을 시작하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새로운 시도와 갈등해결 관련 활동의 확대는 그간 조직화 작업의 성과이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갈등해결 전문 프로그램 기획 운영집단으로서 전문성 강화, 확산되는 교육 이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과제, 교육에서 3자 개입으로 활동의 영역을 넓힌 만큼 그것을 뒷받침할 구조와 전문인력의 확대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겼다. 특히 앞으로 갈등해결과 평화활동을 통한 평화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관련 단체 및 활동가간의 연대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활동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2-3 일상평화센터

(소장 : 김정수)

1. 사업목표

2006년 일상평화센터는 여성주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그리고 평화심성팀이 지난 해 새롭게 시도한 평화퍼포먼스의 발전 및 평화심성훈련 프로그램 실시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 더불어 소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들의 일상의 평화심성 및 평화감수성을 개발하며 이를 전체 평화여성회의 조직적 활성화와도 연관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2. 주요 사업 방향

- 1) 평화심성과 평화감수성 형성을 위한 문화적 표현양식 개발과 사회화 모색
- 2) 평화노래모임, 평화와 미디어모임 등 소모임 활성화
- 3) 여성평화아카데미를 통해 여성주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 4)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3. 조직

1) 평화심성팀

- 활동내용 : 평화심성, 평화감수성개발과 사회적 평화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식 개발 및 평화여성회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 및 자원활동을 통해 조직의 친밀감과 구성원의 결속을 도모한다
- 팀장 : 문명녀
- 팀원 : 이낙호, 박예경, 황순영, 오상남, 김신희, 김현숙, 김현진, 장정화, 김현희, 김혜진, 김정수,

4. 회의 및 모임

1) 일상센터 월례모임

- (1) 월 1회 정례회의
- (2) 필요시 수시회의

2) 평화심성팀/쌍언니들의 평화노래모임/평화미디어 모임 등 소모임

- 목적 : 기존의 평화심성팀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새롭게 시도하는 소모임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1) 월1회 정례회의
- (2) 필요시 수시회의

5. 사업계획

1) 제4차 평화심성훈련

- (1) 일시 및 장소 : 미정
- (2) 내용 : 비폭력 평화주의 내용을 평화심성과 평화감수성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

2) 제9차 여성평화아카데미

- (1) 일시 및 장소 : 2006년 봄/가을 강좌 각 5회씩
- (2) 내용 :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전반적 내용 - 2006년 봄
여성과 군사주의/여성안보 담론 등의 주제 - 2006년 가을

3) 기타 사업

- (1) 내용 : 평화심성팀 Peace Performance와 쌍언니들이 평화노래 모임 등 시기별로 적절하게 공연

6. 사업내용

1) 평화심성팀

(1) 회의

가. 1차회의

- 가) 일시 : 3월31일(금) 나) 장소 : 정독도서관 앞 카페
- 다) 참석 : 김정수, 김혜진, 문영내, 장경화
- 라) 내용 : 2006년 사업계획 및 향후방향 등

나. 2차회의

- 가) 일시 : 12월29일(금) 낮12시 나) 장소 : 인사동의 채식식당
- 다) 참석 : 김신자, 김정수, 김현숙, 김현진, 장경화, 황순영
- 라) 내용 : 2006년 사업평가 및 2007년 사업계획 논의

(2) 모임

가. 1차 모임

- 가) 일시 : 2월21일(화) 오후 7시 30분 나) 장소 : 평화여성회 교육장
 다) 참석 : 김숙임, 김신자, 김경수, 김현숙, 김현진, 문명녀, 이나호, 이서현, 황순영
 라) 내용 : 2006년 사업방향 및 평화에 대한 단상 등
 우리는 무엇을 위해 평화를 꿈꾸는가?
 일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들
 올해의 평화심성의 고민해야 할 과제

나. 2차 모임

- 가) 일시 : 3월23일(목) 오후 6시 나) 장소 : 평화여성회 교육장
 다) 참석 : 김경수, 김현진, 김혜진, 문명녀, 황순영
 라) 내용 : 소통... 우리는 어떻게 평화의 언어로 소통 할 것인가?
 ○ 참고도서 : 경혜선의 삼색공감(개마고원)

다. 3차 모임

- 가) 일시 : 4월 나) 장소 : 광화문 시내극브
 다) 참석 : 김신자, 김혜진, 김현진, 김현숙, 장정화, 황순영
 라) 내용 : 영화보고 토론하기 / 영화 "내 곁에 있어줘"

라. 4차 모임

- 가) 일시 : 7월 말 나) 장소 : 장정화 회원 집
 다) 참석 : 김경수, 김혜진, 김현진, 김현숙, 장정화, 황순영,
 라) 내용 : 평화심성팀 회원들의 삶 나누기와 팀 활동에 대한 의견 나눔

(3) 기타

가. 이나호 선생님의 칠순잔치 참여

- 가) 일시 : 7월7일(금) 오후6시 나) 장소 : 김숙임 대표의 집

나. 김혜진 환송모임

- 가) 일시 : 10월17일(화) 저녁 9시 나) 장소 : 장충동 음식점

다. 대추리 농활 및 다양한 회원행사 참여

평화심성팀은 대추리 농활이외에 월례평화마당, 금강산 여성평화기행등 적극적으로 회원모임에 참여함

라. 이라크의 레바논침공규탄 퍼포먼스 참여

- 가) 일시 : 8월10일(목) 오전11시30분 나) 장소 : 이스라엘대사관 앞
 다) 내용 : 레바논 여성들의 아픔에 연대하며 평화를 희망하는 퍼포먼스에 황순영 회원이 참여함

7. 총평

평화심성팀은 올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계획하면서 문화와 생활 속에서 평화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였다. 기행, 절집에서 생활해보는 템플스테이, 영화·연극·뮤지컬 등의 관람·토론 등을 계획했다. 그 결과, 지난 상반기 중에 가인, 나비, 노을, 솔바람, 봄꽃, 별 등이 모여 평화문 씨네큐브에서 영화를 보고 각자가 느낀 소감과 '관객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았다. 또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며, 솔바람, 김신자님은 대추리에서 벌였던 '평화농활'에 참여했다. 하지만 평화심성팀이 올해 계획했던 내용이 진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심성팀 회원들 각자의 사정이 바쁘기도 하였지만, 일상평화센터를 맡았던 실무자가 개인여건상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모임을 견인해주는 역할이 없어 회원들 내부적으로도 자체적으로 추진력 있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실무자가 있었던 잠시 동안 평화심성모임의 방향에 대한 기획 모임을 꾸리는 등 충실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무자가 그만 두면서 중단 되었다. 비록 계획된 바에 따라 심성팀의 모임이 진행되지는 못하였지만 평화여성회가 진행하는 팔레스타인문제, 이라크 파병, 북핵 등을 주제로 한 월례평화마당과 통일학교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현안에 대해 공부하였고, 뒷풀이에서 정기모임을 겸해서라도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으며 모임을 이어나갔다. 월례평화마당은 유익했다는 평이 많았다. 후원의 밤 행사에는 무대와 행사 장소의 인터리어를 평화를 모티브로 나비님이 꾸며주어 후원의 밤을 더 돋보이게 해주었다. 향후 평화심성팀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관심영역을 여건에 맞게 기획하고 준비해 갈 필요가 있다.

2-4 회원참여센터

(소장 : 김숙임)

1. 사업목표

- 1)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부심을 키워나간다.
- 2)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한다.
- 3) 평화운동의 소모임을 마련한다.
- 4) 회원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대를 마련한다.
- 5)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나가고 회원들의 소식을 담아낸다.
- 6)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해 재정사업을 기획하고 마련한다.

2. 사업방향

회원에 대한 분석과 자료화를 통해 회원의 욕구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여타의 사업이 회원배가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도모하며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인다.

3. 사업계획

- 1) 회원사업팀 (팀장: 문명녀, 팀원: 정유진, 송소희, 김현희, 김선량)
 - 월 1회 회의 정례회의와 사안에 따른 임시회의 개최
 - 회원의 지속적인 참여와 확대를 위해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강을 마련해 나가도록 한다.
 - (1) 회원소모임 활성화
 - (2) 회원 만남의 날
 - (3) 회원확대사업
 - (4) 회원의 분석과 관리
 - (5) 신입회원교육
 - (6) 회원한마당
- 2) 회지발행팀 (팀장:홍승희, 팀원: 장정화, 장성순, 박수신, 김현희)
평화이슈, 일상에서의 평화만들기, 국제평화운동 소식, 등을 담아 연 2회 회지를 발간하여 회원과 단체에 발송하도록 한다.
 - (1) 회의: 발행기획과 평가를 위해 연 4회 정도 개최한다.
 - (2) 자료와 정보로서의 가치
 - (3) 회원 상호간의 소식

3) 재정사업팀 (팀장: 최선희)

- (1) 재정사업은 평화여성회 전체사업으로 가져가되, 주무부서를 확인참여센터로 한다.
- (2) 연 1회의 후원행사를 진행한다.
- (3) 재정확보를 위한 사업을 발굴 진행한다.

4. 2006년 사업내용

1) 회지팀 기획회의(팀장: 홍승희 팀원: 김현희, 박수선, 장정화, 최선희)

- (1) 일시: 2006년 4월 4일(화) 17:00~19:00 (2) 장소: 평화여성회
- (3) 참가명단: 김숙인, 홍승희(팀장), 장정화, 김현희, 김선영
- (4) 회의내용: 회지발간 논의 등

2) 월례평화마당

- (1) 2월 월례평화마당: "전략적 유연성, 어떻게 볼 것인가?"
가. 일시: 2월21일(화) 17:00~19:00 나. 장소: 평화여성회 교육장
다. 강사: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라. 참가: 약 25여명 내외
- (2) 3월 월례평화마당: "인도적 대북지원을 비롯한 대한적십자사의 주요 활동소개와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제언"
가. 일시: 3월30일(화) 17:00~19:00 나. 장소: 평화여성회 교육장
다. 강사: 이김현숙 (현 한국적십자사 부총재, 전 평화여성회 이사장)
라. 참가: 회원 약 20여명 참가
- (3) 5월 월례평화마당: "한미 FTA 대응과 전망"
가. 일시: 5월4일(목) 17:00~19:00 나. 장소: 평화여성회 교육장
다. 강사: 권경애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라. 참가: 회원 약 20여명 참가
- (4) 6월 월례평화마당: "615이후 남북관계 정세전망"
가. 일시: 6월29일(목) 17:00~19:00 나. 장소: 평화여성회 교육장
다. 강사: 김광수(통일맞이 정책국장)
라. 참가: 회원 약 20여명 참가
- (5) 8월 월례평화마당: "여성의 눈으로, 이스라엘-레바논 사태를 읽다"
가. 일시: 8월24일(목) 15:00~17:00 나.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배움터
다. 강사: 홍미정(한국외국어대 연구교수)
라. 참가: 회원 20여명 참가

(6) 9월 월례평화마당 : “911이후 미국사회 변화와 여성평화운동”

가. 일시 : 9월14일(목) 17:00-19:00 나. 장소 : 덕제대학교 학술지원센터

다. 강사 : 킨커프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평화 네트워크 멤버)

라. 참가 : 회원 외 약 35명 참가

(7) 10월 월례평화마당 : “북한 핵실험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 일시 : 10월14일(목) 17:00-21:00 나. 장소 : 평화여성회 교육장

다. 발제 및 강의 : 김장수(통일맞이 정책국장)

라. 토론 : 한반도 핵실험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

토론자: 정경란 (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마. 참가 : 회원 약 25명 참가

(8) 평가

가. 성과

가) 올해 시작된 월례평화마당을 통해 적극적인 회원관리 및 회원교육이 진행되었다. 올해 7회 월례평화마당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업이 안정화 되어 2007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각 월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를 찾아서 회원들과 함께 현 정세를 이해하고 여성평화운동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 평화여성회가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평화운동 소식을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회원으로서의 정치감을 높여 회원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라) 강의 후 회원들이 가져온 기증품을 함께 나누고 이에 대한 수익금은 여성평화운동기금으로 적립하였다.

나. 과제

가) 월례평화마당 참석자중 많은 회원들이 이후 계속되는 월례평화마당의 참여율이 높았지만 참여인원이 제한적이었다. 향후 월례평화마당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하여 내용공유를 확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나) 회원뿐 아니라 잠재적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 유도하여 회원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회원들과 함께 하는 평화농활 참여

가. 일시 : 4월 8일(토)

나. 장소 : 평택 대추리 황새울

다. 참석 : 김숙영, 김정수, 김현희, 김혜진, 김신재, 문명녀, 오영주, 정경란, 조영희, 황순영

라. 평가 : 회원들로 하여금 평택 미군기지확장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게 하고 평화의 평화를 위해 주민들과 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4) 2006년 신입회원 (36명)

(1) 신입회원 명단

강운경, 김미경, 김성금, 김신자, 김신희, 김영지, 김정숙, 김지선, 김창순, 박상희, 박인숙, 박향선, 신효숙, 심정원, 안경호, 안재웅, 안현정, 원용호, 윤선훈, 이기연, 이명숙, 이성숙, 이수연, 이명옥, 이정희, 이종민, 이종희, 정인숙, 정희, 정현미, 조태원, 주신희, 최영일, 최정수, 최홍식, 홍영표

(2) 평화서포터즈 가입명단 (3명)

최은순 (변호사), 윤미화(군화재 보수기술자), 남은신(의상 디자이너)

(3) 평가

가. 성과

가) 약 40여명이 신입회원 및 평화서포터즈로 가입하였다.

나) 신입회원의 분포도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과제

가) 전체회원 600여명 가운데 회원회비 납부회원이 약 240여명 내외로 약 40%에 머물고 있다. 회원회비 미납회원들로 하여금 회비를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 보다 체계적인 회원관리를 위해서는 후원회원과 일반회원 등으로 회원구분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회원들에 대한 직업, 연령, 성별, 관심사, 활동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갈등해결강사훈련드레이닝 등 교육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원가입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원확대를 위해 평화여성회가 진행하는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 회원가입을 위해 평화여성회를 소개할만한 작은 브로셔가 제정상 어려움으로 제작되지 못하였다. 아울러 회원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브로셔에는 평화여성회의 비전과 정체성과 여성평화운동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5) 재정사업

(1) 한과판대

가. 일정 : 2006년 2월

나. 평가

가) 성과

선을 앞두고 회원들과 몇몇 개인이 한과를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어서 평화여성회의 운영비 재정마련에 있어서 약간의 보탬이 되었다.

나) 과제

한과 배달은 택배 등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직접 차를 몰고 갔다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한과 이외의 다른 아이탬으로도 재정마련
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2) 평화여성회 열 번째 프로젝트 “우리, 평화를 노래하자-”

가. 일시: 2006년 12월 8일(금) 오후7시 나. 장소 : 만해 NGO교육센터 대교육장
다. 프로그램 내용 및 순서

사회자 : 여혜숙(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청소년교육팀장)

이재영(평화여성회 갈등해결 강사, 한국아나벨티스센터 강사)

제 1부 : 평화의 단찬

제 2부 : 본행사 - 평화의 인사 및 축하, 2006년 평화여성회 활동소개 영상상영
작은 열린음악회 “우리, 평화를 노래하자 -”

부처송/피리연주/기타, 제즈피아노, 노래/아카펠라 “라벨라”

라. 시업평가 (성과 및 과제)

가) 티켓판매

(가) 애초 계획한 티켓판매 목표액에 많이 못 미쳤다. 그만큼 티켓판매의 어려
움을 반증한다. 티켓판매에 대한 업무분담과 실행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
로 할 필요가 있다.

(나) 향후 후원의 밤 행사시 수익을 보다 많이 창출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재정에 있어서 후원의 밤 행사의 수익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기 보다는 최
원화대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마련이 이루어 져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티켓판매를 위한 티켓판매 전략이 필요하다.

(다) 행사 프로그램 진행비에는 여년과 달리 저예산으로 알차게 한 덕분에 수
익을 올리는데 노력을 함께 기울였다.

나) 장소관련 (장소 • 데코레이션 • 음향 • 조명)

(가) 약 100여명의 규모의 아담한 곳에서 후원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후원행사의
파도함과 종이공예로 벽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내
었다.

(나) 음향의 경우 마이크가 부족하여 아카펠라의 공연에 어려움이 많았다. 만해
NGO교육센터 대교육장이 세미나를 위한 공간이라 공연을 할 경우, 음향
시설이 부족한 장소였다.

다) 행사 프로그램

행사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간결하면서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유명 연예
인이나 저명인사에 의존하지 않고 활동가가 연주하는 피리, 회원들의 부처송,
평화를 노래하는 대학생들, 지역의 놀이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예술인들

과 함께 하는 공연은 후원의 밤 행사를 돋보이게 하였으며 참가자들의 호응 또한 매우 좋았다.

라) 자원봉사 조직

무대장식보조, 자리배치, 안내, 바자회 물품판매 등 여러명의 자원활동가들과 회원들의 협조로 후원행사가 손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마) 바자회 물품

대접공예장식, 도서, 옷, 가방, 장신구 등 여러 회원들의 자발적 기증으로 후원행사의 재정마련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며 또한 참여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즐거운 장마당이 되었다.

4. 총평

올해 회원참여센터의 주요사업도표가 회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키워나가고 회원 조직을 활성화였다. 이를 위해 율령평화마당을 통해 회원들에게 평화와 관련된 현 이슈에 대한 정세흐름을 이해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회원들과 함께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를 모색하는 등 회원으로서의 참여와 소속감을 높여나갔다. 평화여성회가 실무인력 부족과 여타 많은 실무업무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회원사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율령평화마당을 올해 7회 진행하며 정착화 시켜 나간 것은 회원참여센터의 커다란 사업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활발한 회원소모임을 창출하거나 평화여성회 소식지가 발행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신 평화여성회가 회원들에게 여성평화 웹진을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연말에 평화여성회가 발행한 자료집을 보내었다.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확대가 있을 때 조직은 안정화뿐 아니라 운동의 내용을 확산해 갈 수 있다. 회원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여 회원참여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높여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5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심영희)

1. 사업기조 - 방향과 목표

국내 여성평화 운동을 주도하는 평화여성회의 Think-Tank로서 활동 정책개발과 기초 이론 생산 활동에 주력하며, 연구활동이 광범위한 영향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특히 올해에는 평화여성회의 중요 이슈 관련 해당부서와 결합하여 실용적인 정책개발에 힘쓰도록 한다.

- 1) 여성 평화·통일 운동의 이론 정립과 확산을 위한 연구 활동 전개
- 2) 평화여성회의 중요 이슈 관련, 해당부서와 결합하여 실용적인 정책개발에 노력 경주
- 3)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진행 (3월부터 격주로)
- 4) 여성 평화, 통일 전문 연구 인력 양성, 확보 인력 풀 구성

2. 사업계획

- 1) 여성과 평화 5호 발간
- 2) 한국여성평화운동사 발간 마무리 (한국여성재단 프로젝트)
- 3)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평화세미나 진행
- 4) 정기 이사회 개최
- 5) 여성 평화·통일 운동의 정책생산을 위한 연구 활동 전개

3. 조직

이사장 : 김윤옥

원 장 : 심영희 (한양대 사회학 교수)

이 사 : 강남식 (성공회대, 한국여성연구소장)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 교수)

김현미 (연세대 사회학 교수)

안 진 (광주신학대 사회복지학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

이소희 (한양여대 영문학 교수)

이정옥 (대구효성가톨릭대 사회학 교수)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 교수)

연구원 : 김열리, 박한선, 안정애, 임윤택, 윤덕희, 이화진, 최기자, 황은주

4. 사업내용

- 1) 한국여성평화운동사 발간 및 판매, 홍보 활동

5. 총평

평화여성회는 올해 초 작년에 수행한 『한국여성평화운동사』를 발간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여성평화운동을 통일운동, 남북여성교류, 반군사주의, 여성인권, 국제연대, 평화교육 등으로 나누어 분야별·시기별로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여성평화운동사』는 지난 30여년 동안의 한국 여성평화운동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한국여성운동사에 중요한 기초 자료적 성격의 사료를 남겼다. 아울러, 평화여성회의 지난 10년 동안의 활동을 포함시킴으로써 본회의 지금까지의 운동을 평가하고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올 한해 한국여성평화운동연구원은 이러한 성과에 대한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노력을 기울여 여성평화활동가, 관련전문가, 일반인들에게 『한국여성평화운동사』의 내용을 알려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여성과 평화 5호> 발행 등 여성주의 평화운동을 위한 달콤 생선은 연구자 그를 조직화의 한계, 실무적 지원 미비 등으로 수립한 계획에 비해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2-7 정보사업

1. 사업기조 - 방향과 목표

평화운동은 인터넷을 검색하는 작은 일부부터 시작하여, 현장에서의 감시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노력을 요구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비폭력적인 평화문화 형성과 실천을 위하여 대중적인 생활지침들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평화문화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대중친화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평화로운 실천을 생활화 하도록 한다.

따라서 정보 시민사회의 확대에 따른 사이버 평화운동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이버 평화운동의 영역은 사이버 공간의 활동을 심화함으로써 젊은 층의 관심을 확대시키고 회원활동을 촉진시킨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웹진(여성평화뉴스레터) 발행과 사이버 공간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 평화운동을 확산시킨다.

2. 사업계획

1) 평화문화 확산 온라인 캠페인

온라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일상 평화 센터의 평화문화 확산 캠페인, 한반도 센터의 반전 캠페인 등 오프라인의 평화활동을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온라인캠페인으로 진행한다. 단순한 온라인 활동으로의 전환 뿐만 아니라 온라인 평화운동의 영역을 개발, 구축하여 새로운 전형을 창출한다.

2) 홈페이지 리뉴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홈페이지를 리뉴얼 한다. 예시) 자료 접근성 향상, 자료 분류 체계화(수목 기준 수립과 양식 체계화), 자료 검색 시스템 제공,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

3) 홈페이지 방문자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과 시행

평화여성회 홈페이지 방문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체 접속자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증설한다. (회원 커뮤니티, 회원간 쪽지 주고 받기, 회원간 채팅기능, 회원 사진 올리기 등)

4) 자료 보존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

평화여성회 영향력 확대에 따른, 온라인 공격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 백업(월 1회)을 실시하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한다.

3. 사업내용

1) 주요 활동 (홈페이지)

01/06	갈등해결교안자료집
01/09	본도발딩 지도 만들기 정기총회 알림 팝업창과 메일링 만들기
01/11	한과 팝업창과 메일링 만들기
01/18	갈등해결과 평화 토론회 팝업창과 메일링 만들기
01/27	여성평화뉴스레터 발간
02/17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 트레이닝
03/17	여성평화운동사 팝업
03/24	인도적 대북지원술 비롯한 대한적십자의 주요활동소개와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조언(월례평화마당)
04/14	세대공감 & 평화리더되기 프로젝트
04/26	한미 FTA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04/27	여성평화뉴스레터 발간
05/13	여성평화뉴스레터 발간
05/17	이우정 평화상 팝업
05/22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06/26	여성평화뉴스레터 발간
08/18	여성과 평화의 눈으로 이스라엘-레바논 사태를 읽다
09/20	여성평화뉴스레터 발간
09/25	움직이는 여성통일학교
09/26	한가위 팝업창 및 메일링
10/18	북핵관련뉴스 페이지 완성
10/23	이우정평화상 페이지 완성
10/26	여성평화통일기행 금강산 팝업창 및 메일링
10/27	월례평화마당 "북한 핵실험이후 정세전망과 평화운동의 과제"
11/10	평화여성회 후원의 팝업 창
11/13	여성평화연구원 페이지 완성
11/29	평화여성회 링크 페이지 새로 완성
12/4	여성평화뉴스레터 발간
12/11	메인 페이지 이미지 업데이트
그 외	사진으로 보는 평화여성회와 언론에 비친 평화여성회 업데이트 진행

2) 센터별 팝업·메너/업데이트 게시 빈도

구분	형태	빈도	내용
공 통	팝업/메일링	5	평화여성회 후원회 팝업창 정기총회 일련창 한과 팝업창 근하신년 팝업창 한가위 팝업창
한반도평화센터	팝업/메일링	4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운동이는 여성통일학교 여성평화통일기행금강산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여성대표자 회의
갈등해결센터	팝업	4	갈등해결교안차로집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 트레이닝 갈등해결과 평화 도론회 세대공감 & 평화리더 프로젝트
회원참여센터	팝업/메일링	7	인도적 대북지원을 비롯한 대한적십자사의 주요활동 소개와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조언 전략적 유연성,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 FTA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6.15 민족대축전 이후 남북관계의 정세전망과 민 간통일운동의 방향 여성과 평화의 눈으로 이스라엘-레바논 사태를 읽다 9.11이후 미국사회의 변화와 여성평화운동 북한 핵실험이후 정세전망과 평화운동의 과제
국제협력위원회	팝업/메일링	2	일본평화헌법개정에 관한 긴급토론회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 여성 포럼
여성평화연구원	팝업/링크 페이지	2	여성평화운동사 팝업 여성평화연구원 페이지 만들기
이우정 평화상	팝업/메일링 /업데이트	1	이우정 평화상 팝업, 이우정평화상 페이지
연대사업	메너	1	9.24 평화대행진
계	팝업	24	
	메너	1	9.24 평화대행진
	업데이트	5	이우정 평화상, 북핵관련 뉴스 페이지, 여성평화 연구원, 링크 페이지, 메인 페이지 이미지

3) 여성평화뉴스레터 내용

여성평화뉴스레터 : http://www.peacewomen.or.kr/newsletter/200612/200612_main.html

월	목차	소재목	필자
1월	새해인사		김숙임 상임대표
	총회지상증거		오영주 간사
	2006년 사업계획		김정수 공동대표
	갈등토론회	학교폭력,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으로 해결하자	이현주 간사
	연대활동	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 소식	
4월	월례평화야당	인도적 대북지원을 비롯한 대한적십자사의 주요활동소개와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제언	김선량 간사
	여성평화운동사 출간	여성평화운동의 정체성 형성과 전망 제시	오영주 간사
	갈등해결과 평화	갈등해결과 평화 감사 트레이닝 심화과정	이현주 간사
	GPPAC	금강산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의 합성	정경란 소장
	청춘		사무엘 율만
	짧은소식 긴여운	38여성의남 기념행사 319 국제공동반전행동	오영주 간사
5월	평택미군기지 수용반대	평택의 평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김현희 사무국장
		대추리는 평화를 꿈꾼다	오영주 간사
		국방부의 대추초교 강제퇴거 규탄 여성단체 성명서	
		평택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인권 침해규탄 기자회견	
		종속적 한미 동맹과 평택기지 확장반대를 위한 여성단체 기자회견	
	각 센터 주요 사업	월례평화야당(한미FTA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갈등해결센터(평화강사 트레이닝 및 세대공감 프로젝트)	
	짧은소식 긴여운	정신대 수요집회 주관 가슴이 뒹뚱해지는 이야기	
6월	615공동선언발표와 6월 기념 민족통일 대축전	여성부문 행사	
		615남북여성연대모임 연설	김숙임 상임대표
		해내의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민족통일대축전 남북여성연대모임에	김현희 사무국장	

		참여하고서	
		사건으로 보는 민족통일 대숙전	
	갈등해결 센터	부모와 자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갈등해결 캠프	이현주 간사
	제2회 이우정 평화상		
	평화 심성품을 만나고서		문명녀 소장
7월	평택,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연평보도	
		사건으로 보는 세계여성의 날	
		성명서	
		국제연대사	
9월	원래 평화마당	911 사건 이후의 미국사회 여성과 평화의 눈으로 이스라엘 해방 사태를 읽다	
	갈등해결센터	청소년 평화리더십 캠프 개최	이현주 간사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정세입기와 여성의 대응	워크숍	
	UN 평화의 하루	기념행사 안내	
	평화단상	몸의 평화, 마음의 평화	여혜숙 팀장
	짧은 소식 긴 여운	923 반전행동, 924 평화대행진	
12월	평화여성회 후원의밤	후원의 밤 개최 알림	
	움직이는 여성통일학교	여성통일학교	오영주 간사
	여성평화통일기행	여성평화통일기행을 시작하며	정경란 소장
		평화통일기행을 다녀와서	김정아 회원
		사진 둘러보기	
	원래 평화포럼	자료집 발간	정경란 소장
	갈등해결센터	사회통합과 평화문화형성을 위한 조정 진행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이현주 간사
	평화단상	여성, 평화의 힘을 보고 싶다	정경란 소장
짧은 소식 긴 여운	한일공동행동 '일본의 평화헌법제약 중단 촉구'	오영주 간사	

※ 여성평화뉴스레터 게시 빈도

구분	형 태	빈도	내용
공 통	기사+사진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해인사 ○ 총회 지상증제 ○ 2006년 사업계획 ○ 몸의 평화 마음의 평화 ○ 여성, 평화의 힘을 보고 싶다 ○ 동아일보 왜곡보도 진상 ○ 후원의 밤 개최
한반도평화센터	기사+사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 평택미군기지 수용반대 ○ 615공동선언 발표와 6월 기념 민족통일 대추전 ○ 평택,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 북한 미사일발사이후 정세읽기와 여성의 대응 (워크숍) ○ 움직이는 여성통일학교 ○ 여성평화통일기행 금강산
갈등해결센터	기사+사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으로 해결하자 ○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 트레이닝 심화과정 ○ 평화강사 트레이닝 및 세대공간 프로젝트 ○ 부모와 자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갈등해결 캠프 ○ 청소년 평화리더십 캠프 ○ 사회통합과 평화문화형성을 위한 조정 진행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일상평화센터	기사+사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심성팀을 만나고서
회원참여센터	기사+사진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 대북지원을 비롯한 대한적십자사의 주요활동 소개와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제언 ○ 전략적 유연성,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 FTA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615 민족대추전 이후 남북관계의 정세전망과 민간통일운동의 방향 ○ 여성과 평화의 눈으로 이스라엘-레바논 사태를 읽다 ○ 911이후 미국사회의 변화와 여성평화운동 ○ 북한 핵실험이후 정세전망과 평화운동의 과제 ○ 월례평화마당 자료집 발간
국제협력위원회	기사+사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 여성 포럼 ○ GPPAC

			○ UN 평화의 하루 기념행사 안내 ○ 한일공동행동 '일본의 평화헌법개악 중단 촉구'
여성평화연 구원	기사+사진	1	○ 여성평화운동사
이우정 평화상	기사+사진	1	○ 제2회 이우정 평화상
연 대	기사+사진	5	○ 여성평화단체연합 정기총회 소식 ○ 38 여성외남 기념행사 / 319 국제공동반전행동 ○ 정신대 수요집회 주관 ○ 923 반전행동 / 924 평화대행진 ○ 대북수해지원상황 및 보고
기타	시	1	○ 청운

4. 평가

1) 성과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면서 효율성 있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방문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을 업데이트 하여서 콘텐츠의 내실을 보장하였으며, 여성평화뉴스레터를 7회 발간하여 평화여성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여성평화운동에 관한 정보를 사이버공간에서 신속하게 전달 확산하였다.

2) 과제

- (1) 인터넷을 통한 여성평화운동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여성평화운동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홈페이지의 활성화, 여성평화뉴스레터의 정기적인 발행은 그 기초 토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업데이트와 여성평화뉴스레터의 고정적인 필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어 시급한 노력이 필요하다.
- (2) 내실 있는 웹진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필진의 발굴과 중요 이슈 때 마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격월로 각 센터 소장, 연구원장 및 사무국장이 연석한 기획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필진을 선정하여 시의 적절하게 웹진을 발행하도록 한다.
- (3) 여성평화뉴스레터의 일부분을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포맷으로 하여 웹진을 받은 사람들이 사이트에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 (4) 웹진의 내용을 보고서 회원들이 소감을 적을 수 있도록 게시판을 추가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한다.

2-8 연대사업

1. 이우정평화상위원회

1) 참여 현황

(1) 집행위원장 : 김숙임 상임대표

(2) 실 무 : 김현화 사무국장

1) 활동일기

- 3/6(월) 17:00 이우정평화상위원회 운영위원회 (달개비)
3/20(월) 12:00 이우정평화상위원회 집행위원회 (인사동 촌)
5/10(수) 12:00 제 2회 이우정평화상위원회 심사위원 모임 이우정 평화상 수상자 심의 (뇌조한식당)
5/12(금) 12:00 이우정평화상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우정평화상 수상자 확정 (뇌조 한식당)
5/29(월) 11:00 고 이우정선생님 추모예배 광동식 추모의 집
5/30(화) 16:00 제2회 이우정평화상 시상식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6/19(월) 12:00 이우정평화상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우정평화상 2006년 행사평가 등 (달개비)

2) 사업내용

(1) 제 2회 이우정평화상 시상식

※ 수상자 :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가. 일시 : 2006년 5월30일(화) 오후 4시~6시

나. 장소 : 기독교백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

다. 프로그램 순서

1부 추모와 장연 (사회 윤수경)

평화를 위한 명상 : 평화심성팀

인사말 : 이훈우 (이우정평화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추모장연 : "여성평화운동의 시대적 의미와 역할"

(심영희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한양대 교수)

2부 시상식 (사회 로리주희)

선정경과 : 김은옥 (이우정평화상 심사위원장)

시 상 : 이훈우 (이우정평화상 운영위원장)

축 사 : 이석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수상소감 : 최정민 수상자(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축 가 : 달은 이

축하의 율동 : 다같이

광 고 :
평화의 식탁 :

3) 평가

(1) 성과

- 가. 최정민 후보를 심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제2회 이우정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군사주의로 인해 오랫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운동과 대체복무제운동 등에 대해 파가운 시선을 받으며 참으로 힘든 밑바닥 운동을 꾸준히 해온 노력을 공적으로 인정하며 격려하였다.
- 나. 이우정평화상 초대장 및 행사장 분위기와 테크레이션 및 평화영상 등 전체적인 행사 분위기가 차분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으로 참가자들에게 편안하고 이우정평화상의 축하의 의미가 잘 담아내었다.
- 다. 제 2회 이우정평화상 시상식에 여성평화활동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약 70여명이 참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및 대체복무제 운동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였으며 언론 등을 통해 최정민 수상자가 갖는 의미 등을 언론사와 함께 공유하여 이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효과를 낳았다.

(2) 과제

- 가. 여성평화운동가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취지로 제정된 이우정평화상은 향후 후보자에 대한 인력풀이 작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승은 여성평화활동가들을 찾아내고 발굴하여 이상의 취지에 맞게 수상자 대상이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총평

양심적 병역거부활동을 지원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위해 활동한 최정민선생을 제2회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하고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이우정평화상의 의미를 드높이는 한 해가 되었다. 이러한 시상활동은 한국사회에 소수자의 인권, 군 인권과 군복무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도 범안 제정활동에 힘이 될 것이다. 이우정평화상은 고 이우정 본회의 이사장님을 추모하고 그 분의 뜻을 기려 여성평화운동가를 격려함으로써 여성평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평화여성회가 이우정평화상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맡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정신을 이어가는 역할을 감내하는 것은 여성평화운동과 평화여성회의 정신적 자산을 형성하는 일로서 중요하다.

2. 한국여성단체연합

1) 참여 현황

- (1) 여성연합 이사회/임원회/정책위원회 - 김정수 공동대표
- (2) 여성연합 사무국장 연석회의 - 김현희 사무국장
- (3) 여성연합 통일평화위원회 - 김정수 공동대표(위원장으로 참여), 김현희 사무국장

2) 활동내용

평화여성회는 여성연합 회원단체로서 통일평화위원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사회, 임원회, 정책위원회, 여성미래센터 설립준비위원회, 사무국장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2006년 여성연합 통일평화위원회는 2번의 회의와 6.15 공군위여성본부활동(남북여성교류), 북한 수재피해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여성연합 통일평화위원회는 통일과 평화, 핵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진 회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의 이슈에 대한 여성주의 통일평화운동의 목소리를 시민사회에 드러내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여성회는 여성연합 통일평화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여성주의 평화통일운동의 단편과 정책개발, 평화감수성이 기초한 통일평화교육과 대중 활동 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는 여성통일운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전국여성연대 조직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여성연합의 통일평화운동에 있어 여성주의 및 비핵평화주의와 긴밀하게 결합된 갈등해결 관점에서의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3.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파병반대 관련 활동 등

1) 참여 현황

- (1) 공동대표단 - 김정수
- (2) 공동운영위원장단 - 김숙임
- (3) 기획단 - 김현희

2) 활동일지

- | | |
|---------------|-----------------------------------|
| 3/ 3(금) 14:00 | 3.8 여성대회 반전평화 거리선전전, 을지로입구역 |
| 3/19(일) 15:00 | 이라크 침략3년규탄 3.19 국제공동반전행동, 서울역 |
| 8/19(토) 15:00 |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미국의 개입' 반전토론회, 서울보 |

증보형3층

9/19(화) 11:00	과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 회의, 참여연대의의실
9/23(토) 15:00	9.23 반전행동, 서울역광장
11/14(화) 11:00	과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 회의, 참여연대
11/24(금) 12:00	CODE PINK, 신디시엔과 반전평화 여성활동가들과 점심.
11/23(목) 13:00	재미협의회와 과병반대국민행동, 미 대사관 및 청와대 앞 반전 기자회견
11/23(목) 19:30	신디시엔 방한 강연회 "반전업무 신디시엔이 들려주는 이라크 전쟁과 내아들 캐시 시엔" 향린교회
11/ 2(목) 19:30	2006 반전평화연대의 밤, 용산철도세당울

3) 총평

이라크과병반대연대활동을 통해 평화여성회는 과병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모아내어 과병반대여론형성에 기여하였다. 평화여성회의 제한된 역량 가운데에서도 이라크과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의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연대사업을 진행할 때 평화여성회의 제한된 역량을 고려하면서 여성성화운동의 정책생산과 관련한 고민이 요구된다.

4.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한미동맹 및 평택미군기지확장 대응활동 등

1) 활동일지

1/23(월) 11:00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 반대기자회견 (청와대)
2/ 1(수) 11:00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 대응활동 논의 (참여연대)
2/17(금) 09:00	한미동맹 대응활동 논의 (참여연대)
2/24(금) 08:30	한미동맹 대응활동 논의 (느티나무카페)
3/9(목) 11:00	한미동맹 대응 기자회견 (서종문화회관 옆 계단)
3/17(금) 10:00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정부는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평택 미군기지확장 및 강제토지수용을 중단하라" (정부종합청사)
3/24(금) 19:00	한미동맹 재연관련 대응논의를 위한 활동가워크샵 (서울여성플라자)
3/25(토) 12:00	한미동맹 대응을 위한 한반도평화센터 대책 임시회의
3/29(수) 11:30	한미동맹 대응 회의 (참여연대)
3/29(수) 11:30	한미동맹 대응 회의 (참여연대)
3/31(금) 14:00	평택미군기지 이전 및 한미동맹의 문제와 관련한 국회대응모임 (민주노총 2층)

- 3/31(금) 16:00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대위 회의 (민주노총)
- 4/ 6(목) 09:00 평택미군기지 이전 및 한미동맹의 문제와 관련한 국회대응모임 (참여연대)
- 4/12(수) 09:00 평택미군기지 이전&한미동맹 관련 국회대응모임 (참여연대)
- 4/12(수) 10:00 시민사회단체 한미동맹 대응 회의 (참여연대)
- 4/23(일) 17:00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41차 집행위원회 회의 (대추리)
- 4/23(일) 18:30 주민총출발600일 기념문화제 (대추분교)
- 5/3(수)-5/4(목)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집회 (대추분교)
- 5/13(토) 19:00 국방부장관 퇴진! 군부대 철수! 평화농사 실현 범국민 촛불문화제 (평화문)
- 9/11(일) 10:00 평택범대위의 평택 강제철거 반대 기자회견 (국방부 앞)
- 9/13(수) 19:00 강제 주택철거 규탄 촛불문화제 (국방부 앞)
- 9/15(금) 16:00 평택범대위 57차 집행위 (민주노총회의실)
- 9/24(일) 15:00 평택평화를 위한 4차 평화대행진 (시청광장)

2) 평가

제한된 역량에도 불구하고 평화여성회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반대운동에 기자회견, 집회, 회의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종속적 한미동맹과 주민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평택 기지 확장을 반대하고 저지하는데 여성들의 힘을 모아 여성단체를 대표해서 내용생산을 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아울러 회원들에게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갖는 문제점을 알려내어 집회, 평화농활에 참여하여 평택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적은 실무인력으로 긴급한 사안에 대응하다 보니 정책의제화를 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평택범대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언론에서 평화여성회에 대한 악의적 왜곡 보도 등으로 평화여성회의 명예훼손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5.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1) 활동일지 <615남측위원회>

- 2/15(수) 15:00 615 남측위 결성 1주년 기념식
(명동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장)
- 4/18(화) 14:00 집행위원회 (통일교육협의회)
- 4/28(수) 14:00 집행간부 워크샵 (서울유스호스텔)
- 6/5(일) 15:00 집행위원회 (통일교육협의회)

- 6/8(목) 14:00 공동대표자회의 (기록교회관)
- 6/9(금) 19:00 615남측위원회 청학본부 후원회 (서울대동창회관)
- 7/10(일) 09:00 6.15 시민분과 모임 (참여연대)
- 7/15(토) 13:30 집행위원회, 6.15 축전 평가 (종일교육협의회)
- 10/11(수) 13:00 615남측위원회 제 13차 집행위원회 (민족문화작가회의 회의실)
- 12/8(금) 11:00 민족공동행사백서발간출판기념회 (세종호텔 4층 해금강홀)
- 12/8(금) 13:00 총회준비위원회 1차 모임 (세종호텔)

2) 사업내용

(1) 615민족통일대축전

- 가. 대회기조 :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6.15공동선언 실현하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합 이룩하자
- 나. 행사명 : 6.15공동선언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약칭:615민족통일대축전)
- 다. 일 시 : 2006년 6월 14일(수) ~ 6월 17일(토), 3박 4일
- 라. 장 소 : 광주.전남 (숙소 : 북측-무등산파크, 해치측-프라도호텔)
- 마. 주 최 :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주관 : 6.15민족통일대축전행사위원회)
- 바. 프로그램

구분	일정	내용	비 고
6월 14일 (수)	11시	광주공항 도착	북측대표단 도착
	14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5.18 국립묘지
	16시30분~ 17시30분	남측대표단오리엔테이션	광주영주체육관 (광주월드컵경기장옆)
	19시	개막식 및 개막축하공연	광주월드컵경기장
	21시30분	6.15민족통일대축전 환영연회	김대중컨벤션센터
6월 15일 (목)	10시	6.15공동선언실천민족통일대회	광주종합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1시30분	6.15공동선언실천 6주년기념 남북합동미술전시회 관람	광주문화예술회관
	15시~ 16시30분	남북여성부문상봉모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9시	6.15공동선언발표 6주년기념 남측축하공연	남측공연(난타, 점프, 국악고, 대중 가수 등)
	20시	6.15공동선언발표 6주년기념 북측축하공연	북측공연(통일음악단-천자악단, 통일노래)
21시30분	6.15공동선언발표 6주년기념 축하연회	김대중컨벤션센터	

6월 16일 (금)	10시	체육오락경기	광주염주체육관
	14시-15시 30분	관련행사	전남지역
	19시30분	폐막식 및 6.15공동선언발표 6 주년기념 축하공연	전남도청
6월 17일 (토)	9시-12시	관련행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등
	16시	북측대표단 출국	광주공항

6.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1) 참여현황

- (1) 공동대표 - 김숙임 상임대표
- (2) 집행위원장 - 정경란 소장
- (3) 집행위원 - 김현희 사무국장

2) 활동내용 : 한반도평화센터 사업보고 참조

7.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 참여현황

- (1) 공동의장단 회의 - 김숙임 상임대표
- (2) 여성위원회, 집행위원회, 상임의장단 회의 - 김정수 공동대표

2) 활동내용

평화여성회는 2006년 민화협 여성위원회의 공동대표의 1인으로, 여성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상임의장단 회의에 비석 등 참여해왔다.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의 1인으로서의 참여는 평화여성회 공동대표가 여성연합의 대표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위원회에서는 2006년 3회의 회의와 2회의 상임의장 초청토론회(경서현 대표 상임의장, 정현백 상임의장)를 가졌다. 지난 해 7월 이후 북한에 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민화협은 미사일시험발사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남측의 민간 차원의 수해지원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여성위원회 역시 수해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민화협 여성위원회는 지난해 북측 민화위 여성위원회와 공동사업으로 북의 어린이에 대한 사랑생선 설비자재 및 원료 제공에 대한 공동사업을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김정수 위원장은 개성(5월)과 평양(9월)에서의 실무협상에 참여하였다.

민화협 여성위원회는 진보와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여성통일운동의 목소

리를 담고 있으며, 평화여성회는 여성연합으로 대변되는 진보여성의 통일운동의 목소리를 민화협 여성위원회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민화협 여성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진보성 보다는 중도 및 보수여성단체가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다양한 성격의 여성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아울러서 여성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8.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1) 참여현황

공동대표 - 김숙임 상임대표

2) 활동일정

1월20일 집행위원회 연대 루스체플회의실 2006년 사업계획 공유

2월28일 집행위원회 참여연대사무실 대인지뢰피해자보상법 제정활동 계획 검토

5월12일 집행위원회 참여연대사무실 대인지뢰피해자보상법안 및 역할분담 검토

12월1일 집행위원회 연대 루스체플 회의실 대인지뢰피해자보상법안 활동 평가 및 점검

3) 활동의 성과와 후속전망

대인지뢰피해자보상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국회를 주 대상으로 활동하였다. 국방부의 반대, 피해자들의 노화로 인한 사망 등 현실과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공유하였다. 이에 '보상'이란 표현이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한다면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수정 및 보완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 시 법안 통과는 여러 가지 요건상 어려워 내년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 참여현황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1인 및 실무자 1인

(2) 활동내용 : 수요시위 2회 주관, 대표자회의 참석 등

2)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1) 참여현황

건립추진위원장 - 심영희 공동대표

(2) 활동내용 : 박물관 부지 마련 관련 활동 및 박물관 건립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등

10. 통일교육협의회

- 1) 참여현황
이사 - 심영희 공동대표
- 2) 활동내용 : 통일교육협의회 이사회 참여

11. 국제연대 활동

1. GPPAC

1) 활동일지

- 1/17(화) 9:30 GPPAC 동북아 코디네이터와 간담회 (참여연대)
- 3/29(수) 16:00 GPPAC한국위모임 (참여연대)
- 4/13(금) 15:00 한국여성재단지원 새날기금 결과프로젝트 보고
- 4/18(수) 10:00 GPPAC 한국위모임 (평화여성회)
- 6/18(일) 12:00 APSC 사무총장, 제임스랭리(APSC 동아시아담당) 와의 만남 (그랜드 힐튼호텔)
- 6/19(월) 15:00 평화활동가 워크샵을 위한 준비회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 8/18(금) 13:00 GPPAC 동북아 코디네이터 요시요카와의 만남
- 8/18(금) 15:00 평화단체 워크샵 준비모임 (평화박물관)
- 10/10(화) 15:00 GPPAC 동북아 6자 한일공동행동(11월3일)을 위한 기획회의 (평화여성회)
- 10/19(목)~10/24(화) 대만평화회의 참석 및 발표, 주최 : 대만 NGO연합회
- 10/20(금) 15:00 GPPAC동북아 6자 한일공동행동(11월3일)을 위한 기획회의 (평화여성회)
- 11/3(금) 11:00 기자회견 "일본평화헌법 공포 60주년 기념 일본군사대국화와 일본 평화헌법 개정 반대 한일공동행동" (일본대사관 앞)
- 11/3(금) 14:00 토론회 북한핵실험이후 동북아평화를 위한 한일시민사회의 과제 (청어람)
- 11/22(수) 14:00 11.3 공동행동 평가회 (달개비)

2) 사업내용

- (1) GPPAC 활동 (담당: 정경란 GPPAC 서울 포커포인트)

가. GPPAC 동북아시아지역발의단체 피스보트 대표와 간담회

- 가) 일시 : 2005년 1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나)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
다) 내용 : 금강산 GPPAC 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 논의 라) 참가자 : 정경란

나. GPPAC 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

가) 금강산 회의

- (가) 일시와 장소 : 3월 1일 고성, 2일-4일 금강산, 5일 서울
(나) 참가자 : 심영희, 정경란
(다) 내용 :

서울, 베이징, 홍콩, 상하이, 타이페이, 도쿄, 교토,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톡 등에서 시민단체 활동가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하였으며, 이들은 3일 동안의 집중토론을 통해 동북아 행동의제 이행을 위한 2006-2010 행동계획을 만들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주요 현안인 한반도 핵위기와 6자회담, 일본 평화헌법 9조, 핵무기 없는 동북아 등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온라인 동북아 평화구축포럼 개설 등이 회의의 초점이 되었다. 이 회의는 한반도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는 금강산에서 개최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참가자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나) 라운드테이블 회의

- (가) 일시 : 3월 6일(월) 10시 (나) 장소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회의실
(다) 참가자 : 심영희, 정경란
(라) 내용 :

서울에서 채택된 공동성명과 2006-2010 행동계획이 발표되었으며, GPPAC 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Regional Consultative) 참가자들과 동북아 국가의 한국 주재 대사관 관계자 평화·인권·환경·여성관련 재단 관계자 등이 만나 동북아 지역의 평화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토론되고, 언론에도 공개되었다.

다) 청와대, 동북아시아시대위원회 방문

- (가) 일시 : 3월 6일(월) 2시(청와대), 4시(동북아시아시대위원회)
(나) 장소 : 청와대 회의실, 동북아시아시대위원회 회의실
(다) 참가자 : 정경란
(라) 내용 :

GPPAC 회의 참가자인 베이징, 홍콩, 상하이, 타이페이, 도쿄, 교토,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톡 등에서 시민단체 활동가와 학계 전문가들 국내 포컬포인트가 참여하여 서울에서 채택된 공동성명과 2006-2010 행동

계획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참여를 요청했다.

라) GPAC 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 북핵실험 관련 성명서 발표

10월 13일 GPACC 동북아네트워크에서 북핵실험을 비판하고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안보리이사국에게 보내졌다.

(2) 평화여성회 활동 영문 번역 및 국제사회에 소개

가. 7월 27일 개최한 여성단체 워크샵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정세 위기과 여성의 대응>에서 발표한 성명서 영문 번역 및 국제사회 소개-Women and Life,에 실림, 국제사회에서 관심 표명

나. 10월 10일 평화여성회 북핵실험규탄 성명서 영문 번역 및 국제사회 소개-일본 신일본여성회의 소식지에 번역되어 실렸음

(3) 일본평화헌법 공포 60주년 기념 "일본군사대국화와 일본평화헌법 개정 반대 한일공동행동"

가. 기자회견

가) 일시 : 2006년 11월 3일 11시 나) 장소 : 일본대사관 앞

다) 프로그램

사회: 평화여성회 정경란

경과보고: 평화여성회

발안: 한국측, 일본측 각각 1인

성명서 낭독: 한국측(평화박물관김철수진위원회), 일본측 1인

성명서 일본대사관에 전달

나. 토론회 "북핵실험이후 동북아평화를 위한 한일시민사회의 과제"

가) 일시 : 2006년 11월 3일(금) 오후 2시-6시 나) 장소 : 청어람

다) 프로그램

사회: 김정수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발표

일본: 아베총리이후 일본과 동북아평화-아키라 가와사키(피스보트)

한국: 북핵실험이후 한일시민사회의 과제-김창수(통일맞이 정책실장)

토론자

일본: 노부요 후지나가(오사카시민네트)

한국: 이기호(평화포럼 사무총장)

라) 11월3일 한일공동행동 한국위원회와 일본위원회 참가단체

* 11월3일 한일공동행동 한국위원회: 무장갈등예방 한국위원회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Korea), 비폭력평화물결,

KYC,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국아나뎀티스센터,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장준하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아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홍사단, 독도수호대

- ※ 11월 3일 한일공동행동 일본위원회: 무장갈등예방 일본위원회 (GPPAC JAPAN), 국제헌법9조쟁취인, 피스보트, 전오사카 노동조합 총연합, 오사카 교직원 조합, 오사카시민네트, 일본국제법률가협회, 청년법률가협회헌법위원회, 아스쿠니위헌소송모교연호단

3) 총평

- (1)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관련하여 GPPAC동북아시아 지역협의회를 금강산과 서울에서 개최하여 동북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에게 한반도 분단의 현실과 평화의 염원을 알려줄 수 있었다.
- (2) GPPAC 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 이후 리운드테이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및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통해 동북아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달하는 등 한국 정책결정자에게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했다.
- (3)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비판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성명서를 국제사회에 알려 한반도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 (4)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한일 공동행동을 추진해 평화적 생존권 보장 및 동북아 평화 추구,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의지를 모으고 관련 정부에게 한일 시민사회의 뜻을 알렸다.
- (5) 국제연대 담당간사가 없이 센터 소장이 주로 하는 등 국제연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국제연대를 하므로 국제연대 활동은 최소한 정도에서 머물렀다. 국제연대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의 정립이 필요하다.

2.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SAFE)

참석자 : 김엘리, 김혜진, 김현희
회의: 총 4번 (1.6, 4.4, 6.22, 12.26)

1) 사업내용

- (1) 평화를 이야기하는 영어야당
-매주 금요일 7시-9시 (7월-9월)

- 장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주제: 군사주의, 여성평화운동, 에코페미니즘 등
- 참석자: 7명

(2) 권 초청 강연회

가. 평화여성회 월례평화포럼

-9월 14일 목요일 6시-9시

-장소: 비채빌딩 1층

-주제: 911이후 여성평화운동

나. 성공회대학교 인권과 평화 강의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제목: 필리핀, 오키나와, 한국의 여성, 군사주의, 평화

다. 북송아 체험과 영어로 하는 생애이야기

-9월 23일, 토요일, 10시-3시

-장소: 용인시 학원리 과수원

(3) 공감과 비전 : 예술로 풀어내는 여성들의 평화이야기

-9월 26일, 화요일 7시-9시

-장소: 평화박물관 space+

-공동주최: 평화박물관

-참석자: 20명

2-9 기타활동

1. 동아일보의 왜곡보도에 따른 언론대응활동

1) 활동일지

- 7/13(목) 동아일보 1, 3면, 사실에 본회 명예훼손 기사 보도
7/13(목) 18:00 대책회의 (참석 : 김정수, 정경란, 조영희, 김현희)
7/14(금) 반박보도문 각 언론사에 발송
7/26(수) 동아일보 건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8/3(목) 10:00 동아일보 건 언론중재위 조정심리, 언론중재위원회
8/10(목) 10:00 동아일보 건 언론중재위 최종 조정심리, 언론중재위
8/14(월) 동아일보 2면에 평화여성회의 반론보도문 게재
8/18(금) 한겨레신문 기고 왜냐면 "여성 평화운동에 대한 수구언론의 폭력"
(김현희)
8/29(화) 12:00 언론중재관련 자문 건 감사차, 이정희 변호사님과의 만남
(역삼동 식당)

2) 활동내용

- (1) 내용 : 지난 7월13일자 <동아일보>는 1-3면 기사와 사실에서 평화여성회를 10여 차례 거론하며 "행정자치부 공익사업 보조금, 신청단계 인사가 지극결정",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폭력 시위를 벌인 범대위에 참여했던 단체가 평화문화를 명분으로 돈을 받은 것이 눈길을 끈다", "미사일 발사 관망단체에 세금 퍼주는 정부", "진북반미 폭력시위 단체" 등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과 선정적 제목으로 도배질을 함. 같은날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서도 일부의 내용이 기사화되었고, 지난 6월7일에도 평택범대위에 소속된 평화여성회를 비롯한 네 단체를 거론하며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함.
- (2) 대응활동 : 동아일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평화여성회는 이정희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두 차례의 조정 끝에 8월14일 동아일보 2면에 박스기사로 반론보도문 실음.

※ 박스기사내용 (8월14일자 동아일보 2면의 박스기사)

평화여성회 반론 : 본보 7월13일자 '범대위 단체에 최고점, 정부보조금 받게 해줘' 기사 및 사진 등의 보도와 관련해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행정부의 공익 선정사업 평가에서 특권위원의 평가와 관련없이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평택 범대위

소속이긴 하지만 비폭력평화행사를 진행했고 북한 비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와 평화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친북반미폭력시위단체가 이념을 밝히 왔습니다. (참조 : 반박보도문 > 부록 참조)

3. 사업별 활동일지

○ 이사회

1/12(목) 18:00 1차 이사회

○ 운영위원회

1/23(월) 15:00 1차 운영위원회의

2/13(월) 15:00 2차 운영위원회의

3/20(월) 15:00 3차 운영위원회

4/17(월) 15:00 4차 운영위원회

6/19(일) 17:00 5차 운영위원회

7/12(수) 13:00 6차 운영위원회

9/11(월) 17:00 7차 운영위원회

11/13(월) 18:00 8차 운영위원회

○ 남북관계 개선활동

3/15(수) 경의선 동해선 도로 출입시설 준공

4/13(목) 09:30 남북관계 발전과 사회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모색

4/21(금) 07:20 교육지원 및 남북공동 나무심기행사 (개성)

5/10(수) 13:30 통일과정에 관한 토론, 평화포럼, 그랜드힐튼호텔

6/20(화) 15:00 남북관계기본발전계획 워크샵 토론참여 (통일연구원)

6/13(화) 16:00 615관련제분분야 토론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8/8(화) 10:00 대북인도적 지원 재개를 위한 시민·여성·평화·대북지

원단체 기자회견 (뉴국제호텔)

8/16(목) 민화협 북한 수제민품기 긴급구호품 출항 (인천항)

○ 북핵대응활동

10/18(수) 09:00 북핵실험 이후 향후 대응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 참
여연대 2층

11/ 1(수) 09:00 북핵관련 후속간담회, 참여연대 강당

11/ 2(목)	10:00	북핵실험과 한국 평화운동의 과제, 희망포럼
11/ 6(월)	14:00	북핵실험이후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실무모임, 참여연대
○ 토론회 및 교육포럼 참석		
4/ 5(수)	07:30	통일부장관과의 조찬*북핵문제의 극복과 남북관계의 전망*, 홀리데이인 서울 호텔 2층
5/ 3(수)	16:00	민화협 여성위원회 토론회 : 2006년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정서 - 정세현 상임의장 (배재학술지원센터)
6/21(수)-6/23(금)		시민운동가를 위한 정보통신교육, 대전 KT인제개발원
7/20(목)	10:00	민화협 정책간담회 '미사일 정국 이후 위기의 남북관계, 그 해법은?'
8/10(목)	14:0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국가 심포지엄 (배재대학술지원센터)
8/23(수)	14:00	민화협 통일포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역사박물관 강당)
9/6(수)	14:00	민화협 여성위원회 토론회 : 정현택 상임의장에게 듣는다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민주화 운동기념사업 교육장)
9/13(수)	14:00	통일여성아카데미 '북한이 걸어온 길', 김근식 (북한대학원대학교)
11/3(금)-11/4(토)		통일교육협의회 2006 회원단체 워크숍 (청심정소년수련원 청아캠프)
○ 기타 연대사업		
3/ 5(일)		20주기 3.8 여성대회 (이화여대)
3/15(수)	12:00	700차 정기수요시위 참석 (일본대사관)
4/19(수)	10:30	한미FTA반대 각계인사선언 (미대사관 근처 열린공원)
4/19(수)	10:30	한미FTA 졸속 추진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반대하는 419인 시국선언 (세종문화회관 일)
4/22(토)	09:00	평화박물관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주관
5/3(수)	12:00	707차 수요시위 주관 (일본대사관 앞)
6/1(목)	17:00	여성환경연대 후원의밤 (윤보선 생가)
6/1(목)	18:30	한국성폭력상담소 15주년 기념 후원의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6/9(금)	18:30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후원회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6/16(금)-6/17(토)		한미관계의 미래와 시민사회의 과제,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 (미 대사관)
6/28(수)	11:00	여성미래센터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식 (한국인문재단 20층 프레스클럽)
7/5(수)	10:00	여성미래센터 회의 (63빌딩 지하1층 커피숍)
7/5(수)	11:00	제11회 여성주간 기념식 및 세미나, 주최 : 여성가족부, 전 이현숙 대표 국민훈장 수상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 2층)
7/6(목)	18:30	민화협 후원의 날 (서종훈 대연회장)
7/25(화)	08:00	여성평화의집 이사회 회의, 여성미래센터 건 (한국여성단체연합)
8/9(수)	12:00	8.9 세계연대집회, 721차 수요시위 (일본대사관 앞)
8/18(금)	20:00	강원용 목사 소원 여성추도예배 (서울대병원장례식장)
8/19(토)	19:00	평화네트워크 후원의 밤 (하이칼라스 호프집)
8/24(목)	12:00	여성미래센터 입주단체 1차 회의 (여성연합2층 회의실)
9/12(화)	18:00	세계 평화의 하루 기념 평화콘서트 준비모임 (개혁자사무실)
9/20(수)	10:00	평화활동가 워크숍 전체준비회의 (참여연대의회의실)
10/19(목)	18:30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의 밤 (조계사 앞마당)
11/4(토)	14:00	한국 아나벨티스트센터 창립5주년 기념행사 (유네스코 10층)
11/8(수)	19:00	우리민족서도모시기 후원의밤 (63빌딩 2층 국제회의실)
11/9(목)	11:00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개소식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사무실)
11/14(화)	19:00	거레하나 후원의 밤 (백범기념관 컨벤션홀)
12/5(화)	11:00	서미숙 장로 교단 부총회장 당선 축하예배 (기장 아카데미하우스 새벽의집)
12/6(수)	18:30	한국여성재단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후원행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2/12(화)	18:30	좋은빛들 10주년 기념감사와 후원의 밤 (백범기념관 컨벤션홀)

○ 사무국장 연석회의

- 6/19(목) 10:30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사무국장 연석회의 (여성단체연합)
 8/30(수)-9/ 1(금) 전국사무국장 연석회의 수련회 (강원도 철원, 양구, 봉평일대)
 10/24(화) 11:00 여연사무국장 연석회의(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희망터')

○ 교육장의

- 4/ 7(금) 13:00 남북사회문화교류와 여성발전방향, 민주평통 여성위원회, 민주평통 강당 (김숙임)
 4/20(목) 19:00 여성과 평화 강의, 기독교청년아카데미주최, 기독교청년아카데미사무실 (김현희)
 5/26(금) 19:00 경희NGO대학원 평화여성회 약 9명 탐방, 평화여성회 (김현희)
 6/13(화) 14:00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평화인권강의,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강당 (김숙임)
 6/23(금) 11:30 남북여성교류와 여성들의 통일과제, 교육복지연구원, 의정부경기청사 (김숙임)
 6/26(월) 15:00 남북여성교류와 여성통일과제, 경남민주평통여성위원회, 경남산청 삼성연수원 (김숙임)
 8/16(목) 15:00 평화여성회에 관한 미국방송(Radio Beyond Borders)인터뷰, 평화여성회 (김정수)
 8/17(금) 동국대생과의 인터뷰, 평화여성회 (김정수)
 9/13(수) 10:00 강남중학교 평화여성회 방문, 갈등해결센터 평화교육 진행 (여혜숙, 이덕경)
 9/20(수) 14:00 북한대학원대학교, 여성통일아카데미 "남북여성교류와 평화통일" 강연 (정경란)
 10/28(토) 10:00 생명평화통일학교 강의"분단의 땅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을", 이름다운 마을학교 수련실 (정경란)

○ 워크숍과 포럼 토론

- 4/11(화) 13:40 한국평화 NGO의 진로와 방향모색, 통일연구원 NGO포럼 (정경란)
 7/26(수) 10:00 평화네트워크 토론회 "평화세계 구축",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정경란)
 7/28(금) 16:00 기독교인사회운동과 관련한 좌담회 토론 (김현희)

11/2(목)	10:00	"북핵실험이후 평화운동의 과제", 참여연대 주최 토론회, 희망포럼(정경란)
11/4(토)	10:00	비판사회학대회 주제 "한국의 냉전문화 극복과 시민사회의 평화운동",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정경란)
11/13(월)	14:00	학술심포지엄 "2006 한국인권논의의 지평과 전망", 프레스센터 19층 (김정수)
11/13(월)	16:00	인권운동사랑방 토론회 "핵의 평화적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인권연구소 사무실(정경란)
11/24(금)-25(토)		"한국사회의 통합적 비전, 평화녹색국가를 생각한다", 평화재단 주최, 집중토론 1. 토론참석 "바람과물연구소" (정경란)

○ 정부관련활동

6/30(금)	11:00	민주평통 주관 시민사회단체 대표 초청간담회, 타워호텔 프린스홀
9/1(금)	11:00	근의문사건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
9/27(수)	14:00	경찰청 인권센터 운영위원 발족식
10/12(목)	10:00	국경원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10/18(수)	11:00	여성연합 임원진과 한명숙총리와의 간담회, 총리관저

2006년도 사업계획안

- I. 2007년 사업방향
- II. 2007년 사업계획안
- III. 월별사업계획

2007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업계획안

I. 사업방향

여성들의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의 미래 펼쳐나가자!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2007년도 사업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1.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비전 비전 구상하기

1997년 3월 창립된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는 2007년 올해 10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평화여성회는 여성의 관점으로 통일, 군축, 반전, 탈군사화, 평화적 감동해결, 평화교육과 평화문화 확산, 여성주의 평화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여왔다. 이는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평화로운 삶을 만들고 확산시키기 위한 여성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10년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잠시 호흡을 고를 때가 되었다. 전문적인 여성평화운동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평화여성회는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해왔고, 빠른 성장과 함께 외부로부터 많은 주목과 기대를 모아왔다. 지금은 그동안의 활동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평화여성회가 어떤 비전과 내용으로 운동을 전개할지 함께 논의해야할 절절한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2007년도는 현재까지 전개하여온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다음의 내용에 주력하려고 한다.

첫째, 평화여성회의 내실을 다지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는다.

둘째, 평화여성회가 펼칠 운동의 성격과 방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모색한다.

셋째, 평화여성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한다.

2. 여성평화운동의 역량 강화하기

평화여성회는 2007년도에도 여성평화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고자 한다. 그동안 여성평화운동은 여성운동 내에서 이루어진 이슈와는 사뭇 다른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경험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생활의 문제나 여성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과 부당하는 인권의 문제와는 다른 지점에서 이루어져왔다. 주로 정치적 이슈 파이팅이거나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변호하는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다보니 많은 여성들이 여성평화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게 되었다. 여성의 일상적 삶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여성들이 주체가 되기에는 운동의 내용이 다소 전문적이거나 추상적인 면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07년도는 다양한 여성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려고 한다. 동시에 여성들의 전문적인 활동력을 향상하는 사업에 계속 중점을 두고자 한다. 몇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성격을 모색한다.

여성평화운동에서 '여성'이 누구인가(주체), 여성주의와 평화주의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지향),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이젠다)를 모색하는 활동을 한다. 이는 정책 논의, 연구 활동, 다양한 모임과 포럼 등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다.

둘째, 각 센터들과 연구원의 사업을 통하여 여성들의 참여를 넓히고 강화한다.

각 센터와 연구원의 행사와 모임, 그리고 연대활동에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들이 신나게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연령과 취향에 따라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개한다. 또한 여성들의 일상적 삶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비폭력 평화운동의 주제와 내용을 개발하고 대중적으로 확산시킨다.

셋째, 여성지도력과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한반도평화센터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축과 평화과정에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통일정책논의와 여성6자회담에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성전문가모임과 네트워크를 개발한다. 갈등해결센터는 여성 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여성전문가를 양성한다. 일상평화센터는 일상의 삶에서 비폭력 평화문화를 창조하고, 실천하는 여성의 능력을 고양시킨다. 회원참여센터는 여성들의 활동력을 높이는 다양한 장과 회원들 간의 긴밀한 관계성을 지속시키는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여성주의 평화연구에 관한 지식생산과 연구발표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여성연구자의 층을 보다 넓게 만든다. 또한 국내외 평화활동가와 여성활동가들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전문적인 여성 활동력을 높인다.

3. 변화하는 국내의 정세에 대응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만들기에 힘쓰기

2007년도는 대선을 향한 활발한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해이다. 또한 북미사이에 이루어지는 긴장의 고도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평화 분위기가 과우되리라고 본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를 형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뿐만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아시아의 군사화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관련된 논쟁은 국내의 왜곡된 이념 논쟁을 과장시킬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여성회는 다음에 주력하려고 한다.

첫째, 관련 정부들과 실행자들에게 화해와 공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해결을 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둘째, 한국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여성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제안한다.

셋째, 평화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성들을 조직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가시화시킨다.

넷째,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여성들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강화한다.

II. 사업계획안

2-1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정경관)

1. 사업방향

2007년은 2006년 북미 관계의 악화 속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유엔 대북 제재 등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악화되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대선을 맞아 현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와 신임 정부에 대한 제안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제재가 지속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따라서 북한핵문제 해결과 한반도평화체제 형성 및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정책논의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여성의 논의를 강화한다. 셋째, 동북아 지역의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와 협력을 추구한다. 넷째,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여성들의 입장을 제안함으로써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을 정부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활동한다.

2. 사업목표

-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한국여성의 입장을 정리한다.
- 2) 남북여성교류사업을 지속, 강화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에 기여한다.
- 3) 여성 6자회담 실현을 위해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4) 현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며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의 입장을 제안한다.
- 5) 한반도평화센터의 논의 및 조직력을 강화한다.

3. 사업계획

-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여성의 입장 정립
 - (1)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 관련 논의 활성화 및 여성입장 정립

가. 자문 모임 및 여성전문가 모임/ 내부 논의 활성화/ 여성일자리 정립
나.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여성의 논리 및 로드맵 개발을 위
한 토대 마련

(2) 5.24 세계여성 군축의 날 행사

2) 남북여성과 화해 및 협력

- (1) 6.15 여성분부 활동 지속 및 정책논의 활성화
- (2) 여성의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한 내부 모임 강화

3) '2008 여성 6자회담 실현을 위한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 도대 구축

-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한국여성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알린다.
- (2) GTPAC 동북아지역회의 참가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 관련 협조요청 및 정보 수집
- (3) 여성 6자회담 상사를 위한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 형성 추진
가. 기존 여성평화 국제네트워크 정보 확인/ 국내네트워크와 병행
나. 여성 6자회담 관련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방문하여 여성단체 및 관
계자를 만나 여성의 입장을 전달한다.
다.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기쁨을 다진다.
- (4) 국제연대 역량 강화

4) 현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제안서 작성

5) 한반도평화센터 모임 정례화

2-2 갈등해결센터

(소장 : 박수선)

1. 사업목표

- 1) 평화적 갈등해결 전문 조직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 2) 갈등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 3)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4) 갈등해결센터의 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회원 확보에 힘쓴다.
- 5) 사회갈등 예방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 기반을 넓힌다.
- 6) 평화적 갈등해결 영역에서 일하는 평화활동가들과의 연대 형성에 노력한다.

2. 조직

- 1) 운영위원회 : 갈등해결센터 사업 전반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의사결정구조
 - (1) 당면적 운영위원(센터장 박수선, 팀장 여혜숙(청소년교육팀), 박재근(사회갈등분석팀), 본부 사무국장 김현희)
 - (2) 일반 운영위원(김학묵, 박인혜, 이재영, 조영희, 박홍나미(서기), 이덕경, 김선혜)
- 2) 연구원 모임 : 장사트레이닝, 사회갈등조정연구 등 논의 및 사업 진행
김학묵, 이재영, 조영희
- 3) 청소년교육팀 : 청소년 교육 관련 사업 논의 및 진행
여혜숙(팀장), 이덕경(서기), 김선혜, 김영진, 김지선, 박정옥, 박인혜, 박홍나미, 안향숙, 이성옥, 이현주, 유정은, 조영희
- 4) 사회갈등분석팀 : 사회갈등 분석 및 갈등해결 관련 학습 및 사업
김선혜, 김영진, 김재근, 박재근, 박홍나미, 이덕경, 이항진, 이현주, 조영희, 박수선
- 5) 월례회 : 센터 회원 모두 참여하는 소통의 장, 회원 스스로 진행하는 교육의 장
매월 1회(셋째주 화요일) 센터 전체 회원 참여 모임

※ 조직운영의 기본 방향

- 갈등해결센터의 회원은 평화적 갈등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평화의성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갈등해결센터의 회원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팀을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다.
- 갈등해결센터는 관심영역에 따라 청소년교육, 사회갈등분석 등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제기되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과제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갈등해결센터의 각 팀장은 팀의 성원을 관리하고 운영과 사업을 총괄한다.
- 갈등해결센터는 정기적인(격월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갈등해결센터의 사업전반을 논의, 결정한다.
-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는 소장 및 각 팀장, 본부 사무책임자 등의 당면적 운영위원과 각 팀별 1인을 포함하는 일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 갈등해결센터는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월례회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공유 및 재교육 등을 수행한다.
-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1년 3회 이상 월례회 등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요 사업

1) 대상별 주요 교육 사업

(1)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

다양한 물로의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을 기획, 진행한다.

(2) 지역 NGO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 조정 훈련

지역활동, 사회활동의 중심이 된 지역 중심으로 NGO활동가 및 여론주도층 대상으로 갈등의 평화적 해결, 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3)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평화 교육

가. 초중고생 대상 갈등해결교육을 확대한다.

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대상, 기간, 내용, 방식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나) 움직이는 '갈등해결과 평화' 학교 운영

다) 움직이는 학교 형식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라) 공부방, 방과후교실 교육

마) 학교별 심화반으로 '청소년 평화지킴이(가칭)' 훈련 프로그램 개발

(가) 청소년평화리더십캠프 운영: 연중 정기 캠프 개최. 기초와 심화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나) 학부모 교육

(다) 기타 : 간부수련회, 수련관, 일반인 대상, 다양한 리더십 등을 모색한다.

(4) 대학생 갈등해결과 평화 캠프

가. 청년회원 및 평화활동가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5) 가족갈등을 주제로 한 교육 및 활동

가. 부모자녀캠프, 예비부부, 신혼부부 대상 교육프로그램, 엄마이바킴프 등 대상별, 세대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나. 가족구성원 간 갈등에 대해 연구 분석 및 대화 프로그램을 개발 모색한다.

(가족갈등소모임 구성 등)

2)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운영

(1) '갈등해결과 평화' 기본과정

가. 기초단계

가) 평화적 갈등해결의 이론 및 방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2차 3일 워크숍 진행)

나) 내용 : 전체 교육프로그램 소개, Community Building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에 대한 기초적 개념,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프로그램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본다.(평화, 갈등해결교육의 의미 및 현재와 미래,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중재, 창조적 문제풀기, 대화, 의사소통 등)

다) 기초단계는 분기별로 진행한다.

나. 심화단계

가) 기초에서 전반적인 틀에 대해 이해한 것을 각 부분마다 심화 학습 및 훈련

나) 주 2회 3시간씩 10강과, 총 30시간

다) 내용 :

- 1차 갈등해결의 법, 제도 이해
- 2차 갈등의 원인 분석의 여러 방법
- 3차 갈등해결의 방법-합리적 의사결정 방법
- 4차 기본적 기술인 의사소통기법1 - 듣기와 말하기
- 5차 기본적 기술인 의사소통기법2 -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 실습
- 6차 분노조절
- 7차 편견 다루기
- 8차 갈등해결의 방법-협상의 원칙과 방법
- 9차 갈등해결의 방법-조정
- 10차 관계의 회복/화해와 치유

(2) '갈등해결과 평화' 전문가 과정

가. 강사 트레이닝(제5기) 과정

가) 강좌 내용 및 방식 : 실습으로 진행, 약 42시간

나) 참여 자격 : 기본과정 수료자

다) 내용 : 청소년 대상의 진행자로서 진행 실습 및 평가, 교안 만들기, 참관 실습

- 1차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 2차 갈등해결교육 진행 방법론
- 3차 어린이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 디자인과 진행방법
- 4차, 5차 참관 수업
- 6차 ~9차 수업 교안 만들기, 시연
- 10차 평가 및 전망 및 수료식

○ 교육 이수 후, 응직어는 '갈등해결과 평화학교' 강사, 학교 현장의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갈등해결 교육 전문강사로 출강하도록 한다.

나. 조정전문가(mediator) 훈련과정

- 가) 강좌 내용 및 방식 : 실습으로 진행, 약 42시간
- 나) 참여 자격 : 기본과정 수료자
- 다) 내용 : 개인간 갈등, 공공갈등 조정 실습

다. 진행전문가(Facilitator) 훈련과정

- 가) 강좌 내용 및 방식 : 실습으로 진행, 약 42시간
- 나) 참여 자격 : 기본과정 수료자
- 다) 내용 : 회의진행, 의사결정, 문제해결워크숍 진행 기술과 방법 훈련

3) 평화적 갈등해결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 (1) 각 프로그램별 자료 정리, 소책자 발간: 그간 진행되었던 교육사업 및 내용들을 자료화하여 소책자를 발간한다. 내용적인 홍보, 선전의 역할과 함께 재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분야별 소책자 발간계획-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 청소년교육 매뉴얼, 갈등해결기초 등등)
- (2) 영상자료 개발: 효과적 교육을 위해 영상을 이용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
- (3) 교육과정 및 활동을 정리한 센터 소개 브로셔 제작.

4) 제도적 접근을 위한 사업

- (1) 학교내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제도화 노력
- (2) 국내외 청소년 평화문화 소개 및 교류

5) 프로그램 연구, 개발

- (1) 청소년교육 관련 교안 연구
 - 가. 초/중/고 대상별 세분화된 교안을 마련하고 청소년교안집을 정식출간
 - 나. 교구개발 : 워크북, 동영상, 교제도구
 - 다. 프로그램 개발
 - 라. 평가척도 연구
 - 마. 내부교재 : 교육방법론, 시나리오, 워크쉬트 등
- (2) 사회갈등사례 연구
 - 가. 갈등사례 발굴, 심층 분석(과제로 진행)
 - 나. 갈등해결센터 교육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사회갈등사례 시나리오 작입
 - 다. 기 개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칙단체별 체크포인트 또는 문제요인 정리
 - 라. 웹진, 홈페이지 등에 사회갈등사례 분석내용 소개 및 갈등관련 서적 서평실기
 - 마. 외부 기관의 논문 공모에 응모(1월 KDI 등)

- (3) 통일교육 및 한반도 평화형성을 위한 과제에 갈등해결 적 관점과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조직 강화 및 확대

- (1) 그간 교육참가자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

- (2) 회원 재교육/월례회

월례회의 질적 강화, 외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 진행자들의 재교육과 훈련 확대 지원

- (3) 전문강사를 형성과 강화

청소년교육전문 아니라 일반 주부 대상, 공무원 대상 등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풀을 형성하고, 각 대상별 교육 내용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함

7) 갈등해결을 위한 직접적 개입 활동

- (1) 3자 역할로서 실제적인 갈등 상황에 3자로 개입할 수 있는 방식과 모델을 연구, 시범적으로 적용한다.(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조정, 사회갈등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접근 모색)

8) 국제연대

국제비폭력평화시력(Nonviolent Peace Force International), 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NVC) 등 갈등예방, 해결 관련 국제단체와의 연대

3. 월별 사업일정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회의	운영위원회(적월1회), 청소년교육팀(월1회), 사회갈등분석팀(월2회), 월례회(월1회)	←											
	학교 교육 홍보물 제작, 브로셔 제작	←	→										
2. 홍보	분야별 소재자 발간	←	→										
	홍보 및 심의(연중, 각 학기 초여 집중)	←	→			←	→						
3. 교육 프로그램 진행	학교 연강교육			←	→								
	순직이신 '갈등해결과 평화' 학교	←	→										
	청소년 리더십 캠프							←	→				
	갈등해결 기본교육과정			←	→								

	제5기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								←	→					
	조정전문가훈련과정								←	→					
	진행전문가훈련과정										←	→			
	NGO 활동가 대상 갈등조정훈련	←	—	—	—	—	—	—	—	—	—	—	—	—	→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	←	—	—	—	—	—	—	—	—	—	—	—	—	→
	대학생 캠프									←	→				
4. 프로그램	청소년대상교안, 교구, 평가척도, 내 연구 및 개발	←	—	—	—	—	—	—	—	—	—	—	—	—	→
사업	무교재 프로그램 개발 사회갈등사례 연구	←	—	—	—	—	—	—	—	—	—	—	—	—	→
5. 기타															

2-3 일상평화센터

(소장 : 김정수)

1. 사업목표

- 1) 회원들의 역량이 맞춰 평화심성, 평화문화에 관한 학습을 진행한다.
- 2) 문화적 측면에서 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한다.
- 3) 학습, 탐방, 명상, 캠페인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일상평화 실천을 모색한다.

2. 사업내용

- 1) 평화심성팀 (팀원 : 김신자, 김현숙, 김현진, 문명녀, 장정화, 황순영 등)
 - (1) 월례모임 : 월 1회 시기별 + 주제별로 요청되는 것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 (2) 평화학습
 - (3) 평화탐방
 - (4) 평화명상
 - (5) 평화캠페인
- 2) 여성평화 아카데미

24 회원참여센터

(소장 :)

1. 사업방향

회원의 지속적 참여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개발한다.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킨다.

2. 사업목표

- 1)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부심을 키워준다.
- 2)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한다.
- 3) 회원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4) 평화여성회의 활동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내고 회원들의 소식을 담아낸다.

3. 사업내용

1) 회원사업팀

(1) 월례평화마당

- 가. 매월 1회 정례모임을 통해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 나. 현 단계의 평화이슈를 공유하여 회원들의 정세인식을 높이고 평화운동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를 도출해낸다.

2) 회지발행팀 (팀장 : 홍승희, 팀원 : 강정화, 박수선, 김현희 등)

- (1) 평화이슈, 일상에서의 평화만들기, 국제평화운동 소식, 등을 담아 연 2회 회지를 발간하여 회원과 단체에 발송하도록 한다.
 - 가. 회의 : 발행기획과 평가를 위해 연 4회 정도 개최한다.
 - 나. 자료와 정보로서의 가치
 - 다. 회원 상호간의 소식 및 정보공유

2-5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

1. 사업방향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그동안 정기적인 책을 발행하고, 통일, 평화교육, 여성평화운동사 등 프로젝트별 연구 활동을 통하여 여성적 입장에서 평화관련 연구를 활성화시켜왔다. 또한 평화이슈와 관련한 여성연구자들을 발굴하고 그 영역을 넓혀왔다고 볼 수 있다. 2007년도 역시 이러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2007년도는 평화 연구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연구원들이 자율적으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는 운영조직과 모임을 구성한다.

둘째, 정기적인 세미나 또는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는 학술분위기를 조성한다.

셋째, 평화관련 연구과제들을 명료화하고 심화시킨다. 그래서 여성주의 평화이론과 여성주의 평화운동 아젠다를 생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2. 사업목표

1) 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 (1) 평화관련 여성연구자들의 네트워킹 구성
- (2) 정기적인 모임

2) 평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활동

- (1) 평화 이슈와 관련한 여성주의 이론 생산
- (2) 여성주의 평화운동을 위한 지식 생산
- (3)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의 주요 활동을 지원하고 구체화하는 정책과 이론 개발

3. 사업내용

- 1) 여성과 평화 5호 발행
- 2) 정기적인 평화세미나 진행
- 3) 공개강좌 개최
- 4) 여성평화활동가와 연구자를 재생산하는 환경 만들기 - 모임구성과 지속적 논의

2-6 정보사업

1. 사업목표

평화운동은 인터넷을 검색하는 작은 일부부터 시작하여, 현장에서의 감시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노력을 요구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비폭력적인 평화문화 형성과 실천을 위하여 대중적인 생활지침들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평화문화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대중친화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평화로운 실천을 생활화 하도록 한다.

따라서 정보 시민사회의 확대에 따른 사이버 평화운동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이버 평화운동의 영역은 사이버 공간의 활동을 심화함으로써 젊은 층의 관심을 확대시키고 회원활동을 촉진시킨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웹진(여성평화뉴스레터) 발행과 사이버 공간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 1) 비폭력 평화문화 실천을 위한 생활지침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
- 2) 젊은 층의 관심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이버 평화운동의 영역을 개발, 보급한다.
- 3) 웹진 (여성평화뉴스레터) 발행 등을 통해 사이버 평화운동을 확산시킨다.

2. 사업계획

1) 내실 있는 웹진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필진의 발굴과 중요 이슈 때마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격월로 각 센터 소장, 연구원장 및 사무국장이 연석한 기획회의를 통하여 신도 있는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필진을 선정하여 시의적절하게 웹진을 발행하도록 한다.

2) 여성평화뉴스레터의 일부분을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포맷으로 하여 웹진을 받은 사람들이 사이트에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3) 웹진의 내용을 보고서 회원들이 소감을 적을 수 있도록 게시판을 추가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한다.

4) 회원의 참여 확대와 평화여성회의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안의 공간을 증설하고 UCC(User Created Contents) 이벤트를 시도한다.

5) 해커들의 온라인 공격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 백업(월 1회)을 실시하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한다.

2-7 특별사업

1.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사업

(위원장 : 김정수)

1) 조직

위원장 : 김정수

위원 : 이사진, 공동대표, 각 센터 소장, 회원대표, 외부 전문가, 사무국 등으로 구성

2) 사업목표

(1) 평화여성회의 지난 10년에 활동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평가한다.

(2) 향후 10년의 발전전망과 방향성을 모색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망을 모색한다.

3) 사업내용

(1) 10주년 기념행사

가. 일정 : 9월 초순 경

나. 프로그램

가) 평화여성회의 10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물 상영

나) 평화여성회의 향후 10년 비전 발표

다) 감사패/공로패 증정

(2) 학술포론회

(3) 자료집 발간

가. 평화여성회의 10년간의 영역별에 따른 활동보고 (사진자료 포함)

나. 기타

2.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

3. 여성미래센터 건립기금 조성사업(여성연합 등과 공동추진)

3. 월별사업계획표

사업일	사업분야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반도 평화 센터	615실천여성본부 활동	총회준비 및 총회				행사		행사					
	여성6자회담 네트워크형성	준비도입 및 준비활동			각 6개국 방문			평가					
	광화문제형성 및 미제개발/모임계획화	정착활동											
강동북동 센터	동일위고안보정세 평가서 및 제안서 작성	준비					제안서 작성 및 제출						
	4차 광화문성종현	일정 미정											
	여성문화이카데미	준비		행사			준비			행사			
강동북동 센터	광화문포럼스 회	사 안 별											
	고사 대상교육	연중											
	지역NGO대상교육	연중											
	장소년, 대학생 대상교육	준비				행사			평가				
	가족살롱관련 교육회	연중											
	강동북동과 평화(기초/심화)	일정 미정											
	강동북동과 평화선봉자과정(5기 강사트레이닝, 초중/고등 전문훈련 등)	준비			진행								
	홍보 선전활동	연중											
일상평화 센터	평화모임	연중											
	각 수요임(평화활방, 편제인, 평화영상 등)	연중											
	여성문화이카데미	일정 미정											
희망집어 센터	수식지발간	준비		발간			준비			발간		행사	
	회원수모임	연중											
	평화평화이달	연중											
	회원관리 및 회원확대	연중											
한국여성 평화 연구원	여성과평화 3호	준비					발간						
	평화 세미나	연중											
정보사업 연대	공개강좌 개최	연중											
	월간 발행, 온라인 평화평론인	준비											
10주년기념사업	평화통일관람 연대, 기획	연중											
	기념행사, 후원행사, 학술토론회, 영상물, 자료집 발간 등	연중							기념행사		평가		평가

임원선출 및 보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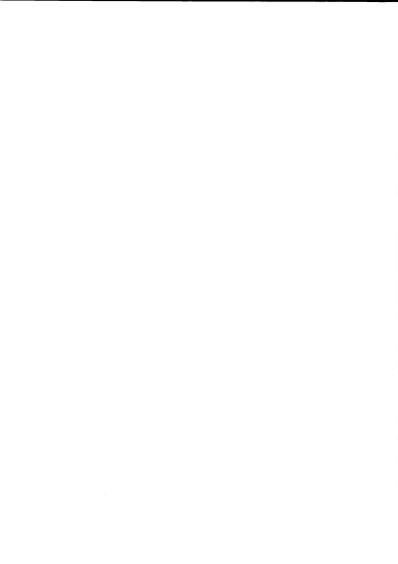
임원선출 및 보고(안)

직책	2006년도 평화여성회 임원명단		2007년도 평화여성회 임원명단(안)		
이사	김은옥(이사장)		정현백(이사장)		
	김숙임		김경수		
	심영희		김엘리		
	김정수		조영희		
	강순원		김민정		
	김민정		김숙임		
	김선현		김지영		
	김준목		박순성		
	김지영		박유희		
	박순성		심영희		
	박유희		윤덕희		
	윤덕희		한정숙		
	정현백		함인희		
	한정숙				
함인희					
공동대표	김숙임		김경수		
	심영희		김엘리		
	김정수		조영희		
운영 위원	당연직	김숙임 공동대표		김경수 공동대표	
		심영희 공동대표		김엘리 공동대표	
		김정수 공동대표		조영희 공동대표	
	일반직	한반도평화센터	정경란 소장	한반도평화센터	정경란 소장
		갈등해결센터	박수선 소장	갈등해결센터	박수선 소장
		일상평화센터	김정수 소장	일상평화센터	김정수 소장
		회원참여센터		회원참여센터	조영희 소장
		여성평화연구원	심영희 공동대표	여성평화연구원	
		문명녀, 여혜숙, 장정화, 홍승희		문명녀, 여혜숙, 장정화, 홍승희	
감사	사업감사	이정희	사업감사	이정희	
	회계감사	한국염	회계감사	한국염	
회계	안수경		안수경		
서기	조영희		여혜숙		

사무국	사무국장	김현희	사무국장	김현희
	교육간사	이현주	교육간사	
	정보간사	오영주	정보간사	오영주
	회계, 총무간사	김선달	회계, 총무간사	김선달

부 록

- ■ 정관 및 운영규정
- ■ 조직구성표
- ■ 성명서
- ■ 평화여성회 발간자료 목록
- ■ 신문기사 모음



정관 및 운영규정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편의를 위해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②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서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적 관점과 평화적 관점을 본 대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통일평화사업: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통일을 위한 제반활동
2. 통일·평화교육사업: 통일·평화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
3. 통일·평화연구사업: 통일과 평화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국내외 연대활동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국내의 개인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가입)

1.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본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2.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3인 내외
2.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
3. 감사 2인
4. 사무총장 1인, 사무총장은 당연직 임원이 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은 공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공천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1번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4.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도위원은 전임대표들로 구성하고, 본 회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공동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이 중 1인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으며 본 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또한, 공동대표중 1인은 병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와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견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6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①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총회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④ 감사사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7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 채택과 개정

3.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증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 결정,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주요한 사항 의결

제19조(총회의 의결)

1. 총회 구성 및 의결은 총회 참석자로 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

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공동대표와 이사들로 구성하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2조(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일년에 두 번하고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이사회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6.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발의
6. 재산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9. 회원의 제명
10. 결원이 된 임원의 선임
11. 기타 대표가 부의 하는 사항

제 6 장 제 정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며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재정수입)

1.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징수입으로 한다.
2.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8조(세입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하도록 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1조(사무처) 본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2조(구성 등)

1. 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되, 사무처장은 대표단이 추천하여 이 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2.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33조(정관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법인재산)

1.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한다.

제35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규정) 본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7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동 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통일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2001. 1. 28 4차 개정
 2002. 1. 25 5차 개정
 2003. 1. 28 6차 개정
 2004. 1. 9 7차 개정

운영규정

제1조(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본회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가 있다.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센터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센터위원, 위원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으로 구성하고 사부처는 배석 가능하다. 행정기관인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원장도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총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2.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3. 직무 :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요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4. 소집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5.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조직) 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반도평화센터, 일상평화센터, 갈등해결센터, 회원참여센터, 국제협력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며,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을 둔다.

1. 구성 : 센터에는 1명의 소장, 각 사업 팀장과 약간명의 위원을 둔다.
2. 직무 : 각 센터 소장과 팀장은 각 센터와 팀을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관장 및 집행을 한다.
3. 선출 : 각 센터소장 및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을 통해 대표가 위촉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4. 운영 : 각 센터(위원회)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운영규칙은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본회는 본회 활동에 관한 자문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위촉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활동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위촉한다.

1999. 3. 4 1차 개정

2000. 1. 25 2차 개정

2002. 1. 25 3차 개정

2004. 1. 9 4차 개정

갈등해결센터 운영규칙

제1조(운영위원회) 본회 운영규정에 따라 갈등해결센터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가 있다.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센터의 장, 센터 내 팀장, 본회 사무처장)과 일반 운영위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센터의 장기 회의를 주재한다.

일반 운영위원은 본회 갈등해결센터 사업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 2인 추천과 재적위원 1/3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2.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직무 : 운영위는 총회에서 결의된 센터의 주요사업과 일상의 업무를 권장하고 집행한다.

센터 운영위원 중 2인은 본부 운영위원으로 본부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운영위는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의 책임을 갖는다.

4. 소집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5.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조직)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제에 따른 상설적인 팀과 임시 활동을 위한 팀을 둘 수 있다.

1. 구성 : 팀은 3인 이상의 회원의 구성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팀 구성 결의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고, 팀장은 호선한다.

2. 직무 : 팀장은 팀원의 지향과 과제에 맞는 다양한 활동 및 회의를 권장, 주재하고 센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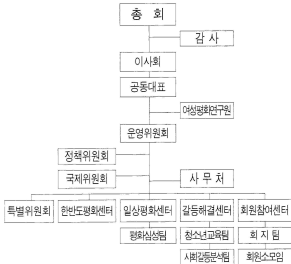
3. 운영 : 각 팀은 팀원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예산 집행) 갈등해결센터의 예산은 본회 고부예산과 센터 독자예산으로 구성된다. 예산의 집행은 고부되는 예산은 평화여성회에 따르고 독자적인 예산은 갈등해결센터 예산집행에 따른다.

제4조(기타) 본 운영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정관과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004. 1. 9 제정

평화여성회 조직도



2006년 성명서 모음

성명서 목록 (국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평택 미군기지확장 및 강제토지수용 반대 시민사회총고단체 긴급 기자회견 정부는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평택 미군기지확장 및 강제토지수용 중단하라!
남북(북남)여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중속적 한미동맹과 평택 기지 확장 반대를 위한 여성단체 성명서 중속적 한미동맹과 주인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평택 기지 확장을 여성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00차 정기수요시위 성명서 일본 헌법 9조 기각 반대한다!! 동북아시아에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라!!
국방부의 대추초고 강제 퇴거 규탄 여성단체 성명서 국방부의 대추초고 강제 퇴거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군기지 확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평택 행정대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인권침해 규탄 여성단체 기자회견 우리는 강경진압과 철조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평화를 희망한다. 평택 행정대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성추행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 라!
2006년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성명서"평택, 성명과 평화의 땅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기 극복은 북미직접협상에서 찾아야
7월 27일 정전협정 53돌을 맞으며 우리 여성들은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평화-인권-대북지원-여성-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강력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중단하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즉각 철수하라.
평택 강제철거를 당장 중단하고 주각 대화에 임하라 평택 대추리 도두리 빈집 철거계획 중단과 정부-주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인 사 77인 선언
[긴급 호소문]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호소합니다 평택 빈집 강제 철거 계획을 중단하십시오.
918 평택 평화 선언 "평화를 택하라!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전쟁을 불러옵니다. 미군기지 이전협정은 전면 재협상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냉정하고 평화적 해결방식을 찾아야 한다. 전쟁반대와 이라크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기자회견문
6자회담 재개에 즈음한 한국 시민단체의 입장 <반포도도문> 동아일보의 "정부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기사에 대한 평화를단드는여성회의 반론

성명서 목록 (국제)

공동성명서 "미사일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동북아시아 시민의 요구"
WMP's statement on North Korea nuclear test
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on DPRK's nuclear testing
평화헌법 계약 반대와 동북아시아평화를 위한 한일시민단체 공동성명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20일,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인정될 경우, 그것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온 우리는 이번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본쟁쟁방이나 평화적 해결보다는 오히려 본쟁과 갈등을 심화시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는 미국이 군사 패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핵심전략이다. 이는 이라크 원상에서 그랬듯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불법적인 전쟁에 주한미군을 신속하게 차출 투입시키고,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와 대북 선제공격 군사행동 등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유사시 주한미군의 개입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목적은 갈등분쟁에 대한 예방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주한미군의 군사적 개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갈등과 분쟁, 그리고 과격함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우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한반도가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권유기지가 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한반도 이외 지역에 대한 주한미군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한반도가 본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제공하고 있는 대공포의 기지화 다양한 형태, 제도적 지원체계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행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동북아 분쟁에 대한 한국의 불가립 입장을 미국이 수용했다고 역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영토, 영공, 영해를 군사행동에 이용하는 순간 한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이번 합의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전폭 지원해주는 전조까지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약속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 합의는 평화주의를 명시한 우리 헌법이나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모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평화번영 정책이나 통일이 규범자 역할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미국의 군사적 패권과 이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 노력에 역행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한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현재 고착상태에 있는 6자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해 무력 사용 제재를 약속한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독트린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구체화된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에 대규모 병력과 기지를 유지한 채 한반도 안팎으로 주한미군의 출입을 인정한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지역동맹에 진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미일동맹 강화 움직임 속에서 한국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신냉전적 동북아 질서 재편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노력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철회하고, 동맹 재편에 관한 국민적 토론과 의견수렴에 먼저 나서라

우리는 정부의 대미 협상 태도에도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동맹재면에 관한 모든 협상을 밀실협상과 정보통제,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협상에 서도 확인되었듯이 국민들의 정보접근을 철저히 차단한 채 부실한 대미협상 결과를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는 식으로 차대 포장하여 발표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대미협상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굳이 굳이로 믿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동맹조정의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인정되면서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미군기지 재배치 협정이 이루어진 지금 동맹의 미래는 미국의 군사패권을 추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성격변화가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어 있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협상에 앞서 국민적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한미군을 둘러싼 많은 사회적 논쟁과 갈등 속에서도 대규모의 미군주둔이 인정된 것은 한반도 방어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 분명히 달라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의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에 우선 나설야 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한이동맹 재인이 이뤄진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국민적사를 무시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철회하라!
- 정부의 밀실협상과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협상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만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협상 담당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 국회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와 미군기지협상 등 동맹재면에 관련된 모든 협상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2006년 1월 23일

독재연립, 민교협, 민화련,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통일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유니언드여성회, 평화박물관추진위, 평화연결기, 평화희생양육하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평택 미군기지확장 및 강제토지수용 반대 기자회견

시민사회종교단체 긴급 기자회견

정부는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평택 미군기지확장 및 강제토지수용 중단하라

정부가 지난 6일 대우초등학교에 대한 강제 점수를 시도한 데 이어 15일에는 농민들의 농지 점군 차단을 위해 굴삭기를 동원하여 논을 파헤치고 농로를 파괴하는 등 농지 전일로 차단을 강행하였다. 이는 한 해 영농의 분기적인 시기를 앞둔 논갈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들은 토지의 소유권이 국방부에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수용에 반대한 농민들의 점유권을 해지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농지를 파헤쳤다.

정부는 경찰과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이에 저항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격리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도주하여 살고 있는 연로한 주민 3명이 입원하였고 광택지침이 10명이 연행되었다. 입원하신 도주리 분들 중 내동댕이쳐져 실신한 채 병원으로 실려간 분은 이를테면 아 정신을 가다듬었으나 온몸에 멍이 들어 통증이 심하고, 한 분은 무릎인대가 파열되었고, 경찰에게 밟힌 아구어리는 척추 손상으로 등을 가누지도 못한 상태에서 진상결과 결국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육 논노스러는 것은 사고 당시 할머니들이 고통을 호소하여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경찰들에게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방관하였으며, 한편 후에 도착한 구급차가 부상자를 싣고 현장을 나가려고 하자 그 전에 연행자를 싣고 갈 순찰차를 먼저 빼야 한다며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국방부와 경찰들에게는 사람의 인권보다 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생각하는 안보였던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미국이 평택미군기지를 확장하려는 이유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일국적 한화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할 미국이 평택기지를 기점으로 삼아 대륙 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핵심 목표로 하는 자신들의 전략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 평화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민족이 분열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기지확장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주민들이 반대하자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과 용역을 앞세워 강행을 한다면 주민들과 마찰은 불가피하며, 그것에 상응한 이런 우려를 현실로 보여줄 것이다.

평택미군기지확장과 이를 위한 강제토지수용은 이처럼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심해질 경우 주민 생존권 파괴는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최근 월리엄 켈린 미대령장사령관이 주한 미군 추가감축을 나선상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주한미군 재태치에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또 정부의 당초 공언과는 달리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종금액이 얼마가 될 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기지확장이 강행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우선 복력적이고 일방적인 평택미군기지확장과 강제토지수용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그리고 후원미군 추가 압축 문제가 마무리 된 다음 국민적 참여가 보장된 속에서 미군 재배치 문제를 처음으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2006. 3. 17

(사)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그림공정, 녹색연합,문화연대,미군기지확장반대 평화대행위원회, 미군기지확장 반대 평화대행위원회, 민족문화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민족예술인협회, 민족서예인협회, 우리문화연대, 전국특목차장회평화실천협의회, 전국문화예술노조, 전국이대생대표자협의회, 주한미군반대근로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노정의구현전국사세단, 민주노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화비트리크, 평화플랜트노여성회,평화피플등여성노인들,평화유망단 평화비탈, 한국교회인간센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인문학예술인총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미투자협정저지와 스크린쿼터지킴이 영화인대책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기독교인 연대회의 (한국교회인간센터,평화공동체운동본부,기장성민전교연대,예유레나인,뉴스프라이,왕천교회,장남왕천교회,최년아름교회,이웃사랑교회,창암교회,군산왕립교회,사우회국민노동자센터,한국기독교청년회총연합,부천나눔과살림교회,기장성민교회연합,한신대신학전문대학원 학생회,봉일연대 (고년반노이들과함께하노모임,기독교시민사회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문화예술영진공동체,연락체계연구소,민주민주원사회정착추진모임대회),민족민주평화통일중앙회의,연속하람운동연합,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통일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미여성회,백범정신실천거대연합(사),불교평화연대,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사월혁명회,실천불교전국승려회,연가협양길수후회회,자수이성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협회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변연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평화통일물노협의회,민주노동조합총연회,평민통일광장,통일광장,통일및이노분문이화기념사업회,한국카톨릭농민회,통일및이화산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성년단체협의회,한민조선청년회연구회,21세기코리아연구소,zone평화연대),전국민중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기독교사회연구소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지원,노동자지원,노동조합기업평등연구소,다함께,문화연대,민주민주원사회 및추진모임대회),민족경기수호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연문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반미여성회,보건복지민중연대,사회진보연대,스크린쿼터문화연대,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회,통일광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농동업농민적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밀규명센터,한국성년단체협의회)

남북(북남)여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평화를 사랑하는 남과 북의 여성여러분!

더성의 해방과 권리를 위해 열차 일어났던 38 세계여성의날(3/8 국제부녀절)을 맞으며 남과 북의 여성단체 대표들은 민족의 자주, 평화, 대단합을 위하여 여기 금강산에서 모임을 가지었다.

민족분단이후 처음으로 일리여 남북여성단체들사이의 연대와 단합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던 <남북여성통일대회>에 이어 개최된 이번 대표자회의는 우리 여성들이 지혜와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이 땅에서 전쟁위험을 걷어내고 평화로운 통일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드높은 결의를 모은 회의의 깊은 통일회의였다.

오늘의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우리는 내외에 조성된 그 어떤 장애물도, 군사적위협도 평화와 통일로 향한 우리의 전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남북여성여러분!

성명을 공식하고 미래를 시각하며 나라의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여성들은 조국통일의 당당한 주역들이다.

민족구성원의 정면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남과 북의 여성들이 굳게 손잡고 힘을 합쳐 나갈 때 무서울 것이 없고 뜻 해낼 일도 없다.

남북여성대표자회의에 참가한 우리들은 우리 민족끼리 단결하여 나라의 평화를 이룩하고 6.15공동선언을 실천할 것을 다시금 결의하면서 남과 북의 모든 여성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양심에 떨칠지 호소한다.

첫째, 분단은 7갈래의 민족성원 누구에게도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오히려 온 겨레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 전쟁을 가져오는 비극의 근원이다.

남북여성들은 우리가 권지 않았던 분단을 공식하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모두 일어서서 함께 손잡고 힘차서 결집하자.

둘째, 전쟁은 여성의 평화와 안전, 살인죄 강간과 민족의 미래까지 파괴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전평화실현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나가자.

이 땅에서 전쟁과 군사의 대결을 걷어내고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근원을 지체 없이 제거하는데서 여성들의 힘을 단결함이 될지자.

셋째, 민족대단합은 우리 민족의 생명이고 통일이다.

민족의 대단결은 자주와 평화, 통일의 발판을 이어가는 힘이고 정신이다. 남북여성단체들은 연대와 단합,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통일운동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민족대단합의 꽃을 활짝 피워나가자.

넷째, 우리 민족속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성들의 괴눈을 나는 과거가 명암히 남아있다.

남과 북의 여성들은 일문군<외안부>문제를 해결하고 일제강점기를 청산하기 위해 힘껏 노력하자.

전쟁의 가장 참혹한 피해자인 우리 여성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군국주의부활을 방지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 일
에 앞장서자.

남과북의 여성들은 더욱 굳게 연대하여 이 땅 살천리 강산에 자주,평화,연속성,단합의 꽃피를 피트리자.
자주,평화,통일의 새날을 열기 위해 남과 북의 모든 여성들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615 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남북여성대표자회의
2006.3.10 금강산

종속적 한미동맹과 평택 기지 확장 반대를 위한 여성단체 성명서

종속적 한미동맹과 주권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평택 기지 확장을 여성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국방부: 평택 대우분교로 4월 27일부터 강제 철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방부는 평택 기지 이전 지역
에서 주민들의 농사를 막기 위하여 군병력 투입을 결정하고, 이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알
려지고 있다.

평택에서 미군기지 확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이전 터를 정하고, 강제로 수용에 들어간 이래 주민과 제
대로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용역 인력과 경찰의 위력에만 의존하여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국가안보를 앞세워 주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방
법으로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대가로 하는 안보는 오히려 안보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 할 것이다.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의 흐름에 맞는 안보를 실현하지 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현재 평택에서 강제수용하려는 땅은 대부분 농토이다. 생명의 땅 농토를 군사기지로 전환하는 문제가 바로 갈채수
용의 본질이다. 생명을 살리는 토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해외발전기지가되며 권력을 연습하는 기지로 전환
되고 있다. 남북화해협력 시대에 '밭을 해서 땅기로' 만들지는 못할망정 '땅기를 두기'로 만드는 것은 세상을 저주
로 돌리는 일이다. 평화의 땅을 군사기지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위험을 증폭시킬 뿐이다.
미군 기지의 평화 이전은 북한에 대한 생체공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어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해친다. 평택 기지 확
장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와 더불어 한국과 미국정부의 한미동맹 관련 합의를 보면서 깊은 우려를 갖
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 북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문제,
미군기지가이전 때용 문제 등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과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이 한
반도 평화체제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남북안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평화와 희망은 여성의 원천 속에서 가능하다고 믿는 우리들은 평택에서 농사를 짓고 생명의 뿌리가 내려지는 그날
까지 함께 할 것이며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과실을 추궁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국방부는 평택에서 농작업을 막기 위한 군병력 투입 결정과 이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제
책을 즉각 중단하라. 폭력과 불리력을 사용한 강제토지수용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정부와 주민 모두에게 심
각한 피해를 낼 것이다.
2. 국방부는 당장 평택주민과 직접 대화하라.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평화적 방법으로 문
제를 해결하라.
3. 평택기지의 확장을 반대한다. 농토는 보존되어야 하며 평화농민에게 평화롭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정작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4. 우리는 한미관계가 희망과 평화를 향한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을 요구한다. 희망의 한미관계는 군사력에 기

반을 둔, 설명의 땅을 군사기지로 바꾸는 힘의 논리에 따른 군사동맹 강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문제해결 방식을 보태도록 하고 한국과 미국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정치외교 중심의 정책에서 온다.

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하며 미국의 본질 개입시 한국을 탈린기지로 삼는 것을 반대한다.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한국 방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방어를 한국군에게 넘겨주고 주한미군이 세계 다른 나라들의 분쟁, 소요에 개입하도록 성격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미 군사동맹 강화는 중국과 북한을 지극히여 동북아 지역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6. 한미군사안보성체 결집이 민주화, 투명화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에 따라 외교, 안보, 군사분계의 결집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7. 미국은 '오염과 부담원칙'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의 오염정화 책임을 인정하고, 자국과 주권국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말라. 주한미군 재해대책에 따라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한 한미간 공동조사 결과, 조사 15곳 가운데 14개 기지의 토양과 지하수가 심각히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환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은 주한미군에 의한 것으로 주한미군의 부담으로 오염을 차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 여성들은 취약 깊은 요구가 수용되어 공속적 한미동맹을 마감하고 정책에 설명과 평화의 불이 쏘아오도록 평화의 결의를 모아 나쁜 것이다.

2006.4.26

경남여성회, 고양여성회, 광주노조여성성취위원회, 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목포여성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대구여성회, 부천여성회, 수원여성회, 사천여성회, 수원여성회, 수원알짜여성회, 안산여성회, 단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환경연대, 용인여성회, 의정부여성회, 이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자주여성회,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주여성회, 전주교여성공동체, 광덕여성회, 평화불안드레여성회, 화남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어성당우회, 한국어성당친화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함안여성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707차 정기수요시위 성명서

일본 헌법9조 개악 반대한다!
동북아시아에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라!

오늘 5월 3일은 일본 평화헌법 시행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 평화헌법은 평화주의, 국민주권, 인권이 매우 중요한 기둥이다. 이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헌법 전문에 나타난 평화적 생존권과 9조 전쟁포기, 전격 불복속' 규정은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인에게 아주 중요하다.

일본에서 평화헌법 개악을 위한 시도들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길진 자민당은 2005년 '자위군' 보충을 명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전수방위만이 아닌 태외에서의 전쟁도 가능하게 하는 '집단지 자위권'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1일 일본과 미국은 미·일 안전보장협약위원회에서 '미·일 군사동맹의 새단장'을 선언했다. 이 합의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일체화가 더욱 빨라지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일본 자위대 역할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후사시 미국과 일본이 함께 작전을 지휘할 수 있게 되었다. 미일군사동맹 강화는 일본의 재군사화에 다음 아니다. 미일 합치는 일본헌법9조에서 나타난 전쟁포기, 전격 불복속' 을 크게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문제는 일본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다. 특히 헌법 9조의 개악은 아시아안에서 태평양 전쟁의 고통을 기억하게 한다. 우리는 이미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참상을 보고 근대화 전쟁을 통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특정인 사건에 대한 검토와 반성 없이 일본이 군사대국화하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주민들에게 히노마루와 기마기요를 앞세운 일본의 침략과 제국주의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이미 일본은 독도문제, 교과서 문제, 아스쿠니 신사 등에 문제로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여성으로서 우리는 피해자로서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저지른 범죄를 잊을 수 없다. 20만 명의 여성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가고, 오늘날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상황 속에서 자위대가 세계 도처에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과거가 현재에서 미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커다란 고통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결코 되돌아갈 수 없다. 전쟁과 중요, 희생과 죽음이 반복되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평화를 얻으려는 상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쟁과 군사력을 통해 안보를 확립하겠다는 생각은 무명적인 환상임이 분명하다. 군사력 우위 추구를 통해 강제적인 적대태세가 위협 때문에 풀이될 것이며, 그리하여 인권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이다.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 전쟁과 군사력 증강은 다른 국가의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더 많은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는 일본인들이 평화적 공존과 국가간의 진정한 협력을 토대로 동북아 평화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절실히 추구한다. 상호간의 공포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폭력의 포기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은 태평양전쟁과 군사동맹 강화가 아니라 상호신뢰 형성과 평화적인 외교와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이 박강한 경제력에 어울리는 평화와 안전보장, 인권과 환경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라가 되기를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평화헌법은 일본에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즉 평화헌법 9조를 확산하는 것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곳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와 일본인이 동아시아에서 신뢰회복과 상호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상생과 공존의 평화의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해 호소한다.

평화주의에 기반을 둔 연대, 이 길이 한국, 일본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가 함께 해야 할 길임을 확신하며, 이 길에 우리는 함께 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평화헌법 개악 반대한다!

동북아시아에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라!

일본의 재군사회를 반대한다!

미일군사동맹 강화 반대한다!

상생과 공존의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건설하라!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 배상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본정부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

2006년 5월 3일

평화동맹뜨는이성회와 제70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국방부의 대추초교 강제 퇴거 급탄 여성단체 성명서

국방부의 대추초교 강제 퇴거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군기지 확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국방부는 5월 4일 새벽 평택 기지 이전 지역에서 영농작업을 막고 대추초교를 집수하기 위해 15,000명에 달하는 군, 경찰, 용역인원들을 동원하여 대추초교와 농토에 대한 강제집행을 야만적으로 진행하였다.

정부는 평택에서의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이전 터를 정하고, 강제로 수용에 들어갔다. 그 후 주민과 제대로 대화를 대화할 하지 않은 채 용역 인력과 경찰의 위력에만 의존하여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강제 퇴거 집행을 진행해왔다. 마침내 정부는 오늘 군, 경찰, 용역직원 등을 동원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법집행을 자행했고,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오늘 국방부의 야만적인 진압은 평화의 해질진치를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던 여성들의 요구를 저버리는 폭력적인 행위였다.

오늘 군정이 벌인 야만적인 강제퇴거집행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우리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을 추구하기 위해 군정 15,000명을 동원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가 한 정부가 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것인지,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하는 정당한 지론치 않을 수 없다.

3,000명이나 되는 군인이 민간인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 개입하고 농토에 철조망을 둘러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막는 것이 군이 할 일인가? 이번 "평택 300명 입은 80만 명 이후 최초의 300명"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처우스런 행위이다.

현재 국방부가 평택에서 강제수용하려는 땅은 맛 좋은 평택 쌀을 생산하는 200만 평이 넘는 논농사 지역이다. 생명의 땅 농토를 군사기지로 전환하는 문제가 바로 강제수용의 본질이다. 생명을 살리는 토지가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한 해외보급기지야말로 전쟁을 연습하는 기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 땅에서 농사짓기를 못하는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가안보'를 앞세워 주민들에게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대가로 하는 안보는 오히려 안보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평화적 일꾼 연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안보를 본질하게 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남북회담협약 시대에 한반도를 화해와 상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갈을 쳐서 쟁기'로 만들지는 못할망정 '쟁기를 두기'로 만드는 것은 세상을 지꾸로 돌리는 일이다. 평화의 땅을 군사기지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위험을 증폭시킬 뿐이다.

특히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은 폭력에 대한 선제공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어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해친다. 평택기

지 확장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관계가 최강과 평화를 향한 신속한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을 요구한다. 신속한 한미관계는 군사력에 기반을 둔, 생명의 땅을 군사기지로 바꾸는 힘의 논리에 따른 군사동맹 강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문제해결 방식을 토대로 하고 한국과 미국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정치외교적 접근방식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국방부의 대추소요 강제집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평택에서 농사를 짓고 생명의 뿌리가 내려지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며 한국정부에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강제 퇴거 집행과정에서 생긴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2. 국방부는 강제 퇴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고 보상하라.
3. 국방부 장관은 대추소요 강제 퇴거집행과 폭력적인 진압을 즉각적이고 사퇴하라.
4. 대추소요와 평택 기지 이전지역에서 군은 즉각 철수하라.
5. 평택주민이 자기의 땅에서 평화롭게 농사지를 권리를 보장하라.
6. 노무현 정부는 정대미군기지 확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06년 5월 4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택 행정대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인권침해 규탄 여성단체 기자회견

우리는 강경진압과 철조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평화를 희망한다.

평택 행정대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성추행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 여성들은 5월 4일 평택 기지 이전 지역에서 15,000명을 동원한 군 경찰, 용역업체 직원이 대추초고 강제퇴거 파견도에 대한 수용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준 심각한 인권유린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행정대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성추행행위와 여성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보고를 접하면서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더욱이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조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시점에서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 사실을 일한 우리는 심각한 심정을 감할 수 없다.

정부는 대화와 협박도 없이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이전 터를 정하고, 강제퇴거 조치를 취했다. 특히 국방부는 정사에 3,000명을 동원해 민간인의 생존을 위한 저항에 개입하고 농토에 철조망을 둘러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획정해 민간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집행과정은 평화적 해결원칙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주권과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여성들의 요구를 저버리는 폭력적인 행위였다.

첫째, 우리는 평택 강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 참가자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남성 전투경찰이 관망하듯 여성 참가자들을 연행하면서 일부 여성들은 옷이 벗겨진 채 걸려가는 모욕을 겪었고, 여성의 신체 일부만 안치고 저항하는 여성들에게 폭언을 함으로써 피해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여성에게 방패를 휘둘러 코뼈와 이빨이 부러지게 하는 등 경찰 폭력에 여성들의 피해도 컸다. 더 나아가 연행된 한 여성에 대한 상반신 앓음 수칙과 폭언을 곁눈질 등 굴욕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겪게 했다는 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를 위반한 것이다.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 대한 무시는 국가권력의 남성적인 관점(sex blind perspective)과 인권이 있다. 국가권력이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도하는 행위는 성평등을 추구하는 한국사회의 일반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행위이다.

둘째, 정부의 강제퇴거 조치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일방적으로 유린하는 것이다.

평생 농사만 짓고 순박하게 살아왔던 대추리 주민들은 법비를 저과한 눈에 철조망이 쳐지는 것을 지켜보며 다음의 상처를 입었으며 농사 짓는 것은 고사하고 6월까지 이주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절망감에 빠져있다.

농민들이 스스로 협조를 약속을 세우고 간척지를 개간해 정성들여 일군 도지를 전쟁 준비와 군사연습 기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주권과 경작권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공권도 투입에 의한 강제 수용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상을 더 받기 위한 전술'로 매도하는 것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감할 수 없다. 자기 땅에서 농사짓기를 바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가안보’를 앞세워 주민들에게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셋째, 우리는 주민의 농도를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침입할 경우 군형벌로 다스리겠다는 국방부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평택 기지 이전지역에는 굳이 보호해야 할 군사시설이 없는 상태이고,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저전하기 위한 민간인의 저항에 균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기지를 확장한다고 하면서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회담을 보여주지는 못할당성 폭력적인 강제집압, 여성인권 유린, 군사행법 적용 주장으로 민간인 위협 등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정부의 무능력을 강력히 비판한다.

우리는 평택주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정부가 강경집압과 철조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 평택 행정대집행과정과 관련한 언행과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심추행 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평택 행정대집행과정에서 생긴 언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국방부는 행정대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보상하라.
- 국방부 장관은 대추초교 강제 퇴거집행과 폭력적인 집압을 확인지고 사퇴하라.
- 대추초교와 평택 기지 이전지역에서 군은 즉각 철수하라.
- 대추리 주민의 거주권과 경작권을 보장하라.
- 노후한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재검토하고 폭력집압에 대해 사과하라.
- 정부는 주민과 대화하라

2006년 5월 11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공무원노조 여성위원회, 기록여성회, 남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민주노동 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이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천여성회, 사천여성회, 새세상을어는민주교여성공동체, 색유터, 살태태문제의권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용인여성회,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의정부참여여성회, 이천여성회, 인민여성회, 가주여성회, 진교초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회, 제주평화인권여성연대, 우한미군법외근원운동본부, 진주여성회, 광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주회, 평택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하남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주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경제인연합, 한국여성학사회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해대책회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원안여성회

2006년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성명서

“평택,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오늘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여성들은 대추리 평화공원에 모였다.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대추초고가 사라지고, 정실관여 간척지를 개간한 농도가 칠조망에 둘러쳐져 있는 황새울 앞에서 우리는 1981년 유급에서 평화와 군축을 위해 모였던 여성들의 뜻을 기억하며 대추리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있다.

2006년 평화문제는 대추리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평화적 생존권, 한반도 평화, 군사주의 문제요, 생명과 평화를 염원해 온 여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우리는 황새울의 벗겨진 땅이 보태내는 소리 없는 피눈물을 보며 그 대지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요, 칠조망에 갇혀 있는 것은 눈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임을 알고 있다.

평택 더군가지 이전 지역을 지정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은 없었다. 정부는 그 정책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주민들의 요구도 수렴하지 않고, 이 문제가 전 국민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합의와 절차 없이 ‘국가안보’라는 구실로 평택을 강제 수용하였다.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파생된 고통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보지의 강제수용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폭력에 주목한다. 15,000명의 군인, 경찰, 용역인원을 동원한 5월 4일 야간적 진압은 많은 부상자와 연행자를 낳았다. 여성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피말을 흘리면서 깃발을 태워 달군 자기 땅에 가려는 할머니의 발길을, 새벽에 불 한 모금 주려는 농부의 손길을 군대와 경찰이 가로막고 있는 땅. 그것이 대추리의 현실이다. 정부는 주민들의 핏길 가슴을 어떻게 아물지 않을 것인가?

주민이 요구하는 평화적 생존권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향상시키는 기본 권리이다. 평화적 생존권을 부정하고 평화적 권리를 위해 주민의 토지소유권, 경작권, 주거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저항하는 일은 정당하다.

우리 여성은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환경과피해를 야기하는 평택기지 확장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한다. 평택이 중국 등 외국을 염두에 둔 주한미군을 위한 신속기동군 기지로 전환되고 그로 인해 우리 피사와 손해없이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휘말리게 될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기에 우리는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주민과 여성들의 저항을 지지한다.

현재 평택에서 강제수용하려는 땅은 대부분 농토이다. 생명을 살리는 토지가 불을 내지 못해 타들어가고 칠조망으로 덮여 침착 죽어가고 있다. 생명의 땅이 죽음을 준비하는 전쟁연습기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평택의 오늘은 “밭을 쳐서 쟁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쟁기를 무기”로 만드는 일로 ‘국가안보’라는 구실아래 평화로운 일상을 풍진된 진장으로 바꾸는 일이다.

평화의 땅을 군사기지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위험을 증폭시키는 일이다. 생명이 최망이고 생명의 땅이 자유로울 때 우리도 평화로울 수 있다.

따라서 평택을 생명의 땅 평화의 땅으로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안보’를 핑계로 한 ‘전쟁장비’의 구입과 ‘육포의 군사기지로 전환’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남북화해와 협력, 주변국과 상호이해, 정치외교관계 및 경제협력 강화, 상호교류 증진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주요 강대국이 모여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의 강화를 통한 안보 확보는 상호 군비경쟁을 낳아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희망을 잃을 수 없는 한미관계는 군사력에 기반을 둔, 생명의 땅을 군사기지로 바꾸는 협의논리에 따른 군사동맹 강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문제해결방식을 토대로 하고 한국과 미국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정치적이고 접근

법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여성이 활약하고, 분단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광복 미군기지 이전 과정은 여성들의 평화를 향한 갈망과 심전에 관문을 끼치는 일이다. 또한 이 정국전경과정에서 평화를 위해 닦아 온 여성들을 배제하였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는 갈등 해결과 평화 과정의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참여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군사안보정책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쟁의 종언을 넘어 지속가능한 평화와 화해의 조건을 창조하고 한반도 평화체계를 위한 협상과정과 공동 역량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세계여성들과 연대하며 평화롭게 농사짓고 싶어 하는 내추리 주민과 함께 할 것을 천명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병력기지의 확장을 반대한다.
2. 주민과 대화 없이 강제 퇴거를 집행한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3. 광복,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복원하라.
4. 군사이익 추구와 무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군사주의에 반대한다.
5.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한다.
6.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에 따라 군사 안보·평화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보장하라.

5월28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기독교연회, 민주노동여성위원회, 민이여성회, 새올터, 여성환경연대,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통일전대여성위원회, 광대여성회, 평화물안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우리는사람들여성위원회, 전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대회특별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입장

북한의 미사일 위기 극복은 북미직접협상에서 찾아야

우리는 북한이 7월 5일 동해를 향해 대포동-II호와 수반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평화의 원칙에서는 군사주의를 강화하고 한반도 위기 고조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주민의 삶에 대한 위협일 뿐 만 아니라 동북아평화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경보장이사회 제재를 시도하고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돌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MID) 체제를 더욱 가속화시켜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평화와 회개의 한반도를 형성하기 위한 한반도 주민의 열망에 대한 도전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발사유에 선언이 북미간 대화가 열리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특히 북한은 대북경제제재 등 대북압박정책을 계속하면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초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며 북미직접협상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확대되며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북한은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보리 제재나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기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제재를 통해 미사일 위기가 해결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북미 직접대화 등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또 다른 강경대응을 초래할 것이며, 북미 사이에 직접협상을 통한 돌파구를 찾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위기는 재현될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 문제는 북미간의 적대관계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이 상호 공존하고 대화를 꾀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인 북미사이에 적대적 태도를 청산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로 초래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앞으로는 화해 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하기를 바란다.

2006년 7월 5일(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우리 여성들은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한다.

최근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반도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대북선제공격 검토,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미국과 일본의 북한 경제 강화, 남북장관급 회담 실패,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으로 향후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이 불안정하다. 현재의 전개 추경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못한 조건 속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나 일체 긴장이 고조되고 파국을 맞을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이별, 막대한 고통, 상실과 지권의 파괴라는 비극적인 경험은 평화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오늘날 이라크와 레바논에서 전쟁의 처절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전쟁과 군사적 긴장 속에서 어린이, 노약자, 여성이 큰 피해를 당하는 사실을 기억한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은 물론 전쟁의 가능성조차도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미사일 시험 발사 당사국(북한)을 포함해 주변 관련국(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보여준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무력시위, 제재, 응징, 처벌, 고립화 추구와 같은 협의의 논리를 통해서만 '평화'는 불가능하다. 우리 여성들은 이 같은 비평화적 방식을 통해 평화를 이루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 미사일 위기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관련국들은 미사일 위기를 자국의 이익과 정치적 입지를 늘리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현실에서 강렬한 대립방식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만 증폭시키는 결과로 끝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사이에서 이기고 지는 제로섬(zero-sum) 방식이 아니라 공동이익 추구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길이다.

여성들은 현재 미사일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각국정부에게 제안하는 바이다.

한국 정부는 첫째, 동맹국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불가 필요를 지원한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 시간과 연계하지 않고 인도적인 문제로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북한 지역의 흉수 피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 과거에 정부차원에서 쌀 지원과 같은 인도적인 문제를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시키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던 경험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사일 발사 이후 북미 갈등의 악화와 대북 제재 강화 속에서 남북 관계 중단은 한반도 긴장이 가속화되고 더욱 강경한 대결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어려울수록 화해협력이라는 정책기조를 명확히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북한정부에게 현재의 긴장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조치 등 위하는 것이 결코 북에게 이득이 되지 않음을 끈기있게 설명해야 한다.

북한 정부는 첫째, 군사적 대결방식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 핵 실험 등 위기를 조성하는 언행을 삼가고,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셋째, 남한 정부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경제협력

리·미사일·핵 문제 등 경제와 안보 관련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하여야 한다.

남북한 정부는 한반도 안에서 농촌·공공분야 할 거래로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토대로 공동의 이익을 쫓는 제이 평등 협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한 순간이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첫째,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을 중단하고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시아 평화 형성이 아닌 군비경쟁과 긴장을 강화하는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중단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첫째, 핵문제와 미사일 위기를 구성요 평화헌법 개정, 군사대국화 시도, 대북핵대결 강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일본 한반도로는 아시아의 자산이다. 둘째, 경제제재와 신재공적 논의 등 대북 압박 정책을 중단하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일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라.

6자회담 참가국 정부와 민간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촉발한 미국의 금융제재 이후 더욱 악화되어 가는 북미 사이의 위기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대화통로 확보와 다양한 방식의 중재 노력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반도에서 막대한 고통과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전쟁의 가능성을 가진 정권체제의 위험성을 다시 확인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할 때까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평화형성자(peace maker)이며 화해자(reconciliator)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2009년 7월 27일

대검여인회, 여성환경연대, 평화유니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회전화연합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평화·인권·대북지원·여성·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반도 경계가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 남북장관급회담이 양측의 지원 약속으로 결렬되었는가 하면, 유엔 인권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과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의 근거를 제공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견줄해 미국과 일본은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돌입하고 있고, 이에 맞서 북한도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결 국면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정치군사적 대결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절박성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최근 북한 언론과 국내외 여러 가지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축소와 관련 지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1990년대 중후반에 겪었던 참사에 버금가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한다. 남한 정부의 쌀·의료 지원 중단 방침 등으로 북한이 식량 부족분은 200만톤 인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번 천을 지해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이다. 더구나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유실과 복구 장비의 미비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참사는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인도주의 정신을 회복하자

여기 모인 평화, 인권, 여성, 대북지원, 시민사회 단체들은 북미간의 대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발생한 위기에 대해 다양한 인식과 해법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도,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갖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안보상의 갈등을 이유로 중단되거나, 압박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식량 및 의료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라는 가장 보편적인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한반도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에서나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인도적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어쩔 대거나 조인'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망각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적·안보적 함안과 연제시킨 남북한 당국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흔히져 보면, 지난 수년간 한반도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위기도 있었으나 그 때에도 남한 정부나 국제기구들의 인도적 지원은 중단된 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관된 인도적 지원은 최소한의 대화와 신뢰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어 왔고, 북한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과 재회를 연결하는 생명과 상생의 끈이 되어 왔다.

정부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으면 식량지원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요청을 기다릴 만큼 한기하지 않다. 추위하듯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국제기구의 지원만으로 충당될 수 없다. 사실상 북한은 식량 부족분의 상당량을 남한 정부의 지원에 의해 충당해왔다. 또한 정부가 대북기원을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보일 때,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활동도 촉진될 수 있고,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대북 수해지원과 식량지원 등 인도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다량히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인도적 원사를 제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전환위국'의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초당적 분위기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하루속히 대북 수해지원에 적극 나서고 인도적 지원을 체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남한의 5천만 동포들과 국제사회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한다. 여야 각 정당의 초당적 노력도 더욱 활성화되어 뜻 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정치적 이유로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한 미국과 일본 정부도 북한에 인도주의적 위기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태고종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인간다운 삶의 최소조건이다. 한반도 안팎에서 휘몰아치는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대결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인류애와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발걸음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 모인 단체들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다스려 이겨내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06. 8. 8.

경실련/ 국제기아대책기구/ 굿네이버스/ 남북어린이에게동무/ 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인본운동시민연합/ 여성환경연대/ 우리연속서모듬기운동/ 월드비전/ 좋은비둘기/ 참여연대/ 평화비트리크/ 평화물안다는여성회/ 평화포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외교연합회/ 한국 JIS/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총 25개 단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 촉구 여성단체 호소문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강력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중단하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즉각 철수하라.

오늘 우리는 레바논에서 들려달라고 울부짖는 어린이의 목소리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끊어질 다래, 파괴된 도로, 날아오는 포탄, 바다에 떠있는 이스라엘 함선으로 레바논이 봉쇄되어 국제사회의 구호물자도 피해지역에 제대로 나누어 줄 수 없는 레바논의 처참한 상황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민간인 건물에 폭격 받아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왜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가족들이 피난을 가야 합니까?

왜 100만 명의 민간인들이 난민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1996년 카사 학살…….

전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고한 민간인이 전쟁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로 폭격하는 남부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로부터 추방된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은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전쟁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의 강압적인 점령정책과 팔레스타인의 저항은 피와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으로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고통 받아 왔고, 상황수는 난민으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반복되는 전쟁은 끝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인이 인권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때 지속 가능한 평화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동지역에서 더 이상의 끔찍한 파괴와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안전보장은 군사적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의 아랍인들이 자결권을 갖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때 이 지역에서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오늘,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여성들은 전쟁을 반대하며 여기에서 있습니다. 너무 울어 울음도 메달라 버린 레바논 여성과 연대하기 위하여, 깊은 슬픔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팔레스타인 여성과 연대하기 위하여, 텔아비브에서 더 이상 전쟁은 안돼 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여성과 함께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연대는 전쟁의 세상이 아닌, 평화의 세상을 일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무기와 군사적 힘이 아닌 대화와 상호존중의 연대를 통해 우리는 안전보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여성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지역이 군사적 대립의 땅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대량살상과 파괴를 종식시키기 위해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철수하라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지역의 갈등을 침묵하고, 공격하고, 지속가능하지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인권과 자결권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강구하라

우리는 국제사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인권과 자결권을 존중하는 분쟁해결책을 지원하라
- 레바논 난민에게 인도주의적 지원과 구호를 시급히 제공하라
- 레바논의 파괴된 경제와 기반시설 복구에 참여하라

아울러 이스라엘 레바논 분쟁 당사자들에게 무력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6년 8월 10일

경기여성단체연합,공무원노조여성위원회,가톨릭교회,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민주노동여성위원회,반미여성회,수원여성회,여성환경연대,자유여성회,전교조여성위원회,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권역대협,충북여성연우회,몽골연대여성위원회,경화물만드는여성회,광화어머니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노동여성위원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연우회,한국여성인권전화연합,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평택 강제철거를 당장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임하라

정부는 결국 평택 대추리·도두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집 강제철거 중단 요구를 외면하고 이 지역 일대 새 용역을 앞세운 채 철거를 강행하였다

우리 여성들은 평택 용역장제, 군인 등이 무의별적인 폭력을 이반적으로 행사했던 지난 5월4일의 끔찍한 강제행정 내집행을 기억한다. 이번 반집 강제철거로 인해 대규모 유혈충돌과 대항구속 등의 인권유린 사태가 또 다시 재연 될 것을 심각히 우려하며 정부의 강제 철거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고 자금지라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한명숙 총리는 지난 5월4일 대규모 유혈충돌이후 5월12일 경주의 대화 부족을 인정하고 주민과의 진정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약속을 뒤엎고 대화하지고 나선 대추리의 김기태 위원장을 구속하더니 규기야 오는 새벽 경찰과 용역 등을 앞세우며 강제철거를 시작하였다. 이렇듯 농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학교를 세우고 간혹지를 개간해 정성껏여 대 곡슬과도 같은 소중한 공동체를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짓밟고 있다. 반집 철거는 마을을 황폐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마을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 노령의 주민들의 분노와 공포, 그리고 불안감을 심화시켜 예상치 못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 정부는 반인륜적인 공권력의 남용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약속을 당장 지켜야 한다.

우리 여성들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해외주둔미군제치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했던 내용과는 달리 미군제치 목적과 이전비용,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책임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미간의 이견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전면제형상의 요구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철거를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분노와 절망감을 금치 못한다.

한국정부의 강제철거 행위는 국제사회에서도 악명이 높아 유엔 국제인권관려기구들에서 수차례 중단을 권고 받은바 있다. 더구나 올해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위상과는 전혀 판란으로 폭력적 진압을 동반한 강제철거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사감이 살고 있다. 정부는 강제철거 당장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임하라

2006년 9월13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택 대추리 도두리 빈집 철거계획 중단과 정부주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계인사 77인 선언

정부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주민들이 살던 집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5월 4일, 대추본교 철거와 농지재 대한 철조방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태를 잊지 않고 있는 우리는 주택 철거 과정에서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습니다.

이에 우리는 어떠한 불상사도 일어나는 일을 막고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결박한 심정으로 정부와 주민대책위·평택법대위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1. 주민들이 살던 집에 대한 강제철거 계획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빈집철거는 사업 일정상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빈집에 대한 철거가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공포감과 고립감을 안겨주어 스스로 마을을 떠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강행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비인도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한미간 합의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국책사업이며, 강제수용 절차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름의 ‘합법성’과 ‘공권력’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철거에 ‘성공’하더라도 그 ‘성공’은 그 결정 과정의 일방성, 철거과정에서의 폭력성 등으로 인해 고스란히 끌어당겨 정부의 ‘실적’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평택기지 이전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도 사전설명도 없이 추진되었고, 합정 체결 이후에도 전라리 유언성 등 가지 용도 문제, 반환기지 환경자유 책임 문제, 기지조성 비용 문제 등 한미간의 이견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에 비추어 불 때 강제철거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철거 용역들은 위압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법적으로 ‘평정수용’에 동위원 경찰들은 5월 4일의 경우에서처럼 주민들에 대한 폭력과 강제적 진압 등 직무법위를 넘어서는 불법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이 대부분인 주민들은 심리적·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기 될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방식의 강제철거는 세계적으로도 그 악명이 높아 유엔 국제인권관련기구들에서 수차례나 중단을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새겨 정부가 강제철거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정부와 주민대책위·평택법대위가 한 발씩 양보하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을 열 것을 호소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평택 갈등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와 주민대책위·평택법대위 양자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입장변화를 진세로 한 비상단회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먼저 정부에 호소합니다.

주민대표인 김지태 위원장을 석방하고 주민과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는 많은 주인들이 이주하거나 공작금을 찾아갔으므로 남은 주민들은 힘으로 계엄하면 된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결과 결연하여 정부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주민대표인 김지태 위원장의 석방을 위해 아무런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실망과 항의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현재 간영으로 고를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의 병모석을 위한 시민사회 각계의 탄원도 복잡하고 외면한 것은, 정부가 줄곧 밝힌 ‘주민과의 대화 의사가 과연 진지한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불구속은 평택감동의 해소를 위해 주민과 시민사회 각계인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온 전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자발적으로 출두한 김 위원장을 구속하고 그에 대한 불구속 재판 탄권에 대한 선지를 묵살한 결과, 주민과 정부와의 대화는 중단된 채 양자 간의 갈등은 악화일로로 켜고 있고 대추리 도두리에서는 주민마저도 드나들이 자유롭지 않은 준계엄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지태 위원장의 병모석과 김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주민과의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기치이전 계엄상은 원래로 불가능하다는 단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는 미군계엄처 목적과 이점제출, 반환 미군기지 환경요양 치유제엄 문제 등이 정부가 당초 국민에게 설명했던 내용들과는 다르게 결정되거나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향후의 미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시설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 내에 일컫힌다는 사실을 일단 자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불어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해피주둔미군재처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은 물론 한반도화 통치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경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원심을 인식한다면, 현재 정부 입장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당장의 근본적인 해답을 내놓을 수는 없더라도, 강제철거 등을 통해 현재의 기지 확장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향후 발생할 부담과 사회적 위임을 최소화하고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선척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민들의 집과 농지를 보장하기 위해 수용부지를 일부 축소하여 미군기지로 제공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미국과의 추가 협상과정에서 제기될 다양한 변동요인이나 생협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대표위와 평택법대위에 호소합니다.

주민공동체 유지를 현실적 목표로 두고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주민대표위와 평택법대위 ‘단 한 정도 줄 수 없다’는 원칙적 주장에서 벗어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 보장에 대한 요구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위험성, 날로 늘어나는 폐음문제 등에 대한 정당한 비리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평택 법대위의 주장이 현재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관철되지 않다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 주민과 평택 법대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 주한미군 재처치 비용분담 문제,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문제는 각자 국민 모두가 함께 주민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할 사안입니다만 이

자신의 문제들에는 현실적으로 별도의 대책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있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전략적 유연성이나 기지이전 비용문제 등 경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요구는 지속하되, 285년령의 미군기지 확장 예정부지 규모를 축소하여 현지에서 기본적인 농지와 택지 등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보장하는 문제를 별도의 의제로 정부와 협의하는 것에 대해 긴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주민의 변경된 요구는 향후 한미간에 발생할 여러 가지 쟁점들을 염두에 둘 때, 선제가능한 하나의 방안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죄에 제안합니다.

국회는 김경의 해질을 주민들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자신이 비준한 한미간의 기지확대지 형상이 어떤 문제점과 사후 쟁점을 유발하고 있는지 짚셔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국회는 약속한 정문화 지적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주민과 기지문제 모나리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론의 물꼬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우리의 제안을 정부와 국회와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 나와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2006. 8. 31

강명구 (서울대 교수)/ 김규복(대전연대회의 공동대표)/ 김근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기리(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승민(평화통일민노총여성회 공동대표)/ 김경숙(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은경(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일중(환경정의 공동대표)/ 김정주(평화통일민노총여성회 공동대표)/ 김경현(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재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재진(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희정(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희준(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남윤민(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민만기(녹색보통 사무처장)/ 박상중(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수진(평화통일민노총여성회 공동대표 소장)/ 박순성(동국대 교수)/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연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상임대표)/ 박영목(송남대학교 교수)/ 박정희(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배필수(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백승현(민변 회장)/ 박영서(연세대, 『창작과 비평』, 권준주(간), 『역명(스님)』, 송인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학진(건강사회를위한차라리사회 대표)/ 수경(광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심영희(평화통일민노총여성회 공동대표)/ 양성진(녹색평원 원장)/ 양재성(기독교환경연대 사무총장)/ 영미봉(평주관악여성단체연합 대표)/ 오광민(합계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오종민(국평원차라리시민당국 위원회 위원장)/ 원대(녹색연합 공동대표)/ 유경희(한국여성민주회 대표)/ 윤정은(녹색연합 공동대표)/ 윤영진(합계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종삼(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처장)/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경옥(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종규(송남대 교수)/ 이미경(성북학당소 소장)/ 이병천(강화대, 『시인과 세계』, 권준주(간), 이상숙(KYC한국영년연합회) 공동대표)/ 이상진(강원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수호(아시아평화역사교육연대 이사장)/ 이혜희(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태호(참여연대 활동처장)/ 이희영(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형도(시민의신문 이사장)/ 임옥상(화가)/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장재연(아주대 교수)/ 전성희(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전형수(대구연대회의 공동대표)/ 정경란(평화통일민노총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정보연(KYC한국영년연합회) 공동 대표)/ 정성아(원문고 교수)/ 정현택(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은(스님)/ 지은희(덕성여대 총장)/ 전영중(성공회대)/ 전원(스님)/ 원준호(KYC한국영년연합회) 공동대표)/ 최상진(한국여성노동자회협력회 대표)/ 최원(환경재단 상임이사)/ 한광진(간남연대회의 공동대표)/ 한태근(민변 사무총장)/ 한미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홍상태(상지대 교수) 등 77인 연동

[긴급 호소문]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임원을 담아 호소합니다

평택 변집 강제 철거 계획을 중단하십시오

지난 8월 31일 시민사회화재인사 77인은 평택 대추리 도두리 변집 철거 계획 중단과 정부 주연장들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계 인사 선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평택 대추리 도두리 변집 철거에 나설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어, 77인연에 참여한 대표들은 오늘 긴급히 평택 대추리 도두리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77인 대표는 현장에서 변집 철거가 사업일정에서 지금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히려 강제철거는 평택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이하는데 큰 걸림돌이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행위임을 확인하였고, 정부의 강제철거 방침을 중단한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변집 철거 강행은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공포감과 고립감을 주는 매우 비인도적 처사입니다.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한미간 합의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것으로 강제수용철차가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평택기지 이전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나 사전 설명없이 추진된 것으로, 정부가 합법이란 명분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철거에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목적으로 짓밟는 일일 뿐입니다. 강제철거가 진행된다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꼭대밭으로 만들게 되고,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에 대한 폭행과 강제전압 등 철거 용역들의 불법적 행동까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노인들이 대부분인 주민들에게 가해질 심리적 물리적 충격은 상상을 위협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평택의 평화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많은 임원을 저버리고 결국 참여정부의 또 하나의 인권유린 사례로 기억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11월 (13일) 대추리 도두리 변집 강제철거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변집 철거는 사업 일정상 지금 반드시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감축이 커튼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한미군 이전편의 문제, 기지 오염 평화문제 등 미군기지 이전 협상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민간의 검토 없이 무작정 변집 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그 피해와 고통을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입게끔 뿐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주민들의 생존과 인권을 목적으로 짓밟는 강제철거 계획을 중단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평택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주민간 대화의 전장으로 시작되길 촉구합니다.

2006년 9월 12일

강명구(서울대 교수)/ 김갑복 (대한연대회의 공동대표)/ 김근욱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기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숙업 (평화유엔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영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회장)/ 김순경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 김경수 (평화유엔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정현 (문화연대 공동대표)/ 김계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계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혜경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박상중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수선 (평화유엔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선 (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인혜 (한국여성건강화합 상임대표)/ 박재욱 (충남대학교 교수)/ 박정희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배철수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승현 (연변 회장) / 박영서 (연세대, 『장학과 비평, 편집주간』) / 서영 (스님) / 송인준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상임의장) / 송학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 수경 (광교환경현대 상임대표) / 심영희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양김순 (녹색방위 원장) / 양재성 (기독교환경연대 사무총장) / 엄이봉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 오근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총장) /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총장) / 오순일 (국립원자력안전연구원 원외원회 위원장) / 권대 (녹색연합 공동대표) / 유경희 (한국여성민주회 대표) / 윤경은 (녹색연합 공동대표) / 송영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 윤종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이경옥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이동규(충남대 교수) / 이미경 (성폭력상담소 소장) / 이병원 (강원대,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 이상옥 (KYC(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 이상진 (강원연대회의 공동대표) / 이수호 (아시아평화지역사교육연대 이사장) / 이재희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 이태호 (참여연대 활동의장) / 이희영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 이형도 (시민의신문 이사장) / 임옥상 (화가) /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 장재연 (아주대 교수) /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 전형수 (대구연대회의 공동대표) / 정경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정보연 (KYC(한국청년연합회) 공동 대표) / 정상익 (원불교 교무) / 정현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지관 (스님) /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 김영중 (성공회대) / 김원 (스님) / 김준호 (KYC(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 최상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대표) /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 한광진(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 / 한해근 (연변 사무총장) / 한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홍성태 (상지대 교수) 등 77인 일동

<선언문>

평화를 택하라!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전쟁을 불러옵니다.
미군기지 이전협정은 전면 재협상해야 합니다.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노무현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난주 평택 대추리, 도두리 마을에 대한 1단계 강제철거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5월 군대까지 동원하여 대추리, 도두리 일대의 농지를 점령하고, 마을 주민들의 정성으로 세워진 대추분교를 파쇄한 뒤 경찰력을 동원해 마을을 고립무원의 준계엄지역으로 만든 뒤에 이른 국가폭력의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방부를 내세워 미군기지가이전협정의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일장만을 고집해왔습니다. 때쿠리, 도두리 주민들은 공장이나 학교를 짓는다면 얼마든지 땅을 내줄 수 있지만, 미군들의 전쟁기지로 육도를 내줄 수 없다는 일념으로 지난 2년간 촛불을 들어왔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마음을, 보상을 더 바라는 이기적인 행태로 여도하고 앞에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말하면서 뒤로는 주민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일삼아왔으며, 주민대표 김지태 이장을 6월 구속시키고 현재까지 석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택미군기지는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전쟁침략기지입니다.

평택미군기지는 단지 평택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용산미군기지가 단순히 그대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며, 5천여 단 평의 비군에 제공한 공여지를 돌려받고 285만 평만 내어주는 환경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유로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뒤 세계는 더욱 불안해졌고,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유연성이라는 군사전략의 변경을 통해 이제 해외주민이군들을 유혈학이형 군대가 아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제게 어느 곳이든 미국이 요구하는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의 재편을 꾀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지금까지 대추전경역지반이라는 명분을거 쟁개치고, 평택으로 주한미군사령부를 옮기면서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전 세계로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기 위한 주한미군에 배치계획에 의거하여 공격적 신속기동군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맹렬히 심적이 바뀐 주한미군에 의해서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가 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익과는 상관없는 전쟁에 의해서 외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할만도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전쟁에 의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우리는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는 막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라 군산 적도에는 대항의 폭격장을 이은 비군의 국제적인 폭격장이 들어서게 되고, 좌우 무인리에는 미군들을 위한 종합훈련장이 들어서게 되며, 제주도에는 새로운 미군의 해외침략기지가 들어옵니다. 미국으로 돌려받는다는 전국의 5천여만 평의 미군기지는 사실상 미군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지였고, 그것도 환경요인으로 치유비용만 수조원에 이르는 심각한 상태에서 반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은 땅을 돌려받고, 육도를 내주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 곳곳에서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철고 무모한 도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미군기지 이전협상 결과를 놓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과를 냈다고 사회자천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말까지 평화미군기지를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전략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서 전사각전통계연도 내놓겠다고 하면서 다시 무기를 끌어내고, 방위분담금을 늘릴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력으로는 주한미군을 1차적으로 2만 5천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나아가서는 1만 5천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전략의 필요에 의해 보병은 집중적으로 감축하고, 공군력을 증강하라는 계획이며, 그중 위해 한강 이북에서 평택지역으로 내려오라는 속병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와 같은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라 추진되는 평화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대해서 먼저 한국 정부가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요구한 것이라고 하면서, 2004년 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국의 비준을 요구할 때조차도 기적이 전사일에 대한 종합계획도, 예산도 제출하지 못한 채 미국 측의 추정치만 제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도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평화미군기지 확장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군의 일각에서조차 감축되는 미군의 수를 반영하여 시설과일에 치할 평화미군기지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하는 타당에 이 나라 정부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취론만 내세우면서 국가폭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평화 대우, 도두리 일대 285만평에 들어서게 될 미군기지는 용산미군기지 이전 관련한 면적은 단지 38만 평만 해당하고, 그중에서도 28만 평은 미군들을 위한 골프장으로 조성됩니다. 나머지 땅은 집중 감축대상인 보병사단인 미2사단이 옮겨오게 되고, 여군들의 주택과 취사시설은 초호화관으로 지어지게 된다고 하므로 당연히 시설 투자의 우려가 나오게 됩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절절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노무현 정부의 인결과 평화를 건 무모한 도박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기지를 강요하는 미국, 그에 굴복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평화를 열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을, 국민들에게는 평화적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미군기지 이전협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재협상되어야 하며,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략적유연성은 포기되어야 합니다. 대우리, 도두리가 전쟁기지가 되면 한반도 전체가 전쟁기지가 됩니다. 정부의 본격적인 강제철거를 저지하고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 첫걸음은 9월 24일 4차 평화대행전에 모두 참가하여 우리의 평화의 열망을 모아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열원하는 국민 모두의 피자를 분명히 밝힙시다.

2006년 9월 18일

평화신언 참가자 일동

각계 평화신언 참여자 명단(510명)

9.24 평화대행전 공동준비위원회

장대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장민표(유가침 회장) 권영익(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권오현(민가협실업수후원회장) 권경호(연호사) 김광원(주부연상 대표) 김병삼(천주교 신부) 김세균(서울대 교수) 김인재(원불교 교무)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지애(경성대대학원외국인위원장) 김용환(경민연 상임의장) 남우익(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문경식(연봉 의장) 문규현(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성현(민주노동당 대표) 문정현(평화벼랑 대표, 신부) 박경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 집행위원) 박순애(통일연대 명예대표) 박용익(통일잇닿는문민권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박정기(자동차질결사 부원) 박준기(추진대위 의장) 백기환(통일문제연구소) 백낙성(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상임대표) 변인석(민주노조인권위원회 위원장) 수경(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양희(참계전간대학교 교장) 여운(한국미수인협회 회장) 오종태(전국연합 상임의장) 윤병실(두건리출신장제교회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택민(민가협 상임의장) 이관복(호순이선교봉사주

평화사업회 상임대표) 이상열(행정대폭위원회 위원장) 이승호(한국청년단체협의회 회장) 이용남(현장사건연구소 소장) 이종희(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임기란(민가협 전 상임의장) 권만규(예향리대학회 위원장) 권희남(예향리비교국제특목장지도이전지제군신대학원회위원장) 정광훈(전국인공인대 상임대표) 정재근(가톨릭농민회 회장) 정지영(영화감독) 정태춘(가수) 조백희(소설가) 조준호(민주노동 위원장) 조현경(향토교회 목사) 권광수(기독교사회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채한석(미군기지특장저지정책대학회 상임대표) 채희관 (연속비학연구소장) 한상현(통일연대 상임대표) 홍근수(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총 52명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냉정하고 평화적 해결방식을 찾아야 한다.

북한은 핵실험을 10월 9일 진행하고자 하였다. 한반도 한 곳에서 핵실험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수만 명의 조선인 피폭자를 기억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무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1991년 채택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전면 위배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군비증강과 핵도끼노를 우려한다. 이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여성들의 희망을 깨뜨리는 행위이다. 우리 여성들은 평화와 생명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어떠한 핵실험도 핵무기도 인정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힌다. 북한의 핵무기는 폐기되어야 한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은 예상되는 것이었다. 북한은 여러 차례 대북경제재제 등 대북압박정책을 계속하면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소강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며 북미직접협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직접대화 요청을 무시하고 대북압박정책으로 일관해 왔고 이에 대한 반발로 북은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미 상호 신뢰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이 현재의 과실을 이끌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태세를 우려한다. 우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나 주변 국가들의 대북 경제재제와 군사제재를 동의할 수 없다. 대북 봉쇄와 압박은 북한의 또 다른 강경태세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재를 통한 강경태세은 북한의 핵 위기를 해결하기는 커녕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 더 나아가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때 일수록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평화적인 해결방식을 찾아야 한다.

전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은 주미 북한과 직접 협상하라. 2005년 9.19 공동성명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 제재를 보장하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일괄타결방식만이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과 미국이 상호 신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에 의한 해결이 아닌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외교적 방식의 해결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요청된다. 대북포용정책 수정과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의 재검토는 위기를 더 증폭시킬 뿐이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대북제재에 동원하기보다 이번 위기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기를 요구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화해협력정책을 지속하여 남북교류의 끈을 놓지 말고 평화적 방식의 해결공간을 넓혀가야 한다.

우리 여성들은 북한 핵문제에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추구하는 국내외 모든 세력과 연대하며 평화적 해결이 되는 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06년 10월10일
평화불안드는여성회

전쟁반대와 이라크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기자회견문

오늘, 평화를 위해 서 싸우는 여성들은 이라크여성 및 전쟁피해자들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구실로 이라크 침공을 시작한 후 현재 '이라크'는 한 나라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큰 재앙 속에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종파적 갈등이 심화되고, 강간과 납치, 약탈 등의 범죄가 횡행하며, 30일 한달 동안 3,709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침공이후 민간인 160여만명이 이라크를 탈출했습니다. 또한 기간 시설 파괴와 사회 복지 서비스 중단 등 외교적 이윤 사회 불안과 혼란, 시스템 파괴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라크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이라크 여성이 코드핑크에 보낸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나는 내 아이들이 교육 받고 결혼하고 손자손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지원하고 부모님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이 살아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결혼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결혼할 때조차 그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부시정부가 민주주의를 가져오겠다고 시작한 전쟁에서 가난한 과부와 고아로 아 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때때로 죽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느낍니다. 나무와 강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우리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절망에 빠진 이라크 현실과 단념니다. 고통이 너무 커 죽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는 이라크 여성과 연대하기 위하여, 아픔의 죽음을 넘어 평화를 위해 오늘도 걷기기에 나온 전쟁 유가족 미국 여성과 연대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더 이상 전쟁은 안돼 라고 외치는 우리 자매들과 함께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라크에서 우리의 군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와 삶의 의미가 넘치는 이라크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죽음, 공포, 불안, 거짓, 고통이 난무하는 땅을 만드는 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원이 전쟁 지속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음식, 주택, 교육,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라크에서 폭력과 두려움의 악순환은 끝나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평화와 정의라는 희망의 약속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따우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명을 만들어 놓은 부시행정부는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죽자 미군을 철수해야합니다.

또한 무기한 전쟁에 의해 제3위의 많은 군대를 보낸 한국정부는 자이푼 주에 철군계획을 내놓지 않고 도리어 과병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이푼 부대는 즉각 완전히 철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정부에게 이라크에서 함께 의한 절망 모델이 아닌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갈등해결의 모델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라크 민중의 자결권을 존중하고 이라크에서 미군과 한국군 등 침략군이 철수하는 것만이 이라크와 침략국 모두를 죽음의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서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평화의 아침을 여는 이가 되고자 합니다. 전쟁으로 통곡하는 땅에 슬픈 것들을 감싸고 진라진 것들을 잊고 내통의상을 열기 위해 새날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며, 우리의 구호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라크민중의 자결권을 인정하라

이라크에서 자이문부대는 철수하라

자이문부대 연장 논의를 중단하라

이라크에서 미군은 철수하라

이라크에서 모든 걸링군은 철수하라

이라크 여성들의 평화형성과정 참여를 보장하라

이라크 내 외국군사기지 계획을 철회하라

군사이익 추구와 무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군사주의에 반대한다.

2006.11.24

대전여민회, 여성환경연대, 통일민내여성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어상단채연함

6자회담 재개에 즈음한 한국 시민단체의 입장

6자회담이 오는 18일 베이징에서 재개된다. 북미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13개 월연이 재개되는 이번 회담에 가는 기대는 남다른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9.19 공동성명 이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등 일련의 대결 국면 속에서 한반도 핵 위기가 더욱 고조되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6자회담 재개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6자회담이 한반도 핵 위기의 근본적이고 평화적인 해결로 이어지는 단단한 다짐봉이 되기를 열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미국과 북한은 6자회담의 진전을 막고 있는 BDA(방고정미아시아 은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라.

미국과 북한은 6자회담의 과정을 불려온 BDA 문제를 하루 속히 종결시켜야 한다. 이는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우선 미국은 BDA의 북한 계좌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끝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북한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이에 미국이 BDA 공결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 이 문제가 6자회담 진전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향후 미국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구심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북한이 제안한 바 있는 북미간 협의회 구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고립과 체제변형을 꾀하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지난 10월 북한의 핵실험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핵비확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지난 2002년 미국의 북한 핵개발 의혹 제기로 북미 핵 갈등이 재연된 이래 수차례의 6자회담과 판문도 회담이 있었음에도 도리어 상황이 악화된 데에는 부시 행정부가 경각 '북의 핵개발 의혹'의 해소와 실질적인 다자간 문제개신책 마련에 집중하기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고립과 체제변형을 꾀하는 대북정책을 고집했던 책임이 크다. 또한 미국 스스로의 핵개발과 핵실험은 정당화하고 미국에 전략적 가치가 있는 나라의 핵보유는 용인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 역시 북한의 핵 폐기와 국제적인 핵 비확산 노력을 더욱 어렵게 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도리어 북한의 핵보유고를 높리게 하고 있다는 비난이 대단 한국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최근 미국이 6자회담 내 북미 양자대화에 합의하고, 북한의 핵 폐기가 이루어질다면 종전선언과 대북안보보증과 관계정착, 에너지 지원 등 9.19성명에서 합의한 바 있는 상응조치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주목한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제안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폐기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괄 타결 방식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야 하며 대북제재 조치를 유지, 강화해서도 안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 체제변형을 목표로 한 제재와 압박조치는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지 못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와 실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기조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3.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핵 폐기 방식과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지난 10월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확산 선언을 저버리고 치명적으로 위협한 핵무기를 협상용으로 삼는 무모한 행동이었으며 남한 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핵군축과 핵비확산 노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었다. 이번 종류의 핵실험과 핵무기도 자취수단 혹은 억제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개발하거나 배치 혹은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북한은 핵심현과 같은 군사적 대응 위주의 경직된 태도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선 북한은 핵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6자회담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핵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과 함께 북한 스스로도 구체적인 핵폐기 방식과 경로를 제시하는 등 유연하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4. 북미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9.19 합의로 돌아가 '북한의 검증가능한 핵 폐기 vs 대북 안전보장, 관계정상화, 에너지 지원'을 일괄 타결하고 이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상대방이 취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선결조건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요구사항을 찾고 합의하고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해왔고 북한도 핵심현을 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공히 합의한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 이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모든 핵에 대한 검증가능한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참가국들의 대북안전보장과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에너지 지원 등 실질적인 보상조치'를 합의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합의 이행 역시 상대방의 우선순위를 전제해서는 안되며, 9.19 합의에 따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은 6자회담 밖의 의제 혹은 당파가 해결할 문제를 회담에 끌어들었으므로 6자회담의 초점을 흐리서는 안된다.

또 정부는 대북 식량, 비료 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남북대화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이국경 끝에 6자회담이 재개되었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깊은 불신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제들이 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수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을 지속하려는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더욱이 6자회담이 재개되는 지금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핵 폐기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틀을 다질 중차대한 시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 핵심현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주변국들의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했던 무시 할정부와 대북협상을 타결하고 나섰고, 중국 역시 결정적인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미당에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를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북 쌀·비료 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단절된 남북 대화를 조속히 복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북한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재개해야 한다. 쌀 비료지원의 재개와 이산가족상봉은 인도적 당면에도 부합하는 일이며, 북의 주민들에게도 더없이 절실한 일이다. 그리고 쌀 비료 지원재개를 통해 복원된 남북간 대화는 한반도 핵 위기 해방과 새로운 민족협력담판에 대한 남북의 희망사항만 모으고 이어져야 한다.

8.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착수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철거되어야 하며 남북간의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군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북미간의 핵 갈등 해소를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나 핵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문단으로 인한 남북간의 대립과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9.19 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별도의 포럼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고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담판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병행하여 남북간에는 군사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비핵 군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심현 이후 정부가 미국의 보다 확고한 핵우산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북측에는 핵폐기를 요구하면서 핵

우산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모순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실제 남북간 군사적 불균형을 심화시켜 북한의 핵 재기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굳건히 견지하면서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정당화되었던 과도한 군비지출과 동맹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도리어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 내 군사적 대결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적시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은 서로간의 대치와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군사적 협력조치와 상호 구축 논의를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 (끝)

2006. 12. 14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교협, 좋은것들,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불안드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반론보도문>

동아일보의 “정부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기사에 대한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반론

동아일보는 2006년 7월 13일자(45판)에서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급하는 공익사업 선정에 관해 1면 머릿기사, 3면 전체 해설기사, 사설을 실었다. 이 기사에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설에서는 “미사일 발사 찬양단체”로서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밝힌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원(나눔)위원회...평화여성회에 85점을 줬...지원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원 단위로 선정되는 컷라인은 평균 72.5점이었으며 다른 위원어...준 점수는 74점이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에서도 밝혔듯이, 컷라인이 72.5점이라고 할 때, 평화여성회는 다른 A심사위원으로부터도 74점을 얻어 컷라인인 72.5점을 이미 넘어섰다. 따라서 평화여성회가 천낙봉 위원으로부터 받은 점수 덕분에 결정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동아일보는 3면 상단기사에 “신청단체 인사가 지급결정 ‘회한한 심사’”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기사내용 어디에도 평화여성회의 인사가 심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두 명의 심사위원은 본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사이다.

동아일보는 3면 상단기사 중 “평화문화 명분으로 지원신청”이라는 소제목에서 “평택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 폭력 시위를 벌인 범대위에 참여했던 단체가 평화문화를 명분으로 돈을 받은 것이 눈길을 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본회는 1997년 출범 이후 비폭력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심성훈련,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평화문화경제인 등 평화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평화문화가 ‘명분’이 아니라 평화문화 확산은 본회의 주요활동 중의 하나이다.

동아일보는 “미사일 발사 찬양단체에 세금 파주는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평화여성회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서(2006.7.5)에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주민의 삶에 대한 위협일 뿐 만 아니라 동북아평화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미사일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평화여성회는 사실에서 말하는 바, “권북반미 폭력운동” 단체가 아니라 비폭력 평화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평화운동단체이다.

2006년 7월 15일(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연대 성명서

공동성명서 “미사일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동북아시아 시민의 요구”

7월 11일 동북아시아 시민들은 북한 미사일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 동북아시아 네트워크(Northeast Asian network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NEA)에서 시작하였습니다.

Joint Statement*

Northeast Asian Citizens' Call for a Peaceful Solution to the Missile Crisis

We, citizens working for peace in Northeast Asia, express our deep concern over the recent missile test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ough the DPRK claims the tests to be an "exercise of its legitimate right as a sovereign state," they can only increase military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nd will provoke a regional arms race. The tests run counter to the commitment to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declared in the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Six-Party Talks in September 2005.

We recognize that US policy regarding the DPRK, including maintained military pressure and a refusal to engage in bilateral talks, contributed to the DPRK's act of brinkmanship. Pressure or sanctions will not bring about a solution to the nuclear and missile crisis. Only dialogue in good faith can bring a peaceful solution to the current crisis.

We call on the governments and peoples in the region as follows:

1. We call upon DPRK to refrain from any farther missile launch and make efforts to hold dialogue in good faith with the governments concerned, including at the upcoming North-South Ministerial Talks.

2. We urge the region's governments to pursue negotiations on the basis of the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The US should hold immediate bilateral talks with the DPRK. Japan should continue its talks based on the 2002 Pyongyang Declaration, avoiding mention of possible preemptive strikes or other military responses. The UN Security Council must not focus on punitive measures, but rather on promoting the governmental dialogue and consultation.

3. We call on the governments to bear in mind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exercise restraint, and avoid any action that may further intensify and complicate the situation. We call on all governments concerned not to strengthen the military power on the pretext of the missile launch. Developing and deploying missile defense systems are counterproductive as they can accelerate arms race and increase missile tension in

the region.

4. We reiterate our belief that people-to-people mutual support is vital to build peace in the region. Humanitarian support to the DPRK should be continued. We oppose any sanctions that would threaten the lives of the DPRK's people. We urge the media to refrain from any exaggerated reports on the North Korean threat that promote hostile sentiment among peoples, and encourage it to focus on peoples' initiatives to end this crisis.

5. We urge the governments of Northeast Asia to take serious steps to develop an inclusive, sub-regional mechanism for consultations on issues of common security concern

July 11, 2006

Signatories** (As of July 11, 2006)

AU Pak Kaet (Hong Kong Professional Teachers' Union, Hong Kong)

CHEN Huaifan (Chinese People's Association for Peace and Disarmament, Beijing)

Ya Han CHUANG (Peacetime Foundation of Taiwan, Taipei)

ENKHSAIKHAN Jargalsaikhan (Blue Banner, Ulaanbaatar)

Vadin GAPDNEKID (Maritime State University, Vladivostok)

JUNG Gyung Lan (Director, Center for Peaceful Future of Korea, Women Making Peace, Seoul)

KAWASAKI Akira (Peace Boat, Tokyo)

KIM Jeong Soo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Seoul)

Anselmo LE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Bangkok)

LEE Mi-hwa (Secretary General, Nonviolent Peaceforce Korea, Seoul)

LEE Jong Moo (Director of Korean Sharing Movement, Seoul)

Kathy MATSUI (Global Citizenship Dept., Saisei University, Tokyo)

Gus MICLAT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Manila)

PARK Joon S. (Co-chairperson, Nonviolent Peaceforce Korea, Seoul)

PARK Sun Song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eoul)

PARK Sung Yong (Co-chairperson, Nonviolent Peaceforce Korea, Seoul)

SASAMOTO Jun (Japanese Lawyers International Solidarity Association (JALISA), Tokyo)

Philip YANG (Taiwan Security Research Center,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pei)

YOSHIOKA Tatsuya (Director, Peace Boat / Northeast Asian Regional Initiator,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Tokyo)

* This statement was initiated by the Northeast Asian network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NEA) and made open to signatures by all.

WMP's statement on North Korea nuclear test

We oppos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nuclear testing and we encourage a peaceful and reasonable solution to this issue.

The DPRK has finally conducted its first nuclear bomb test on October 9, 2006. It shocked the world by conducting the test on the Korean peninsula. We remember tens of thousand Korean victims of atomic bombing in Hiroshima and Nagasaki, Japan in 1945.

The DPRK's actions deny the illegal nature of nuclear weapons and breach the 1992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also threatens peace on the peninsula and may lead to the expansion of arms and nuclear proliferation throughout Northeast Asia. It has also undermined the hope of Korean women who have worked hard to peacefully reunite Korea. We women once again clarify our position opposing to any form of nuclear testing and weapons that defy peace and threaten human lives.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must be abandoned.

The DPRK's testing was expected. They had announced that it would take hardline measures on the US financial sanctions against the DPRK to secure their livelihood and sovereignty, demanding bilateral dialogues with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gnored the DPRK's demand and kept sanctions in place. As a result, the DPRK has finally carried out their threat, conducting the test. The current situation is due to a lack of active measures to build mutual tru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Another concern i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move toward raising tension. We women cannot agree with the United Nation Security Council and Korea's neighboring countries on placing economic and military sanctions against the DPRK. Raising tensions by using blockades and other means of political pressure will only lead the DPRK to take another hard-line stance. Sanctions will not resolve this issue. They will instead lead to more tension and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eighten the danger of war, making our hope of peace unattainable. With the current situation, more reasonable and peaceful measures are needed to resolve the issue of the DPRK's nuclear testing.

This issue must be resolved through dialogues and negotiations.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needs to start dialogue with the DPRK immediately. Despite the Six Party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19 last year, the United States imposed financial sanctions against the DPRK which led to the current testing. This issue can be resolved through a package deal with the United States guaranteeing the security of the regime in the DPRK and by it abandon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ose countries involved in six-party talks must support the building of mutual tru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Thus, rather than force, the DPRK's issue can be resolved in a diplomatic manner by enticing the DPRK to participate in six-party dialogues.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should be more independent and assertive when it comes to the DPRK.

Modifying the engagement policy toward the DPRK and reviewing the Mt. Kumgang tourism project and Gaesung Industrial Complex matter would further heighten tension. Rather than joining sanctions against the DPRK, we women demand the Korean government to strive to minimize tension and concentrate on diplomatic efforts to achieve long-term goals of settling peace and achieving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difficult times,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and South-North exchanges should be continued for peaceful dialogues.

We women will join hands with people and other organizations both non-governmental and governmental in the ROK and abroad who seek to resolve the DPRK's nuclear issue in a peaceful manner and to realize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We will strive until the day peace is achieved.

October 10, 2006

Women Making Peace

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on DPRK's nuclear testing

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Condemning the DPRK's Nuclear Testing, Northeast Asian Citizens Call for Immediate Talks for Peace

We, citizens of Northeast Asia, are gravely concerned 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s announcement that it conducted a nuclear test on October 9, 2006. We strongly condemn the test. At the same time it is clear that hostile policies and the "axis of evil" rhetoric of the United States were counterproductive and only exacerbated tension. We need to strengthen our cooperative efforts in the region to prevent armed confrontation and chain reactions of nuclearization and militarization in Northeast Asia. We support the efforts of those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members who are trying to find a solution based on dialog and negotiation. We commit ourselves to unite and work to establish a nuclear-weapon-free zone and a lasting peace mechanism in Northeast Asia, through dismantling the remaining Cold War structure, which has constituted a root cause of the present crisis.

We are united in calling for the following:

1. We call on the DPRK not to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s, to take prompt action towards the complete abandonment of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and any other multilateral and bilateral talks for denuclearization.

2. We call on all the related governments, including in particular the US, Republic of Korea (ROK), Japan, China, and Russia to reconvene immediately the Six-Party Talks or any other dialog format to resolve this crisis peacefully. In particular, we urge the US to respond to the DPRK's call for bilateral talks between the two nations. The talks should be based on the comprehensive framework provided by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of September 2005, in which the DPRK committed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the US, Japan and others committed to guarantee the DPRK's security and work towards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economic cooperation.

Governments must refrain from any military or other reckless reactions that could worsen the situation.

3. We urge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not to allow any kind of military action or other counter-productive measures that might lead to a humanitarian crisis or escalat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sanctions so far have not brought about a positive change in the nuclear crisis in the DPRK and have only had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humanitarian situation. Therefore, we strongly urge the UN to be mindful of the ineffectiveness of such measures to date, before imposing economic and other types of

sanctions on the DPRK. The UN Secretary-General and the UN officials in political and disarmament affairs are encouraged to promote talks among the concerned parties.

4. We urge the mass media and other civil society sectors to refrain from any behavior that promotes hostile sentiments or violence among citizens in the region. Instead, we urge focus on perspectives such as civil efforts for peaceful settlement,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and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any further nuclearization or militarization of Northeast Asia.

October 13, 2006

Signed by:

AU Pak Kuen (Hong Kong Professional Teachers' Union, Hong Kong)

Jau-hwa CHEN (Soochow University, Taipei)

Marx CHEN (Alliance for Peace Homeland, Taipei)

ENKHSAIKHAN Jargalsakh (Blue Banner, Ulaanbaatar)

Vadim GAPONENKO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Maritime State University, Vladivostok)

JUNG Gyung Lan (Women Making Peace, Seoul)

KAWASAKI Akira (Peace Boat, Tokyo)

Viktor KONONOV (Charitable non-profit organization 'Club 'Raffi', Vladivostok)

Viktor KORSKOV (International Public Institute for Culture of Peace, Vladivostok)

LEE Jaa Young (Korea Anabaptist Center, Seoul)

Kathy MATSUI (Seisen University, Tokyo)

MUSHAKOJI Kinhide (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Tokyo)

NIU Diang (People's Association for Peace and Disarmament, Beijing)

SASAMOTO Jun (Japanese Lawyers International Solidarity Association, Tokyo)

Lauren SAUER (Korean Anabaptist Center, Seoul)

SHEN Dingli (Center for Americas Studies, Fudan University, Shanghai)

Oiga YACUCENKO (Russian Peace Fund, Primorskiy Regional Branch, Vladivostok)

Philp YA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pei)

YOSHIOKA Tatsuya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Initiator, Tokyo)

※ 이 성명서는 GPACC 동북아네트워크에서 10월 13일 발표하였고, 8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안보리 이사국에게 보냈습니다.

평화헌법 계약 반대와 동북아시아평화를 위한 한일시민단체 공동성명

-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한 일본의 평화헌법 계약 움직임에 반대한다.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 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촉구한다.

11월 3일은 일본의 평화헌법 공포 60주년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시아의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평화헌법 공포 60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평화헌법이 담고 있는 '항구적 평화주의' 정신, 그리고 헌법 9조의 '전쟁포기와 권력보유 및 교전권 금지' 조항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된다.

10월9일 북한 당국이 강행한 핵실험에 대해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를 추진해 온 한일 양국 시민들의 열망에 반하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핵문제의 '조속하고도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과 주변국들의 진지한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북한에 대해 요구에 대해 무시와 경제, 합법 성격으로 일관해 왔던 북시정 정부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난 10월31일 북한, 중국, 미국 3국의 6자회담 재개 합의를 환영한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야 하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이후 일본의 아베 내각은 '북한 핵실험 정국'을 틈타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위한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우경화 정책을 일거에 차리하고, 평화헌법 무력화와 계약을 강행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추가제재를 단행한데 이어, '주변사태법'과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통해 해상위태의 북한 선박 검사 불가 및 미군과 제3국의 북한 선박 검사 활동에 대한 후방지원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교전(交戰) 상황'을 상징한 것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부러움들을 유발하는 골칫거리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북강경정책은 '집단지체인'을 옹호하는 움직임과도 직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베 내각은 '교육의 평화헌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교육기본법' 계약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방위력을 '방위성'(防衛力)으로 승격시키고 해외파병을 자위대의 본래임무로 위치 짓고, 해외에서 무력사용의 근거법이 될 '자위대 해외파견 관할법' 추진 의사까지 밝히고 있다. 특히, 아소 다로 외상과 나가사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의 '해무장 발언'은 '피폭국 일본' 국민들의 여론에도 반하는 것이며, 동북아시아 '핵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위헌적인 언행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부주의한 행동이 파급적 결과를 부를 수 있음을 경고해 두는 말이다.

일본 정부와 재한세력들은 한반도 뿐 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아베 내각과 일본의 재한세력들은, 평화헌법에 입각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평화국가 일본'이 일본 국민들과 동아시아 시민들이 바라는 일본의 모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의 평화헌법을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인권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을 강조해 왔다. 더욱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경제 조치로 인해 동북아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극복하고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본 평화헌법의 이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야기된 동북아시아의 위기는 오히려 평화헌법이 담고 있는 이념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일본의 평화헌법 계약을 격려하기 위한 면대에 그치지 않고 핵과 전쟁이 없는 동북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위해 평화헌법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갈 것을 결의한다.

2006년 11월3일

11월 3일 한일공동생동 한국위원회 • 11월 3일 한일공동생동 일본 참가 • 공동단체

平和憲法改憲反対と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韓日市民団体共同声明

北朝鮮核実験を理由とした日本の平和憲法改憲の動きに反対する。
北朝鮮は核兵器の平和的開発を目指す韓日韓米協力の努力を要求する。

11月3日は、日本の平和憲法公布60周年である。北朝鮮の核実験以後、東北アジアの不安と緊張の高まっている状況の中で、平和憲法公布60周年を記念した今日、私たちは平和憲法の「恒久的平和主義」の精神、そして憲法九条の「戦争放棄と戦力保有及び交戦権禁止」の原則がどれほど大切な資産であるかを改めて実感している。

去る10月9日の北朝鮮の核実験に対して、私たちは韓国側として反対の聲をあげる。北朝鮮の核実験は、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の平和と協力を推進してきた韓日市民の熱望に反し、絶望的でない行動である。しかし、朝鮮半島に北朝鮮が独断の意図で平和的な解決のためには、韓国と日本をはじめとした隣国間の民間の対話努力が必要であることを強調する。特に、北朝鮮の対日要求に對し無視と制裁、斬断政策で一貫してきたブッシュ政権は、対北朝鮮政策の失策を認めた北朝鮮との対話相席に乗り出さねばならない。私たちは、10月31日に、北朝鮮、中国、韓国によって六者協議の再開が合意されたことを歓迎する。六者間政府対話に對話を進めるべきであり、事態を悪化させるようないかなる行動も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北朝鮮の核実験以後、日本の安全保障は強化と軍事拡大化を目指す政策を強行している。この問題争いになってきたと強化を一歩に強行し、平和憲法の無力化と改憲を強行しようとしている。このような政策と行動は、周辺国々の懸念を招いている。日本政府は獨自的な追加制裁を強行し、「周辺行動法」の適用も強行しに入れたが、海上自衛隊の北朝鮮領海侵犯参加や米軍および第三国の北朝鮮領海侵犯活動への後方支援まで推進している。これは事實上、交戦状態を想定したことであるとも言え、東北アジア地域での武力衝突を誘発する火種となるだろう。これら一連の対北朝鮮強硬政策は、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解禁しようとする動きともつながっている。

それだけではなく、安全保障は「教育の平和憲法」と呼ばれている教育基本法の改憲を強行している。そして、防衛費を「防衛費」に替わらず、海外派兵を自衛隊の「平和任務」に位置づけ、さらには海外での武力使用の根拠法になる「自衛隊海外派遣増強法」も強行している。特に、東生外社と中川自民党政調会長の「核武装宣言は「強國日本」の韓米議論にも反するものであり、東北アジアの核軍備競争を呼び起こす危険きわまりない発言である。一部の政治家の何れもな行動は総合的結果につながるが、おおいことを警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政府と改憲勢力は、朝鮮半島の危機だけでなく、日本国民の安全と東北アジア全体の平和を脅かす動きを即刻中断すべきである。そして安全保障と日本の改憲勢力は、平和憲法に反対し、真摯な平和的解決をめざし努力する「平和國家日本」が、日本と東北アジアの市民の望む日本の姿であることを鮮に命じるべきである。

私たちはこれまで、日本の平和憲法は東北アジアに平和と人権の共同体を創設するための大切な資産であることを強調してきた。北朝鮮とアメリカの対立によって東北アジアの不安が増している今、東北アジア地域の軍備削減を促進し武力衝突を予防するためには、日本平和憲法が促している「恒久的平和主義」と「國際紛争の解決における戦争の放棄」という理念がきわめて重要なのである。

北朝鮮核実験によって起こされた東北アジアの危機は、平和憲法がもつ理念の大切さを今一度確認させてくれた。韓日韓米の対話相席は、今後も日本の平和憲法改憲を阻止するための地帯にとどまらず、核も戦争もない東北アジアの共同体をめざし平和憲法の理念を積極的に掲げていくことを決意する。

2006年11月3日

11韓日韓米共同行動日本参加 韓国側代表 11月3日 日韓共同行動韓米委員会

2006년 평화여성회 발간자료 목록

1. 한국여성평화운동사 / 2006년 1월
2. 움직이는 여성통일학교와 여성평화통일기행 자료집 / 2006년 11월
3. 월례평화미당 자료집 / 2006년 11월
4. 조정진행 매뉴얼 / 2006년 12월

언론보도 모음

1. 언론보도 리스트

기사제목	매체	날짜
南北 여성대표들 "평화위협 모든 근원 제거해야"	연합뉴스	3월 1일
동북아 시민단체 '갈등-분쟁예방 국제연대' 띄운다	한겨레	3월 6일
남북 여성 "평화 통일, 여성의 힘으로"	SBS	3월13일
이우정평화상 후보자 추천 기사	한겨레	3월 28일
종속적 한미동맹과 평화기치화강반대 여성단체기자회견	통일뉴스	4월 26일
가족대화법도 배울시다	여성신문	4월 29일
시민사회, 정부 주된 대화채널 '중립적협의기구' 제안	통일뉴스	5월 10일
평택에서 "경찰이 성추행" 여성단체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여성주의일다	5월 10일
5·4 평택사태 '성추행' 논란	오마이뉴스	5월 11일
"평택 진압과정 성추행 진상 밝혀라"	노컷뉴스	5월 11일
평택범대위 '민주국가에서 평화적 집회 왜 막나'	CNBNEWS	5월 11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등 여성단체."경찰 야만적인 폭력,책임자 처벌"	이슈아이	5월 11일
여성들 평화 열망 평택에 울리다	시민의 신문	5월 25일
이우정 평화상 수상자에 최경민씨	한국일보	5월 26일
8개 시민단체, 남북 직접 대화 촉구	뉴스엔조이	7월 10일
핵 문제 열쇠는 6자. 양자회담 동시제안	통일뉴스	7월 27일

현 시국에대한 시민단체의 성명서	통일뉴스	7월 28일
북한 미사일... '여성단체 워크숍	우먼타임즈	7월 29일
국내 여성단체 '이스라엘 침공' 규탄	오마이뉴스	8월 10일
여성단체,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 규탄	연합뉴스	8월 10일
여성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규탄 '한 목소리'	업코리아	8월 10일
여성단체, 이스라엘군 주각 철수 촉구	미디어오늘	8월 10일
여성단체,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 '전쟁범죄' 규탄	시민의신문	8월 11일
北 수해복구 민간단체 팔 건었다	부산일보	8월 16일
北 수해 구호물자 3차 출항	연합뉴스 TV	8월 16일
여성 평화운동에 대한 수구언론의 폭력	한겨레	8월18일
대추리 빈집천거 행정대집행 일박	경기방송	9월 12일
차이분 언내 완전 철군을 위한 9.23 반전행동	민중의소리	9월 23일
한반도에 평화물! 주민에게 인권을! 전쟁기지 확장 즉각 중단하라!	통일뉴스	9월 24일
여성계, '북핵 실험 규탄하고 평화적 해결 촉구한다'	업코리아	10월 10일
각계 '북핵실험, 대화통한 평화적 해결 촉구'	통일뉴스	10월 11일
북한 핵실험, 경제·정치적 파장과 우리의 대응 -무조건적 지지·반대 거둬야	여성신문	10월 13일
북핵사태 평화적 해결을	우먼타임즈	10월 14일
한일 시민사회단체, 야매 내각 평화헌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11월 3일
일 평화헌법 60주년, '11.3 한일공동행동'벌어	통일뉴스	11월 3일
3일, 한일공동행동 평화헌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열려	오마이뉴스	11월 4일
'반전운동에 여성들도 참여할'	CNBNEWS	11월 24일

1. 南北 여성대표들 ‘평화위협 모든 근원 제거해야’

(금강산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2006-03-01

10일 금강산에서 진행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대표자회의에서 남북 여성단체 대표들은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근원을 제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표들은 남북 여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민족의 분열은 7천만 겨레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다”면서 “이 땅에서 전쟁과 군사적 대결을 막고,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근원을 제거하는 데 북과 남의 여성들이 힘을 합쳐 나가자”고 밝혔다.

또 “남과 북의 여성단체들이 연대와 단합, 협력을 더욱 강화해 통일운동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박순희 위원장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분부 장연덕 상임대표를 비롯한 북과 남의 여성단체 대표들이 참가했다.

회의에서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올해 남북 여성단체들이 ‘우리민족끼리’의 기본이념에 맞게 통일운동을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궤도 위에 올려세우고 남과 북의 여성들이 힘과 지혜,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적극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동북아 시민단체 ‘갈등-분쟁예방 국제연대’ 띄운다

한지혜 이용인 기자 yji@hani.co.kr 2006-03-06

“분쟁도의 화해와 평화의 통일을 위해 ‘시민사회 6사회담’을 열자!”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태인, 몽골 등 동북아시아 각국의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갈등-분쟁예방 국제연대(GPPAC-지배) 동북아시아 협의회’가 6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갖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시민사회가 실천할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하나다. 일본의 평화운동 단체 ‘피스보트’가 주최하는 심상 회담의 형식을 빌려 동해에서 열자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분쟁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고, 평화의 씨앗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국가 차원의 협력과 해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갈등-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개별국가에 대한 감시와 국가간 신뢰 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국제의식을 갖고 출범한 게 지책 동북아 협의회다.

지책 동북아협의회는 또 다른 행동계획으로 중국에서 6사회담 학술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북한에도 피스보트쪽 대화 장구가 있다”며 “현재 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은 북한 및 미국도 계속 접촉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내부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협의회는 올해 11월3일을 '일본 평화헌법 9조 개정 60주년 기념 국제연대 행동의 날'로 지정하고, 헌법 9조 보존을 호소하는 운동을 펼쳐기로 했다.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안도 나왔다. '북-일 정상선언' 기념과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9월17일 도쿄에서 기념 행대임을 열며, 금강산에서 북-일 청소년간 공동문화교향 행사도 갖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에제 관등분경 예방-군축-평화에 대한 입장과 생각을 묻는 권의서신도 발송하기로 했다.

지력은 2001년 코지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발의로 각 지역에서 결성되기 시작했으며, 동북아협의회는 2004년 2월 출범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 평화포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3 남북 여성 "평화 통일, 여성의 힘으로"

SBS 김호선 기자 2006-03-13

남북 여성대표 금강산서 첫 공식 만남...위안부 문제 등 공동 대응키로

<앵커>

남북의 여성 대표자들이 금강산에서 첫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의 여성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회의장으로 들어섭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 여성 대표자 회의에는 6·15위원회 여성본부 대표 등 양측에서 각각 3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선 경제원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루는 데 여성들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박순희/6·15 북측여성위원장 : 우리의 여성운동이 거둔 성과가 갈수록 전반적인 통일운동의 성과도 얻을수있게 담보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남북 여성대표자 회의를 열고 평화 통일 대화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원벽/6·15위원회 남북여성본부 상임대표 : 회제가 좀더 경제화되고 남북여성이 서로 교류하고 공동의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 지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남북한 뿐 아니라 해외 단체까지 아우르는 평화운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등 여성 관련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여성대표자들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를 통해서 북측 여성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협의할 계획입니다.

4 이우정평화상 후보자 추천 기사

한겨레 2006-03-28

이우정평화상위원회는 '제2회 이우정평화상' 수상자 후보 추천을 받는다. 여성 평화 운동에 앞장선 고 이우정 선생의 뜻을 기려 만든 이우정평화상의 후보는 전쟁과 분쟁지역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여성 및 단체, 남북화해 및 평화 형성과 분단 극복을 위해 노력한 여성 및 단체, 화해·치유·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한 여성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후보 추천 마감은 다음달 30일까지. (02)929-4846.

5 종속적 한미동맹과 평택기지확장 반대 여성단체기자회견

통일뉴스 : 2006-04-26

▶26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는 평택미군기지확장에정지에 대한 군부대 투입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평택번대위'가 평택미군기지확장 예정지인 평성일대 군병력 투입관련 제보 내용을 26일 공개했다.

----- 이하 생략 -----

▶이날 기자회견은 '평택번대위 대표단', '서울대책회의', '여성단체' (위에서부터) 등의 기자회견이 오전 10시부터 계속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열린 '평택번대위 대표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참어연대를 비롯한 청년,민권,여성단체 등 각계 대표 20여명은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위한 군부대 투입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6 "가족대화법도 배웁시다"

여성신문 김미량 기자 2006-04-29

"그런 딸이라고 하는 지어? 듣자마자 하나도 도저히 안 되겠네. 처음부터 끝까지 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어." 저는 항상 거짓말만 한다는 말인가요?" 두 명의 대화가 끝나자 곧 다른 의견이 쏟아졌다. "거짓말이란 말을 반복하면 부정적 의미를 단정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라는 표현이 좋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말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바꿔 말하기' 말을 잘 듣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격한 감정으로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최근 가족 간 대화 부재를 극복하고 '소통의 길'을 찾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여성·시민단체, 종교단체, 학회를 중심으로 '가족 대화법' 강좌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1만~2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다양하다. 이들 강좌의 수강생은 대부분 주부와 청소년들. 같은 강좌를 두 번 이상 수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호응도 좋아 일 소문을 타는 중이다. 대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과천시 한 보습학원의 민 강씨실에는 주부 30여 명이 모여 대화법을 공부한다. 이들은 과천 학교정화단들이 네트워크가 마련한 '광복 해결 평화교육 강사양성 과정'을 듣는

수강생들이다. '평화교육 강사'라니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들은 "남편과 또 아이들과 제대로 대화하고 싶어 이 뜻을 찾았다"고 입을 모은다. 초등학교와 중학생 두 자녀를 둔 손금희(39)씨는 "아이가 어릴 때는 육아-교육 써도 열심히 읽었는데 학교에 입학하니 오히려 교육에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며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대화에 벽이 생기고, 아이가 이로 인해 상처 받을까 걱정돼 강의를 듣는다"고 말했다. 매일 하는 말을 난어, 감정, 이해, 요구라는 과정으로 분석하며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 가정에서 꾸준한 실습(?)이 중요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최경행(42)씨는 "배운 대로 해볼라치면 남편은 무척답답하게 '오늘 그거 재밌나?'라고 말해요"라며 "가까운 가족과 제대로 대화하는 게 더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허희의 말에 대부분 수강생들은 "그래서 대화법 배우는 거는 가족에게 비밀"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남편과 아이 입장에서 느끼고 요구하는 방법 뿐 아니라 새로운 화법을 익히고 나면 수강생들은 "이제 남편이랑 싸우고 어떻게 풀나 고민했는데 오늘 방법을 알았다"거나 "침에 들어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나 걱정부터 앞선다"는 반응까지 수업에 대한 느낌을 솔직하게 교환하고 서로 격려한다. **여세숙 강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교육팀장)**는 "내 행동이 무엇이 잘못이었나 깨닫는 순간 관계는 바뀌기 시작한다"며 "분쟁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고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 대화의 문은 열린다"고 강조했다. 대화법을 배우고 사소한 말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민희(43)씨는 바로 '분쟁'을 자신에게서 먼저 찾은 경우다. "필수 말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자부했는데 가만히 나를 살펴보니 말의 조잘거림에 그제 '응, 응' 대답만 하더라"는 반박은 "아이의 얘기에 편중 한 가지를 보거나 말의 고민을 알게 되고 그만둔 민제 되었다"고 말했다. 한희의 말 고마움(17·평촌고)양도 "엄마와 대화가 통하니 엄마의 인간적인 고민과 태도를 알게 되었다"며 "엄마는 비밀을 공유한 소중한 친구"라고 말한다. 고양은 엄마와의 관계 개선으로 친구관계도 무척 좋아졌다. "예전엔 친구와 싸우기 싫어 무조건 맞춰줬는데 지금은 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게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가정의 대화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는 한명만 한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부모님의 자식을 맞추기 위해 우선 자신을 이해하는 탐색의 시간을 가져라"고 조언했다.

7 시민사회, 정부 주민 대화채널 '중립적협의기구' 제안

통일뉴스 이현정 기자 2006-05-10

간수목 약화되는 '평택사태'의 답을 찾기 위해 10일 시민단체들이 정부 입장과 평택 주민 입장을 절충할 대화채널로 '중립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국정위 과거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승일 목사 등 시민사회 대표 인사 86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리적 해결 대안과 보다 명확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두 차례에 걸친 국방부와 평택주민간의 대화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강행된 군인을 동원한 행정대집행,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저항으로 벗어날 물리적 충돌이 평택을 더욱 더 극단의 충돌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 인사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평택 기지 확장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공존의 장에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립적 협의기구에 갈등의 '당사자'인 정부와 평택주민을 넣고 여기에 각계 원로, 전문가, 법률가 집단을 참여시켜 '객관적'인 대화장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미 불발로 끝난 국방부와 평택 주민과의 대화 상황이 더 악화될 가운데 '중립적 협의기구'란 말 안에서 재개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시민사회는 정부와 평택지역 주민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평택주민 민담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와 주민, 국방부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재화를 계획할 계획이다.

----- 이하 생략 -----

이날 기자회견에는 86명을 대표해 환경재단 최일 대표,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김경헌 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숙인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오승일 목사, 이수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 윤완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우희 덕성여대 총장, 정연혜 여성연합 공동대표, 이석희 연변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8 평택에서 "경찰이 성추행" 여성단체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여성주의 일다 윤정은 기자 2006-05-10

최근 평택에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불려진 1만5천명의 군, 경찰,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5월 11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기자회견에는 평화로운 드는 여성회를 비롯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회전화연합, 통일연대여성회 등 40여개의 단체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현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국장은 지난 4일 평택에서 있었던 강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남성 전투경찰이 여성 참가자들을 연행하면서(성추행) 일어났다"며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들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옷이 벗긴 채 갈러가기도 했고, 또 성추행을 당한 다수의 여성들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대추리 분교에 있었던 한 민간활동가는 "4일은 취재하는 기자들이나 촬영하는 사진기자들의 수가 아주 많았다. 그러다보니 지켜보는 눈이 많아서 성추행이 많이 일어났긴 않았고, 일부 발생했다. 그러나 5일 밤에 전투경찰에 의해 성추행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는데, 당시 귀가하려고 나서는 활동가들 100여명을 인형하는 과정에서는 기자들도 많지 않았다. 그때 전투경찰들이 여성들의 몸을 만지고, 옷에 손을 넣는 등의 성추행이 많이 일어났다"고 증언했다. 또한, 여성단체들이 필수한 피해사례 중에는 연행되는 과정에서의 성추행 사실뿐 아니라 이후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상반신 알몸 수색과 폭언 등 강압적인 조사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당한 사실도 있었다. 11일,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인보를 위해 기저를 확장한다고 하면서도 안전과 평화를 위한 회담을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폭력적인 강제집압, 여성인권 유린, 군사형질 적용 등으로 민간인들을 위협하는 행태를 보인 경우를 강하게 비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9. 5.4 평택사태 '성추행' 논란

오마이뉴스 김영균 기자 2006-05-11 12:38:50

지난 5일 4일 평택시 대추리 일대에 관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성추행과 인권유린이 자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평화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0여개 여성단체는 11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성추행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평화여성회 등은 이날 미리 배포된 성명서를 통해 "평택 강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 참가자들에게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단체는 "연행된 한 여성에 대한 상반신 압동 수색과 폭언을 파놓는 등 공욕적이고 장악적인 조사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비난했다.

시위지에 대한 '군형법' 적용 방침에 대해서도 여성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주변의 농도를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침입할 경우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국방부의 인식은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강제진압·여성인권 유린·군형법 적용 주장 등이 민간인을 위협하는 '정부의 무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정채당국의 과실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 4당 인권위원장들은 이날 오후 평택 현장으로 내려가 시위진압 과정에서 인권 유린이 있었는지 조사를 예고했다.

10 "평택 진압과정 성추행 진상 밝혀라"

노컷뉴스 CBS사회부 최정미 기자 2006-05-11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60여개 여성단체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평택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면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투경찰이 시위대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성 참가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폭언을 했고, 연행된 여성들에 대해서 상반신 압동 수색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11 평택범대위 '민주국가에서 평화적 집회 왜 막나'

CNNNEWS 오재현 기자 2006-05-11

■ 사회 각계 단체,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지지 '한 목소리'

평택범대위는 11일 오전 민주노동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범국면대회를 앞두고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내놓았다. 평택범대위는 지난 1일 국방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제안한 '미군 기지확장이전 전면 재검토'와 '충청한계 3차 포합된 중립적 합의기구 구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미군기지 확장이전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평화통일만드는여성회 등 여성단체들도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평택 강제집행에서 여성 성추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 이라 성락 -----

12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등 여성단체, '경찰 야만적인 폭력, 책임자 처벌'

이슈아이 이석주 기자 2006-05-11

지난 4일 평택시 대추리 일대 국방부의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 군과 경찰에 의한 성추행과 인권유린 과실이 확인되고 있다.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관련자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0일에는 평택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이 공권력의 성추행 피해사례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1차 인권침해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여성단체들의 주장은 그만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여성단체 회원들은 "기대를 모았던 한명숙 총리가 여성을 위해 만든 작품이 고작 이것이나"며 절망하기도 했다.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등 전국 65개 여성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평택 행정 대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인권 침해 급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평택 강제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 참가자들에게 성적 모멸감을 느껴게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집행과정이야말로 시위대의 극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킨 주범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즉, 평화적 해결원칙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상을 모색하려던 시대위를 극한 무력으로 대응했다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인권 침해가 더욱 심각했다는 것이 이날 항의집회의 요지라고 볼 수 있다.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김원희 사무국장은 집압과정에서 겪은 피해자들의 목격담 및 경험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부의 공권력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적 모멸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주경찰서에 인명되어 불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여경이 속옷까지 벗긴 채 완전한 알몸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우리는 범죄를 범했어도 알몸수색 시에는 가운을 입힌 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들이 한 행동은 인권유린을 넘어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며 당시의 억울했던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이어 "미안다 원칙까지 지키지 않은 경찰이 '웃 벗겨지는데 창피하지도 않나'며 조롱했으며 심지어 연행러가는 과정에서 '가다가 죽어줄테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등의 입에 담지도 못할 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인숙 최고위원은 지난 달 연경사상 최초의 여성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추구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을 총괄하는 한 총리가 취임당시 여성연계를 신장시켜야 한다는 발언은 이번 정책 사대로만 봐도 거짓으로 판명되었다"며 "여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행정최초의 여성총리라는 말이 무색하게 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한 총리를 향해 관련자의 임명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여성단체는 정부가 평화적 영권변을 지키려던 시위자들에게 '군형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주인의 농도를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침입할 경우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국방부의 인식 자체가 근본적인 인권유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단체는 폭력적인 강제진압, 여성 인권 유린, 군형법 적용 방침 등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야말로 무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은 미리 준비된 장미꽃에 달린 리본에 인권유린 관련 문구를 자필로 기입한 후 정부종합청사 정문에 꽃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날 성명서를 유심하지 않던 한 여성시인은 "시위대보다는 국가의 강제진압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위를 위한 경찰이 어떻게 성추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을 수 있는나"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 시인은 "소통과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집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결사판대'

'여성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권을 짓밟는 정부는 이미 민주주의를 포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여성단체 회원 모두는,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리본을 대 장미꽃을 정부종합청사 정문에 꽃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13 여성들 평화 열망 정책에 울리다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5.24 세계여성의날 기념식 열려

시인최신문 최문주 기자 2006-05-25

5월 24일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이다. 세계 각지에서 평화를 열망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이날, 한국의 여성들은 평택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평택을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만들자고 외쳤다.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이 평택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50여명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모여 '평택을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가족이민회,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화플랜딩여성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등 노동, 농민, 환경, 여성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아침 평화문에서 피스를 대접해 평택으로 이동했다.

대추리에 가까워지면서 시커멓게 저키고 선 집정촌과 권경리스가 울지어 있는 길을 마주해야 했고 길 끝이 두 번의 검문을 거쳐고서야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슴 찢어는 건 눈발 한가운데 들어선 소르레인과 군 막사, 그리고 파헤쳐진 논밭을 따라야 하는 일이었다.

5월 4일 국방부의 강제 평정대결행 이후 관광버스를 통해 마을에 이만한 규모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일은 이남이 처음이라고 했다. 경관이 태우리로의 접근과 통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탓이다. 사실상 태우리는 고립 상태였다.

태우리 평화공원에서 열린 본행사에서 김숙임 평화유엔드는 여성회 상임대표는 "비감한 심정으로 평택에 있다"고 운을 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순하고도 소박하다"며 "바로 전쟁 없이 평화를 살고 싶기 때문이고, 이런 소박한 꿈을 외면한 정부의 처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평화문제에 속말던 미군기지 확장 저지의 목소리는 언론이 보도하듯이 극단적인 일부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커다란 역사적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평화의 목소리가 정부에 강력히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호보다는 평화의 노래가 불리는 식이었다. 기념식이 열리는 바로 옆에선 태우리 무녀회 문들이 마을을 찾은 여성들에게 점심 국거리로 대접하기 위해 아욱을 다듬고 있었다.

이날 이상을 앞에 선 태우리 부녀회장 이정분씨는 "법의를 뿌려 놓은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놓은 정부에 정말 실망했다"며 "지난 5월 4일 이후로 우리는 아예지인 정부에게 버림받은 백성이나 다름가지다. 그래도 이 나라에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씨는 "수년째 중년 대를 이어 쫓겨나게 생긴 집도 있다"며 "우리는 나름대로 이 곳에서 살겠다고 저금씩 저적했는데,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예기했다.

태우리 처입이들의 노래공연도 이어졌다. 이들은 "태우초등학교가 무너지고 논밭이 파헤쳐졌지만 우리는 희망을 찾으려고 한다"며 "노무현 정권은 모든 걸 파괴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갔다"고 말하며 즐거운 분위기로 공연을 끝저 박수를 받았다.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은 1981년 유럽에서 열린 여성들의 대규모 반핵 군축 평화시로부터 시작됐다. 80년대 중반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 이후 다시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열리기 시작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보내 온 연대사도 소개됐다.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국제화해연대(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PeaceBoat, 새일본여성협의회 등은 연대사를 통해 "미군의 감축은 전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이며, 평화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철조망 위에 보라색 현을 덮고 그 위에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대달았다. 또 평화의 명상을 한 후 태우리 일대를 순례하는 것으로 국가폭력으로 참담해진 땅의 상처를 위로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참가단체들은 "평화,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라는 재하의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성명서를 채택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국방장관 사퇴 △핵손편 땅 복원 △수원미군 전 탁적 유언성 판대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에 따른 군사안보·평화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평화 여성회 이현주 회장은 "포크레인으로 초등학교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은 분노가 쌓이면서 통치에 무력감이 물러와 혼란스러웠는데,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모인다면 평화를 생명의 땅으로 돌려놓는 것이 가능하리라 믿는다"며 평화를 위해선 여성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4 이우정 평화원 수상자에 '대체복무 운동' 최정민씨

한국일보 2006-05-26 19:16:37

이우정 평화상 두 번째 수상자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 집행위원장 최정민(35)씨가 26일 선정됐다. 최씨는 대체복무 법안 제정과 평화운동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시상식은 30일 오후4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

158개 시민단체, 남북 직접 대화 촉구

뉴스엔코이 유현 기자: 2006-07-10

8개시민단체(한국청년단체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평화네트워크·평화공동체·이성회·한국 YMCA전국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가 7월 10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국정의 대북 경제 움직임과 관련해 '남북이 직접 대화하라'는 공동의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미국과 일본의 장성파와 입지를 강화시키는 현명하지 못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의 실패로 규정하고, 국내 언론과 정치권의 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북한에 대한 국내외의 강경 대응론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 정부는 위기를 조성하는 연행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대북 경제를 중단하고 주권 존중과 진실성에 기반을 둔 대 북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도 대북 강경책을 중단하고 북미 간의 불신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는 발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 확보 계획을 철회하고, 대북 지원과 남북 경협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6자회담 참가국들과 국제사회는 북미 간의 직접 대화와 6자회담이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우야 한다 △언론과 정치권은 위기와 강경 대응을 부추기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6 핵 문제 열쇠는 6자, 양자회담 동시제안

통일뉴스 이현정기자 2006-07-27

평도의 북미양자회담을 가동시켜 대북 금융제재 문제와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하고 6자회담에 선 9.19공동성명의 이행방안을 논의해야 북미간 대결국면의 막을 내리고 절점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는 27일 낮 2시 서울 중구 성공회 성가수녀원에서 열린 여성단체워크숍에 참석해 '북미간 대결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의 양자회담 요구, 미국의 다자회담 고집 사이에서 서로에게 명분을 주는 절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이하 생략 -----

역성단체, 참 비료지원 유보 등 대북협력정책 중단 요구

한편, 도농의를 주최한 대견어면회, 여성환경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전화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토론장에서 북 수혜지원과 참 비료 지원 재계, 대북협력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사일 시현발사 취기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거 정부차원에서 쌀 지원과 같은 인도의 문제를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시키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그 때마다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던 경험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중단을 한반도 긴장을 가속화 시키고 더욱 강경한 내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국정부가 "화해협력 정책기조를 명확히 유지하면서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이 결코 북에 이득이 되지 않음을 끈질기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정부에 대화와 협상, 미사일발어체제 구축 중단을 요구했으며 일본 경우에는 군사대국화 시도, 대북지원단 강화를 추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북한에는 대화와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과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핵 문제 등 경제안보관련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17 현 시국에 대한 시민단체의 성명서

통일뉴스 이장길 기자 2006-07-28

최근 한반도 경제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대표 이장길) 등 49개 단체들이 28일 '현 시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를 발표, 참 비료에 대한 (대북)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하 생략 -----

또 정부가 대일 강경세력이나 국내 수구세력의 일방적 제재 목소리에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과 관련해 참여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와 다르다고 말로만 변명하지 말고, 대내외의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이 포용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대북 협력관계 복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까지 성명서에 서명한 단체는 거리하나합창단, 관악합창회, 광진청년회, 구로청년회, 금천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북부청년회,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문화연구소,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남북장애인교류협회, 남이랑북이랑, 노근리사건대책위, 불태운청년회, 동서울청년회, 동학연속통일회, 마포청년회, 민주인문운동시민연합,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화합운동연합, 연변통일위원회, 민주저장청년회, 불교평화연대, 백두산문인협회, 성동청년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 영세중립통일협의회, YMCA 전국연맹통일위원회, 우리야당통일연구소, 인내선통일중앙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지구촌통로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전주교통일추진회, 통일교육문화원, 통일민주협의회, 통일운동참여가는사람들, 통일이성안보중앙회, 평화대표리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안복기,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대우시민연대, 한국기독교장로회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반도기타타기운동본부, 한반도평화운동운동본부 등이다.

18 북한 미사일...’여성단체 워크숍

후먼타임스 2006-07-29

평화플랜드는여성회(이사장 김유옥)는 7월 27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정세 읽기와 여성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여성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울 성가수녀원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였으며, 미사일 위기 타개를 위한 여성들의 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가 사회를 맡았고 김근식(경남대 정치언론학부), 박건영(카톨릭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정경란(평화플랜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씨가 발표자로 나섰다.

19 국내 여성단체 ‘이스라엘 침공’ 규탄

오마이뉴스 조해림 기자 2006-08-10

‘이 땅 모든 어머니의 입장에서 침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평화플랜드는여성회’ 등 24개 여성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벌써 1000여명이 사망했으며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또 이스라엘 정부에 스민간인 공격 중단 스아랍인의 인권과 자결권을 존중하는 해결책 모색 등을 요구했다.

평화플랜드는여성회 정경란(한반도평화센터 소장)씨는 경파보도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이후 민간인 사상자가 1000여명에 다다르며 백만 명의 민간인들이 난민으로 전락했다’며 ‘현재 피해자 대부분은 민간인,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다수’라고 말했다.

민주노동여성위원회 김미경 여성국장은 ‘국제사회의 침묵’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국장은 ‘이제 여성단체가 명확한 소리를 낼 때’라며 ‘이스라엘은 레바논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합 미국본부(WILPF) 회원 그윈 커크(Gwin Kirk) 박사도 전쟁 중단과 평화적 해결책 마련을 주장했다. 그는 ‘군사인보단으로 보통사람들에게 진정한 안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며 ‘진정한 안보는 민간인들의 기본적 삶 보장과 다양한 민족문화정체성의 존중과 보호에 바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기자회견 직후 레바논,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아픔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전쟁의 아픔과 슬픔을 호소하는 레바논 여성이 ‘장미’를 꽃하는 검은 원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로 서 있다가 ‘평화’를 상징하는 흑색의 원을 든 다른 두 여성과 어울려 평화의 춤을 추는 공연이었다. 퍼포먼스 직후 20~30여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대사관을 향해 큰 소리로 ‘살롱’을 세 번 외쳤다. 살롱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이다.

한편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후 세계 곳곳에서 반대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28일에 이어 8월 3일에도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는 릴레이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커크 박사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미 200개 레바논 시민단체의 전쟁 반대 시위가 있었다’며 오는 12일에는 미국 워싱턴시스코와 워싱턴DC에서도 반대 시위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 여성단체,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 규탄

연합뉴스 현은경 기자 2006-08-30

평화롭고 안전한 여성회와 여성환경연대, 한국어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여성단체 약 20곳은 10일 오전 콩고구 서린동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 퍼포먼스를 펼친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 지역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이어 레바논 여성과 어린이의 고통에 연대하는 내용의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21 여성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규탄 '한 목소리'

업코리아 이장효 기자 2006-08-30

유대인과 아랍인이 동등한 권리 누릴 때 평화 가능하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내 여성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어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어성의전화연합, 한국청소년단체대회협의회, 평화롭고 안전한 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 24개 여성단체들은 10일 수원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규탄하며 유대인과 아랍인의 평화적 공존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동지역에서 더 이상의 끔찍한 파괴와 희생은 막아야 한다'며 '이스라엘이 원하는 안전보장은 군사적으로 얻을 수 없고 단기간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이 자결권을 갖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때 이 지역에서 전쟁은 끝날 것'이라며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인이 인권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때 지속 가능한 평화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우리는 레바논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어린이의 목소리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강압적인 점령정책과 팔레스타인의 저항은 피와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왔고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으로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고통 받아 왔다'며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스대당상상과 파괴를 공식시키기 위해 전쟁 즉각 중단 △민간인에 대한 공격 중단 △이스라엘군 레바논 철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지역의 살상을 정화하고, 공격하고,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인권과 자결권을 존중하는 해결의 강구를, 국제사회에는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인권과 자결권을 존중하는 분경해결 지원 △레바논 난민에게 인도주의적 지원과 구호 시급히 제공 △레바논의 파괴된 경제와 기반시설 복구 참여 등을 촉구했다.

22 여성단체, 이스라엘군 즉각 철수 촉구

미디어오늘 이창길 기자 2006-08-10

민주노동당-민주노동 여성위원회, 반미여성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어성단체연합 등 24개 여성

단체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규탄하고 이스라엘군 즉각 철수를 촉구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린동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모였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발생한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민간인이고, 이 중 다수가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사태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7월12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이후 민간인 사상자가 1000여 명이나 나왔고 3분의 1이 어린이들이었다.

국내 여성단체들의 발전 외침에 동참한 여성평화운동가 Dr. Gwyn Kirk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 소속’)는 ‘이스라엘의 침략으로 레바논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난민이 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정책을 규탄했다.

23 여성단체,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 ‘전쟁범죄’ 규탄

시민주신문 최문주 기자 2006-08-11

· 레바논 여성의 통곡소리 들리지 않나

여성들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규탄하고 나섰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동여성위원회 등 24개 여성단체 회원들은 10일 오전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에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고 군대를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레바논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어린이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소리가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다”며, “국제사회의 구호물자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레바논의 처참한 상황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규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레바논에서 즉각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중동지역에서 더 이상의 피와 보복의 악순환이 아닌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아랍인이 상호 자결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평화적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분쟁해결책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경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은 “1982년과 1996년 벌어진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대규모 학살에 이어 또 다시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이 대규모 학살로 계승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레바논 공격으로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그 피해자와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2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이후 현재 민간인 1천여 명의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중 1/3이 어린이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30일 새벽 레바논 남부 마을 카냐에 대한 대규모 공습에서는 어린이 30명을 포함해 약 60여명이 희생됐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펼치고 있는 레바논 지역은 대부분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현재 레바논에는 인구의 1/4에 달하는 100만명이 난민이 됐다.

민주노동 여성위원회 김미정 여성국장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서 유리한 쪽으로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위에는 돈과 힘을 가진 미국이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침략 중단과 학살인형 중단을 요구하는 강렬한 행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인이자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평화운동가 키크 교수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이스라엘의 아만적인 공격을 폭인화는 영국과 미국의 군사정책에 반대한다'며 '긴장한 안보관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일일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자회견에 이어 레바논의 여성과 아동에 연대하여 평화를 희망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에 참가한 한 여성단체 활동가는 아랍 여성의 복장을 하고서 레바논 여성의 슬픔과 울분을 표현하는 곡을 낭독해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24 北 수해복구 민간단체 판 걸었다

민화협 밀가루 49kg 등 출항... 추가지원 계획도

부산일보 김 전기자 2006-08-16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 정부와 민간단체가 대형펀드 방식으로 200억원 가량의 구호품과 복구장비 등 지원키로 한 가운데 민간단체들의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민화협)는 16일 밀가루 49kg과 의약품 등 3억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인천에서 신적·남포항을 향해 출항시켰다.

이번 대북 수해복구 지원은 '한국JTS'의 지난 3일 첫 구호품 전달과 13일 단체별 지원에 이어 세 번째다.

민화협은 지난 2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고 대북 수해복구 지원을 결정한 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새천년생명운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회원 단체와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을 벌여왔다.

----- 이하 생략 -----

25 北 수해 구호물자 3차 출항

연합뉴스 TV 함보현 기자 2006-08-16

북한의 수해 구호물자를 실은 화물선 트레이드 포춘호가 16일 오전 인천에서 남포항을 향해 출항했다.

이번 대북 수해복구 지원은 한국JTS(이사장 법률)의 3일 첫 구호품 전달과 13일 단체별 지원에 이어 세 번째다.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정혜원, 민화협)는 이날 밀가루 40kg과 의류, 화약 등 3억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선적했다.

민화협은 2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고 대북 수해복구 지원을 결정한 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새천년생명운동, 민족화해협력포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회원단체와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을 계속 해왔다.

----- 이하 생략 -----

26 대추리 빈집 철거 행정대집행 압박

경기방송 윤상식 기자 2006-09-12

[앵커] 국방부의 평택 미군기지이전 예정지 빈집철거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평성을 대추리 일대에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상식 기잡니다.

[리포트]

빈집 철거가 임박해지면서 대추리 주 권임묘에 대한 경찰의 전문업적이 강화됐습니다. 워싱턴거리에서 대추릉교 구간과 본정농원에서 대추릉교 구간으로 진입하려면 경비병력을 2-3년 지나야 합니다. 경찰과 국방부는 반대 시연단체 등 외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장력 190개 송대와 용역업체 직원 4백여명이 동원할 예정입니다.

-----이하 생략-----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경수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각계인사 10여명이 미군기지 이전에정지인 평택 대추리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재 대추리와 도두2리에는 90가구 260여명의 주민과 외부에서 들어온 '평택지임이' 회원 3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27 자이툰 연내 완전 철군을 위한 9.23 반전행동

민중의 소리 임은경 기자 2006-09-23

이라크 상황 악화도 대부분의 파병국이 철군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미국과 한국만 파병을 연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자이툰 연내 철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이미 다른 파병될 자이툰 부대원 모집에 들어갔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23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자이툰 연내 완전 철군을 위한 9.23 반전행동' 집회를 갖고 이라크 철병 종식, 한국군 레바논 파병 반대, 이란 공격 반대,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외쳤다. 참가인원은 약 천여명. 여는 반전 집회처럼 제각기 준비한 반전 피켓이나 '다함께' 등 단체에서 만든 선전물을 든 대학생과 젊은 청년들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집회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을 비롯해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대표단, 다 함께 김우용 씨, 한국 평화재향군인회 표명필 대표, 한정현 신부, 평화여성회 정경란 소장, 사회진보연대 공성식 활동가, 전쟁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을 대표해 이슬 씨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평화여성회 한반도 평화센터 정경란 소장은 '얼마전 이라크에서 네명의 미군이 15세 소녀를 강간하고 가족을 몰살한 사건은 단지 군인 네명의 범죄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조건 속에서 가능했던 일'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군대나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평화'라고 말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자이툰 부대를 즉시 철수시키고 국회는 당장 철군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미국과 이스라엘을 돕기위한 레바논 파병 계획도 전면 철회하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늘리기 위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 참가자들은 5시경 집회를 마치고, 플래카드와 피켓 등 갖가지 선전물을 들고 평화문으로 행진 후 해산했다.

28 한반도에 평화를! 주민에게 인권을! 전쟁기지 확장 즉각 중단하라!

통일뉴스 평민권 기자 2006-09-24

평택미군기지확장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아서 안 된다는 1만 2천여명의 경고의 함성이 서울 하늘에 울려 퍼졌다. 24일 오후 3시 40분 서울시장 앞 광장에서 시민, 학생, 사회단체회원 1만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재협상 촉구 4차 평화대행진'이 열렸다.

이하 생략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평화문만드는여성회' 김정수 공동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평택미군기지 확장 즉각 중단과 전면 재협상 △대추리, 도두리 주민에 대한 탄압 중단과 김지태 주민대책위 위원장 즉각 석방 △한미FTA협상 중단과 평택미군기지확장 계획 즉각 철회 등의 요구를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한 채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한다면 노무현 정부와 미국은 전세계 평화애호 세력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는 11월 연공총결기를 통해 별다른적인 투쟁에 열어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동천마당을 끝으로 오후 6시 30분 막을 내렸다.

29 여성계, '북핵 실험 규탄하고 평화적 해결 촉구한다'

업코리아 이광효 기자 2006-10-10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계기로 대북 강경론이 국·내외에서 힘을 얻는 가운데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성계에서 일고 있다.

<평화문만드는여성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핵무기의 불명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1991년 채택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전면 위태로 한 것"이라고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민지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남북아의 군비증장과 핵 도미노를 우려한다"며 "이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여성들의 희망을 깨뜨리는 행위"라며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여성들은 평화와 생명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어떠한 핵실험도 핵무기도 인정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힌다"며 "북한의 핵무기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은 북한의 직접대화 요청을 무시하고 대북압박정책으로 일관해 왔고 이에 대한 반발로 북은 '핵실험'을 강행하였다"며 "북·미 상호 신뢰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이 현재의 국경을 이끌었다"며 미국도 한 위기의 직입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나 주변 국가들의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적 위협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북 봉쇄와 압박은 북한의 또 다른 강경대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자를 통한 강경대응은 북한의 핵 위기를 해결 하기는 커녕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 더 나아가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며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일관타결방식이던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이들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과 미국이 상호 신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북한이 6자 회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에 의한 해결이 아닌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외교적 방식의 해결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국정부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기보다 이번 위기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대북포용정책 수정과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의 재건되는 위기를 더 증폭시킬 뻔"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화해협력정책을 지속하여 남북교류의 끈을 놓지 말고 평화적 방식의 해결공간을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30. 각계 '북핵실험, 대화 통한 평화적 해결 촉구'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2006-10-11

북핵 실험에 대해 남한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각계에서 '압박'보다는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를 풀어나갈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하면서도 북핵실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북한의 핵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만이 평화정착의 길"

-----이하 생략-----

'평화롭고 만드는 여성회'도 10일 긴급성명을 통해 "제재를 통한 강경대응은 북한의 핵 위기를 해결하기는 커녕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 더 나아가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불거놓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런 때 일수록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평화적인 해결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1 북한 핵실험, 경제·정치적 파장과 우리의 대응-무조건적 지지·반대 거둬야

여성신문 김미향 기자 2006-10-13

-----이하 생략-----

평화롭고 만드는 여성회는 10일 '제재를 통한 강경대응은 핵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 더 나아가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화해협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남북 교류의 끈을 놓지 말고 평화적 방식의 해결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하 생략-----

32 북핵사태 평화적 해결을

우먼타임스 주진·김현주기자 2006-10-14

여성지원·여성계 '경악스런 일'...북-미간 대화 촉구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 대응에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촉구하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하 생략 -----

한편, 평화통일운동을 벌여온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평화적 문제 해결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남북여성통일대회 등 민간 교류 및 평화운동을 주도해온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는 10월 10일 성명서를 내고 '한반도에서 핵실험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1991년 채택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전면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 위협과 동북아의 군비증강, 핵 도미노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평화여성회는 또 '대북 봉쇄와 압박은 북한의 또 다른 강경 대응을 초래할 수 있어 핵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 나아가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만 낳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같은 내용으로 세계 여성단체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호소하는 글을 보낼 예정이다. 정인석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현재 한반도 상황을 알리고 이번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다결 국면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계 여성들에게 세계 평화와 국제 공존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33 한일 시민사회단체, 아베 내각 평화헌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내 어린 손자에게 손을 들게 하고 싶지 않다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2006-11-03

일본의 군사화와 보수화를 우려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에 금한하기 위해 한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3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11월 3일 한일공동행동 한국 일본위원회'는 일본 평화헌법 공포 60주년을 맞아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을 비난하며 '평화헌법이 담고 있는 항구적 평화주의 정신과 전쟁 거부와 전력 보유 및 고전권 감지를 담은 헌법 9조는 일본, 한국,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열망하는 아시아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 이하 생략 -----

한편 이날도 어김없이 일본대사관 앞은 경찰들의 위협한 정태로 마혁 원활한 기자회견 진행이 어려웠다. 또한 이날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던 공동성명서도 경찰들의 저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한일시민단체 참석자들로부터 반죽을 사기도 했다.

평화여성회 정경란 소장은 "기자회견을 갖기 전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사관측에서는 '반을 사담이 없다'며 '우연으로 전달해달라'라고 답했다"고 비판했다.

34 일 평화헌법 60주년, '11.3 한일공동행동' 벌어

복합범죄, 일평화헌법 계약 반대한다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2006-11-03

일본 평화헌법 공포 60주년을 맞이한 3일, 일본, 한국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복합범죄 이후 우경화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일본정부를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10여 개의 일본 시민단체 회원 35명이 서울을 방문해, '1.3한일공동행동 한국위원회(한국위)' 소속 시민단체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벌이는 등 일본의 우경화를 막기 위한 한·일 시민운동 진영의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다. 일본 시민단체 회원은 비롯해 한국위 소속단체 회원 등 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종각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한 일본의 평화헌법 계약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측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대위원회' 요네자와 키요에 이사는 '6.25전쟁에도 월남전쟁에도 일본이 적어도 아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자가 되는 것을 막은 것은 일본의 평화헌법 덕분'이었다며 '지금 다시 평화헌법을 바꿔서 전쟁을 하는 나라로 탈바꿈하는 것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리 '평화헌법 9조의 문장 사색을 바꾸자는 것은 나중 목표'라며 '헌법을 새로이 해석하면서 해의로 파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최근 아베의 가까운 브레인트 헌법개정론 장기적 목표로 생각하고 집단적 지위권을 행사하도록 바꿔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하 생략-----

35 3일, 한일공동행동 평화헌법 계약 반대 기자회견 열려

'손자를 다시 전쟁터로 보낼 수 없다'

오마이뉴스 박지훈 기자 2006-11-04

헌법 9조 아모로우(헌법9조 지키자)

일본 평화헌법 공포 60주년을 맞아 평화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냈다. 한일공동행동 소속 26개 단체는 3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헌법 계약 시도에 반대한다'며 일본 및 한반도 군사화와 보수화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 생략-----

36 '반전운동에 여성들도 참여할'

CNNNEWS 최수정 기자 2006-11-24

이라크전에서 아랍을 잃은 미국의 반전활동가 신디 시벤이 최근 방한해 강연회 등의 활발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여성단체 회원들의 반전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여성환경연대 등 6개 여성단체는 24일 오후 6시 미 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와 이라크평화를 위한 여성행동'에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이라크의 평화를 희망하는 여성들의 평화 메모리얼을 선보여 주목을 끌었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는 이미희 반미여성회 회장을 비롯, 전 세계 여성들의 뜻을 모아 창설한 평화운동 단체인 '코드핑크'의 설립자 메테아 벤저민씨가 연대에서 지를 전해 헌증 더 의미를 밝혔다.

'코드핑크'는 이라크전쟁 발발 이후 평화·반전·사회정의 운동을 펼치는 여성들이 모여 비폭력적이고 창의적인 저항 문화를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로 만든 단체다.

■ "평화의 아침 여는 여성될 것"

정헌택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행동에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하고 한국정부 역시 사이판 부대의 철수를 요구했다.

김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이라크에서 폭력과 두려움의 악순환이 끝나야 한다"며 "평화와 정의라는 희망의 작은 씨앗은 더 함께해야 한다"며 평화운동의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한 이라크 여성이 세제리 평화운동 단체인 '코드핑크'에 보낸 서한에서 "때때로 죽음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밝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이들 6개 여성단체는 "평화의 아침을 여는 여성 될 것"이라며 "전쟁으로 통곡하는 땅에 새날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환경연대·통일연대여성위·평화불만드는여성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대전여민회·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했다.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형편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평화여성회 웹사이트 <http://www.peacewomen.or.kr>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회원들끼리 생각과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서 ☪

기본사항	이름	(단체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번호	<input type="text"/>	이동전화	<input type="text"/>
연락처	집 주소 (우편번호)	<input type="text"/>		
	집 전화 (지역번호)	우편물 받을 곳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직장주소 (우편번호)	<input type="text"/>		
	직 장 명	소 속 <input type="text"/>		
	전자메일	직장전화 <input type="text"/>		
회비 납부 (CMS자동 이체)	거래은행	예금주명 <input type="text"/>		
	계좌번호	이 체 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회비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월1만원 <input type="checkbox"/> 월2만원 <input type="checkbox"/> 월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월금 <input type="text"/> 원)	
	학생회원	<input type="checkbox"/> 월1천원 <input type="checkbox"/> 월2천원 <input type="checkbox"/> 월3천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월금 <input type="text"/> 원)	
	(초중고생)	<input type="checkbox"/> 연1만원 <input type="checkbox"/> 연2만원 <input type="checkbox"/> 연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월금 <input type="text"/> 원)	
관심분야	<input type="checkbox"/> 정세대응 <input type="checkbox"/> 통일과제 <input type="checkbox"/> 국방과제 <input type="checkbox"/> 광둥해결 <input type="checkbox"/> 소식지발행 <input type="checkbox"/> 평화심성 <input type="checkbox"/> 평화축제 <input type="checkbox"/> 평화교육문화 <input type="checkbox"/> 스터디모임 <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text"/>)			
가입동기	<input type="text"/>			
가입일자	200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36-035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54번지, 2층
 전화 02-929-4846 팩스 02-929-4843

이메일 wmp@peacewomen.or.kr / www.peacewomen.or.kr
 후원계좌 388-810005-03104(하나은행) 예금주: 평화물민드느여성회

